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홍타이지 시기(1626~1643) 후금-청과 명 간의 강화교섭 전개 양상과 그 의미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손 재 완

홍타이지 시기(1626~1643) 후금-청과 명 간의 강화교섭 전개 양상과 그 의미

지도교수 丘 凡 眞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손 재 완

손재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8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홍타이지는 천명 11년(1626) 아버지 누르하치의 뒤를 이어 후금의 한(汗)으로 즉위하였다. 명과의 전쟁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요동 방어의 중요 거점인 산해관(山海關)을 넘어 북경성에 진주한 자는 누르하치도 홍타이지도 아닌 섭정왕(攝政王) 도르곤(多爾袞)이었다. 이후 청은 남명 정권을 멸망시킴으로써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다. 그런데 누르하치가 수립한 국가가 명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중원을 정복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누르하치와 홍타이지는 일찍부터 중원 정복을 목표로 삼았다고 이해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이해는 홍타이지가 명과 전쟁 중에 수행한 군사 작전뿐만 아니라 강화교섭을 설명하는 데에도 적용되었다. 다수의 연구에서 홍타이지가 중원 정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화교섭이라는 전략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수행하였다고 파악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목적론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홍타이지 시기 강화교섭의 전개 양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는 명과의 교섭 당시 왕래했던 실물 문서의 도판, 당안 자료와 더불어『天聰實錄稿』등 원시 사료 및 그에 준하는 사료들을 활용하였다.

천명 11년(1626) 누르하치의 사망 소식을 확인한 요동순무(遼東巡撫) 원숭환(袁崇煥)은 이라마(李喇嘛) 등 사신 일행을 파견하여 조의를 표하고 새롭게 한으로 즉위한 홍타이지에게 축하를 전했다. 홍타이지는 서신을 보내 이제 자신과 양국 간의 사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 원숭환은 답신을 보내지 않았고, 홍타이지는 천총 원년(1627) 정월 8일에 재차 서신을 보내 강화의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 홍타이지와 원숭환은 기만 작전으로 교섭을 활용하였다. 홍타이지는 교섭의 제안을 통해 명 측 전선에서 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모문룡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조선 쪽으로 군대를 발동하였다. 원숭환은 요서(遼西) 지역에 성을 수축하여 후금에 대한 방비를 강화하였다. 이후 양측 간에는 서신이 더 왕래하였으나 원숭환이 답신을 보내지 않게 되면서 교섭

은 중단되었다. 홍타이지는 교섭의 중단을 명분으로 삼아 영금지전(寧錦之戰, 1627)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 영금지전의 전장에서 홍타이지는 금주성(錦州城)의 태감에게 교섭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응하지 않자 홍타이지는 공격을 재개하였다.

영금지전에서의 패배 이후 홍타이지는 몽골의 타이지와 라마를 파견하여 천계제(天啟帝)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고 교섭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명 측은 조문을 거절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임해있던 원숭환이 요동독사(遼東督師)로 복귀하였고 홍타이지는 그와 다시 교섭을 진행하였다. 이 교섭에서 홍타이지가 인장과 연호에 관한 원숭환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였음에도 교섭은 중단되었다. 이를 명분으로 홍타이지는 화북을 침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명 황제, 요동의 관원에게 교섭을 제안하였다.

1632년 화북침공은 차하르 릭단에 대한 원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천총 6년(1632) 릭단을 향해 북상하던 후금-몽골 연합군은 릭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군대를 돌려 명 변경의 몽골 바이싱을 침공했다. 연합군은 화북 변경 지역에서 물자를 약탈하였고 차하르가 명으로부터 받기로 되어있던 물자를 거두어갔다. 심양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는 산서(山西)의 선부(宣府) 관원과 교섭을 진행하여 '선부 맹약(宣府 盟約)'을 맺고 명과 교역을 실시하였다. 이 교섭에서 홍타이지는 명이 몽골 세력과의 평화적인 관계를 위해 제공했던 무상은(撫賞銀)을 이제 후금이 받겠다고 주장하면서 알탄의 선례를 언급했다. 전쟁으로 단절되었던 명과의 교역을 재개하는 것도 주요 안건이었다. 맹약은 연합군이 심양으로 귀환한 이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홍타이지는 천총 7년(1633)의 대토론을 거쳐 이듬해 다시 화북을 침공하였다. ('1634 화북침공') 침공 발발의 원인은 '선부 맹약'이 명 측에 의해 '파기'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침공의 과정에서 교섭의 제안이 산서의 관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숭덕 연간의 강화교섭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변경의 관원이 아닌 명 병부상서가 청과의 강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숭덕 3년(1638) 명 병부상서(兵部尚書) 양사창(楊嗣昌)은 명 황제의 재가를 받아 사신을 심양으로 파견하여 비밀교섭을 진행하였다. 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교역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보이며 알탄과 융경화의(隆慶和議)가 다시 거론되었다. 비밀교섭이 누설되어 교섭은 중단되었고, 홍타이지가 화북을 침공하는 데 명분을 제공하였다.

송금지전(松錦之戰)에서 명의 대군이 청군에게 패배하여 송산·금주성에 고립됨에 따라 명에서 청과의 강화가 다시 검토되었다. 명의 병부상서 진신갑(陳新甲)은 명 황제의 재가를 받아 사신을 심양으로 파견하였다. 홍타이지는 탑산(塔山) 지역을 국경으로 삼고 그 부근에서 교역을 재개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몽골 세력이 명으로부터 받았던 정도의 예물을 받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었다. 교섭은 또 중단되었고 홍타이지는 화북침공을 결정하였다. 단 그는 원정군의 지휘관에게 강화를 위한 명의 사신을 출정 길에 만나게 된다면 이들을 심양으로 보내와야 한다고 명을 내렸다. 이는 홍타이지가 숭덕 7년(1642) 교섭이 중단된 시점에서도 강화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홍타이지 시기 강화교섭은 여러 측면에서 다른 전개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이 양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홍타이지가 다음과 같은 양상을 반복적으로 보였다는 점이다. 교섭이 진행되고 명 측의 사유로 인해 중단되자 홍타이지는 이를 명분으로 삼아 명을 공격하였다. 이 전장에서 다시 교섭을 제안하였고 명 측이 여기에도 응하지 않자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처럼 교섭과 공격을 번갈아 수행하는 행태는 토마스 바필드(Thomas J. Barfield)가 제시한 유목국가의 '외부변경전략'(the outer frontier strategy)'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양상이 드러나는 배경에는 홍타이지 재위기 후금-청이 처해 있던 경제적 곤란이 있었다. 홍타이지는 명과 강화를 통해 명과 교역을 재개하고 물자를 확보하여 후금-청이 처해 있던 열악한 경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홍타이지는 '외부변경전략'과 유사한 양상을 반복적으로 보이면서 강화를 성사시키고자 하였고, 우선 명과의 전쟁을 중단하고 알탄의 선례를 따라 명과 공존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강화교섭, 명청 전쟁, 홍타이지, 원숭환, 화북침공, 명청교체
학 번 : 2020-21922

목 차

머 리 말 ····· 1

Ⅰ. 천총 원년(1627) 홍타이지와 袁崇煥의 강화교섭 ····· 9

1. 원숭환의 조문과 홍타이지의 대응 ····· 9

2. 강화교섭을 활용한 양측의 기만 작전 ····· 15

3. 교섭의 중단과 寧錦之戰(1627) ····· 19

Ⅱ. 홍타이지의 화북침공과 변경의 강화교섭 ····· 26

1. 홍타이지의 조문 시도와 교섭 제안 ····· 26

2. 천총 3년(1629) 원숭환과의 교섭 재개와 1629-30년 화북침공 ····· 30

3. 1632년 화북침공과 '宣府 맹약' : 알탄의 선례와 교역 문제 ····· 38

Ⅲ. 숭덕 연간의 명·청 강화교섭과 화북침공 ····· 47

1. 숭덕 3년(1638) 명·청 강화교섭과 1638-39년 화북침공 ····· 47

2. 松錦之戰(1640-1642), 강화교섭 그리고 1642-43년 화북침공 ····· 54

Ⅳ. 홍타이지 시기 강화교섭의 성격과 의의 ····· 63

맺 음 말 ····· 71

참고문헌 ····· 75

Abstract ····· 83

표 목 차

[표 1] 천총 원년(1627) 강화교섭에서의 擡頭 문제 ····· 22
[표 2] 천총 3년(1629) 강화교섭 서신 왕래 일람 ····· 31
[표 3] 홍타이지 시기 강화교섭 전개 양상 ····· 64

그 림 목 차

[그림 1] 천명 11년 서신 ····· 11
[그림 2] abkai fulingga Aisin gurun i han i doron ····· 11
[그림 3] 己巳年正月金國汗致袁崇煥書 ····· 23
[그림 4] 己巳年正月金國汗致袁崇煥書 확대 ····· 23
[그림 5] 己巳年正月金國汗致袁崇煥書 인장 ····· 33
[그림 6] 金國汗致大明衆臣宰書 ····· 33

머 리 말

천명(天命) 원년(1616) 정월 초하루[1] 누르하치(Nurhaci, 努爾哈赤)[2]는 아이신 구룬(Aisin gurun, 金國)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천명 3년(1618) 그는 칠대한(七大恨)을 거론하며 명과 전쟁을 선언하고 요동을 침공하기 시작하였다. 이 전쟁은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 입관(入關)이라는 대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순치(順治) 원년(1644) 사월 섭정왕(攝政王) 도르곤(Dorgon, 多爾袞) 휘하의 청군(淸軍)이 산해관(山海關)을 통과한 것이다. 입관 이후 청은 북경으로 천도를 단행하고 천하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이후 청은 강희(康熙) 원년(1662) 남명 정권을 멸망시키고 최종 승자가 되었다. 누르하치는 아버지가 "물려준 13벌의 갑옷[遺甲十三副]"을 가지고 거병하였지만, 그가 세운 국가는 '명의 천하'를 대체하였다.

'시작은 미약'했던 후금-청이 '창대한 끝'을 맞게 되었다는 사실은 연구자들에게 누르하치와 홍타이지(Hongtaiji, 皇太極)가 일찍부터 중국을 정복하고자 했다는 전제를 설정하게 하였다. 이 전제는 명과의 전쟁에서 누르하치와 홍타이지가 취한 행동이 모두 중원 정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한 것이라는 이해로까지 이어졌다.[3]

그런데 홍타이지에 의하면 누르하치는 다음과 같이 발언한 적이 있었다.

---

* 이 논문은 2023년 포니정재단 인문연구장학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1) 본고의 날짜 표기는 음력을 기준으로 하였다. 후금-청의 연호로 연도를 표기하고 명의 상황을 다루는 경우 명의 연호를 병기하였다. 음력의 월을 표기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 대신 한글을 써서 오늘날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의 월과 구분하고 괄호 안에는 그레고리력의 연도도 기재하였다. 음력 연말은 양력으로 변환했을 때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기에 이 경우 양력 연월일을 괄호 안에 표기하도록 한다. 예시) 천명 11년 십일월 14일(양력 1627년 1월 1일)

2) 만주어 인명·지명은 만주어 원음을 한글로 표기하였다. 만주어 고유명사가 처음으로 제시될 때 괄호 안에 만주어의 로마자 전사(轉寫)와 한자를 병기하고, 이후에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로마자 전사는 묄렌도르프 표기법에 따랐다.

3) 劉承軍, 「淸代開國政權意識形態探析:以淸太祖, 太宗正統觀爲中心的考察」, 『商丘師範學院學報』, 2012-11; 吳剛, 「"搶西邊"和"欲得中原":"己巳之役"中滿洲貴族新舊"戰爭理念"的碰撞和衝突」, 『淸史硏究』, 2011-4; 王思治·李鴻彬, 「論皇太極時期對明作戰策略的演變」,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明淸檔案與歷史硏究:中國第一歷史檔案館六十周年紀念論文集』, 北京: 中華書局, 1988.

광녕(廣寧)을 얻자 여러 왕과 장수들이 관문(산해관을 지칭)으로 들어가고자 했지만,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옛날 대요(大遼), 대금(大金), 대원(大元)은 각자의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중국의 내지로 들어가 살았기 때문에 (흥하였다가 패망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이제 관문의 서쪽은 중국이고 요동은 우리 나라이니, 영원토록 각자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하여 회군하고 4년간 강화(講和)를 기다렸다.[4)]

[이하 본고의 인용문 및 각주의 강조 표시 및 괄호 안의 보역 등은 모두 인용자에 의한 것임]

홍타이지는 천총 원년(1627) 명 측에 자신 역시 강화를 원하고 있다며 누르하치의 이 발언을 인용하였다. 이 발언에 따르면 누르하치는 중원 정복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한 채 명과의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단 누르하치 시기에는 이렇다 할 강화교섭[5)]이 시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는 천명 11년(1626)에 사망하였다.

누르하치가 사망하자 홍타이지가 후금의 한(汗)으로 즉위했다. 명과의 전쟁은 격화되었다. 그러나 홍타이지 시기 후금-청[6)]과 명 사이에 치열한 전

---

4) 李光濤 編著,『明淸檔案存眞選輯:初集』, 中央硏究院歷史言語硏究所, 1959,「天聰元年四月初八日金國汗致李喇嘛書稿」(천총 원년 사월 8일), p.68, 圖版 29, "及得廣寧, 衆王及衆將皆欲進關, 獨我皇考曰, '昔日大遼, 大金, 大元不各自爲國, 而住中國腹裏地方, 故有循環. 今自關以西爲中國, 遼東爲我國, 永爲各國.' 故回兵來, 等候講和四年."

5) 홍타이지 시기 명과의 강화교섭을 지칭하기 위해 講和, 和議, 和親, 求和, 求款 등 다양한 용어가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특히 '和議'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和議'는 '화해를 위한 의론'을 의미하나, '화의가 성사되었다', '화의를 맺었다'라는 표현으로도 양측의 화친이 이루어진 상태를 지칭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화친을 위한 양측의 논의를 지칭하기 위한 단어로서 '강화교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講和'의 경우 '싸우던 두 편이 싸움을 그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됨'을 의미하므로 '강화를 맺다', '강화를 성사시키다'와 같은 용법으로 이 단어를 사용할 것이다. 홍타이지 시기에는 조선과도 강화교섭이 이루어진 바 있었다. 그러나 본고의 주안점은 명과의 교섭이고 본고 전체에서 강화교섭이라는 말이 계속 사용되므로 번잡을 피하기 위해 이하에서 따로 '명과의 강화교섭'이라고 적시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6) 홍타이지는 숭덕 원년(1636) 사월 11일, '관온인성황제(寬溫仁聖皇帝)'라는 존호를 받고 국호를 '金'에서 '淸'으로 바꾸었으며, 연호도 천총(天聰)에서 숭덕(崇德)으로 개원하였다. 숭덕 원년(1636) 사월 11일 이전일 경우 누르하치가 중국의 동북 지역에 세운 만주족의 국가를 후금(後金)으로 지칭하고, 그 이후일 경우에는 청으로 지칭하였다. 시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지칭할 때는 후금-청으로 표기하였다.『淸太宗實錄』권28, 숭덕 원년 사월 11일.

쟁만 지속된 것은 아니었다. 후금-청 측이 되었든 명 측이 되었든 각자의 필요로 강화교섭 역시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

홍타이지 시기 강화교섭은 전술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되는 경향이 있었다. 홍타이지가 일찍이 중원 정복이라는 목표를 지니고 있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강화교섭을 활용하였다는 설명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청이 입관 이후 이룩한 대업을 이전의 역사에까지 소급하여 설명하려는 시도였다. 그 시도는 주로『청태종실록』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청태종실록』이 청의 중원 정복이라는 '승리 서사'에 부합하도록 편찬되었다는 점으로, 다수의 기존 연구는『청태종실록』의 편찬 의도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홍타이지 시기 강화교섭의 전개 양상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홍타이지 시기 강화교섭의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홍타이지 시기 강화교섭에 관한 연구는 주로 청의 초기 역사와 명청 전쟁에 관한 연구에서 간략하게 다루어졌다.[7] 강화교섭을 전론(專論)한 연구의 경우 다수가 일부 시기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하였고,[8] 홍타이지 시기 전체에 걸쳐 그 전개 양상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9] 구미 학계의 연구로는 만주족이 중원을 차지하고 제국을 건설하는 일련의 과정을 연구한 웨이크만(Frederic Wakeman Jr.)의 저서가 있지만, 역시 강화교섭의 전모를 다루지 않고 간략하게 서술하는 데에 그쳤다.[10] 국내 연구에서도 후

---

7) 稻葉君山 著, 但燾 譯,『淸朝全史 上』, 上海: 中華書局, 1915, pp.140-148; 李鴻彬,『淸朝開國史略』, 蓬萊: 齊魯書社, 1997, pp.132-140; 袁閭琨 等,『淸代前史』, 瀋陽: 瀋陽出版社, 2004, pp.636-669; 孫文良・李治亭,『明淸戰爭史略』,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2, pp.183-190, 348-355; 閻崇年,『淸朝開國史』 4, 北京: 中國友誼出版公司, 2014, pp.83-115.

8) 李光濤,「記金國汗之迫而乞款」,『學原』第一卷, 第十期, 北京: 商務印書館, 1948; 滕紹箴,「皇太極的求和及其眞意」,『求是學刊』, 1982-3; 趙世瑜,「淸對明議和二・三見」,『社會科學輯刊』, 1983-1; 姜守鵬,「遼東對峙時期的明淸議和」,『東北師範大學學報』, 1986-6; 張玉興,「十七世紀前期明淸議和述評」,『中國社會科學院硏究生院學報』, 1990-3; 張德信,「明淸議和與陳新甲之死」,『史學月刊』, 1993-3; ; 張帥,「淸太宗時期的明淸議和」, 南京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5; 王玉君,「淺析明與後金(淸)的三次議和及其失敗原因」,『黑龍江史志』, 2017-6.

9) 이하의 연구에서는 교섭의 양상이 전반적으로 검토된 바 있다. 李光濤,「淸人入關前求款之始末兼論袁崇煥陳新甲之死」,『中央硏究院歷史語言硏究所集刊』9, 1947; 任長正,「淸太祖太宗時代明淸和戰考」,『大陸雜志史學叢書第一輯第七冊・淸史及近代史硏究論集』, 臺北: 大陸雜志社, 1966; 李鴻彬,「淸朝開國與對明議和策略」,『史學集刊』1992-2.

금-청의 대명 관계를 논하거나 청의 중원 공략을 설명하면서 강화교섭을 언급하였다.[11)]

이들 연구 각각은 홍타이지 시기 강화교섭의 전개 양상을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우선, 홍타이지의 강화교섭을 '거짓 평화 공세'로 파악한 연구가 있다.[12)] 이 연구들은 홍타이지가 교섭을 통해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후금의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명 조정 내부를 교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홍타이지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명에 양보하지 않는 등 강화를 성사시키는 데 관심이 없었으며 교섭은 단지 후금-청의 국력을 신장시킬 시간을 벌어주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홍타이지의 강화교섭이 어떠한 측면에서 '거짓 평화 공세'에 불과했는지 구체적으로 논증하지 않은 채, 청이 중원을 차지하였다는 결과를 강화교섭에도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홍타이지가 적극적인 자세로 강화를 성사시키고자 했다고 주장한 연구들 역시 제출되었다.[13)] 이 연구들에 따르면 홍타이지는 강화를 맺어 명 측 전선을 안정화하고 후금 내부 권력 문제, 국내의 기근, 조선이나 몽골 관련 사안 등을 해결하고자 했다. 숭덕 연간(1636-1643)에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청의 국력이 강성해지자 다시 중원 정복을 도모하여 결국 이를 달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교섭은 숭덕 연간에도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 숭덕 연간의 교섭에서도 홍타이지가 전쟁을 그치고자 하는 의

---

10) Frederic Wakeman Jr., *The Great Enterprise: The Manchu Reconstruction of Imperial Order in Seventeenth-Century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pp.82-86.

11) 노기식, 「滿洲의 興起와 동아시아 질서의 변동」, 『중국사연구』 16, 2001, pp.23-26; 김선민, 「人蔘과 疆域-後金·淸의 강역 인식과 대외관계의 변화-」, 『명청사연구』 30, 2008, pp.241-245; 박민수, 「淸의 入關과 旗人의 北京 移住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pp.53-54.

12) 稻葉君山 著, 但燾 譯, 『淸朝全史 上』 上海: 中華書局, 1915; 趙世瑜, 「淸對明議和二·三見」, 『社會科學輯刊』 1983-1; 滕紹箴, 「皇太極的求和及其眞意」, 『求是學刊』, 1982-3; 王玉君, 「淺析明與後金(淸)的三次議和及其失敗原因」, 『黑龍江史志』, 2017-6.

13) 李鴻彬, 「皇太極時期明金(淸)關係初探」, 『遼寧大學學報』, 1983-1; 姜守鵬, 「遼東對峙時期的明淸議和」, 『東北師範大學學報』, 1986-6; 李鴻彬, 「淸朝開國與對明議和策略」, 『史學集刊』 1992-2; 孫文良·李治亭·邱蓮梅, 『明淸戰爭史略』,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2; 閻崇年, 『淸朝開國史』 4, 北京: 中國友誼出版公司, 2014.

지를 피력하였음을 여러 사료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들은 숭덕 연간의 교섭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고 홍타이지가 강화 성사에 적극적 태도를 보인 사실에 대해서도 충분한 해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강화교섭을 중원 정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앞의 연구들과 달리 홍타이지가 강화를 맺어 전쟁을 중단하고 요동 지역에서 명과의 공존 상태를 유지하고자 했다고 주장한 연구들이 있다.[14] 이 연구들에 의하면 홍타이지가 교섭에 나선 이유는 명을 정복하여 중원왕조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교섭의 제안은 당시 후금의 경제적 곤란에 기인하였으며, 강화를 맺어 명과 교역을 재개함으로써 양식과 필수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특정 국면에서 홍타이지가 명 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 사항을 제안했음에도 홍타이지 시기 내내 그가 강화를 적극적으로 성사시키고자 했다고 규정지었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홍타이지가 강화를 맺고 명과의 공존 상태를 유지하려 했다는 위 연구들의 견해에 동조하되, 이를 계승·발전하는 입장에서 선행 연구가 간과한 지점들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고자 한다.

첫째, 선행 연구에서는 천명 11년(1626) 시월부터 숭덕 7년(1642) 유월까지 후금-청과 명 측 사이에 시도되었던 여러 차례의 교섭에 대해서 일관된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후술하겠지만, 특정 상황에서 홍타이지는 교섭을 기만 작전으로 구사하였고 다른 상황에서는 강화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홍타이지 시기 강화교섭의 전모를 살펴보면 교섭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차이에 주목하여 교섭의 전개 양상에 주목한다면, 교섭이 진행될수록 후금-청과 명 간의 강화 실현 가능성이 커져 갔음을 파악할 수 있다. 본고는 이에 착안하여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홍타이지 시기 강화교섭을 개별적으로 추적하

---

14) 李光濤, 「淸人入關前求款之始末兼論袁崇煥陳新甲之死」, 『中央硏究院歷史語言硏究所集刊』 9, 1947; 李光濤, 「記金國汗之迫而乞款」, 『學原』 第一卷, 第十期, 北京: 商務印書館, 1948; 任長正, 「淸太祖太宗時代明淸和戰考」, 『大陸雜志史學叢書第一輯第七冊·淸史及近代史硏究論集』, 臺北: 大陸雜志社, 1970; 陳生璽, 「論松錦之戰後的明淸議和」, 『渤海學刊』, 1989-3; 袁閭混 等, 『淸代前史』, 瀋陽: 瀋陽出版社 2004.

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다수의 연구에서 홍타이지가 교섭 중단 이후 명을 공격하여 강화가 성사되도록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강화 성사를 압박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본고는 교섭 중단 이후의 공격이 어떠한 전투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더 나아가 후금-청은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전장에서 다시 교섭을 제안하였다. 교섭과 공격이 반복되는 이 과정을 살펴보고 후금-청 측이 어떻게 명 측에 강화 성사를 압박하였는지 분석한다.

셋째, 명 측의 대응이 자세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기존연구의 강화교섭에 대한 분석이 후금-청 측의 기록을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양자 간의 교섭 전개 양상을 충실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明熹宗實錄』, 『崇禎實錄』, 『崇禎長編』뿐만 아니라 『明淸史料』와 같은 당안 자료, 교섭이 진행될 당시 중책을 맡았던 명 관원의 문집[15] 등 여러 사료를 활용하여 명의 상황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명과 후금 사이를 오갔던 문서나 당시 상황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당안 및 기록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활용도가 비교적 낮았다. 강화교섭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사료로, 『明淸檔案存眞選輯:初集』(이하 『존진』)과 『天聰實錄稿』가 주목된다.[16] 『존진』은 당안 자료의 실제 도판을 수록한 사료집이다. 도판이 수록된 본 사료집의 특성상, 홍타이지와 명 간에 왕래한 서신의 대두(擡頭), 인장(印章) 등과 같은 서식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天聰實錄稿』란 순치(順治) 9년(1652)에 칙수(勅修)된 『淸太宗實錄』의 원고로 건륭 삼수본 『淸太宗實錄』은 물론이고,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순치 초찬본 『淸太宗實錄』보다도 이전에 작성된 사료이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17] 본고는 이 사료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

15) 王在晉, 『三朝遼事實錄』(全國圖書館古籍文獻編委會 彙刊, 『中國公共圖書館古籍文獻珍本彙刊 · 史部』 北京: 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2002); 楊山松, 『孤兒籲天錄』(『四庫禁毁書叢刊』 編纂委員會編, 『四庫禁毁書叢刊補編』 17, 北京: 北京出版社, 2005); 楊嗣昌, 梁頌成輯校, 『楊嗣昌集』, 長沙: 嶽麓書社, 2008.

16) 李光濤 編著, 『明淸檔案存眞選輯:初集』, 中央研究院歷史言語研究所, 1959. 이하에서는 번잡을 피하고자 다시 인용하는 문헌을 '저자, 출판연도' 식으로 약칭한다.

Ⅰ장에서는 천총 원년(1627) 홍타이지가 원숭환(袁崇煥)과 진행했던 교섭을 다룬다. 누르하치가 사망하자 원숭환은 사신을 파견하여 조의를 표하였다. 조문은 교섭의 발단이 되었다. 천총 원년(1627) 정월 홍타이지의 서신을 기점으로 강화 조건과 서식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 홍타이지와 원숭환은 모두 기만 작전으로 강화교섭을 활용했다. 교섭이 중단되자 홍타이지는 이를 명분으로 삼아 영원·금주 전투(寧錦之戰, 1627)에 착수하였다.

Ⅱ장은 홍타이지의 화북침공 중 '1629-30년 화북침공'에 주목하고 침공의 착수 전후로 이루어진 강화교섭에 대해서 살펴본다. 천총 3년(1629) 요동독사(遼東督師)로 복귀한 원숭환과 재교섭이 이루어졌고 서신의 서식 문제가 다시 논의되었다. 이 교섭이 중단되자 홍타이지는 '1629-30년 화북침공'에 나섰고 그 전장(戰場)에서 교섭을 제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서 '1632 화북침공' 당시 이루어진 강화교섭을 다룬다. 천총 6년(1632) 차하르의 릭단을 공격하기 위해 북상하던 후금-몽골 연합군은 추격을 단념하고 명 변경의 몽골 바이싱을 침공하여 물자와 인구를 약탈하였다. 이 침공 이후 심양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요동이 아닌 산서(山西) 선부(宣府) 관원에게 교섭을 제안하였다. 이 교섭에서 홍타이지는 명과의 교역 재개를 요구하였고 몽골 세력이 명으로부터 받던 물자를 이제 후금이 받겠다고 주장했다.

Ⅲ장에서는 숭덕 연간의 '명·청 강화교섭'과 뒤이어 펼쳐진 화북침공에 대하여 주목한다. 이 시기에는 명 변경 관원이 아니라 명 조정의 대신이 청과의 강화교섭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명 황제의 재가를 받은 명 병부상서가 강화교섭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명·청 강화교섭'이 이루어졌다. 숭덕 연간에도 교섭 중단 이후 화북침공이 이어졌고, 침공 이후 교섭의 제안이 이루어졌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교섭의 전개 양상을 다시 살펴보고 홍타이지가 시기 강화교섭의 성격과 의의를 밝혀보고자 한다.

---

17) 『天聰實錄稿』는 천명 11년 구월 1일부터 천총 원년 오월 16일까지의 기록에 해당하는 제1권과 천총 6년의 일부 기사와 천총 7년의 기록에 해당하는 나머지 한 권, 이렇게 총 두 권이 현전한다. 대만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 중이다. 대만 학자 李光濤가 자신의 논문에서 인용한 일부 문장만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명을 정복하여 ‘유일 천자국’이 되었던 대업을 소급하여 후금-청의 개국사를 파악하려 했던 목적론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홍타이지 시기 강화교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접근을 통해 ‘강대국’ 명의 변방에서 ‘약소국’으로 상당한 부침을 겪으며 국가의 틀을 마련해가던 청 초기 역사의 역동성도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가 명청 전쟁의 전개 과정과 그 결말에 대한 이해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Ⅰ. 천총 원년(1627) 홍타이지와 袁崇煥의 강화교섭

1. 원숭환의 조문과 홍타이지의 대응

누르하치의 후금군은 천명 4년(1619) 사르후(Sarhū, 薩爾滸) 전투에서 명·조선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하였고, 천명 6년(1621) 명의 영역이었던 요양(遼陽)·심양(瀋陽) 일대를 점령한 뒤 요양으로 천도했다. 천명 10년(1625)에는 심양으로 수도를 다시 옮겼다.[18] 팽창일로의 누르하치 세력을 막아선 자가 요동순무(遼東巡撫) 원숭환(袁崇煥)이었다. 천명 11년(1626) 정월 누르하치는 원숭환이 지키는 영원성(寧遠城)을 공격하였으나 함락하지 못한 채 심양으로 퇴각하였고,[19] 같은 해 팔월 7일에 사망하였다.[20]

누르하치의 사망 소식을 접한 원숭환은 천명 11년(천계 6년, 1626) 구월 29일 이라마(Lii lama, 李喇嘛)[21] 등 34인의 사신[22] 일행을 심양으로 파견했다. 원숭환은 사신 파견을 통해 누르하치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고 한(汗)으로 즉위한 홍타이지에게 축하를 전하고자 하였다.[23] 그리고 사망 소식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한위(汗位) 계승을 두고 후금 내부에 분쟁이 있

---

18) 누르하치 시기 후금-명 간의 전쟁 양상은 李鴻彬, 1997, pp.57-117; 孫文良·李治亭·邱蓮梅, 2012, pp.44-205; 谷井陽子, 『八旗制度の研究』,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5, pp.203-212의 설명을 참조.

19) 『淸太祖實錄』 권10, 천명 11년 이월 9일.

20) 『淸太祖實錄』 권10, 천명 11년 팔월 7일.

21) 李喇嘛는 李鎖南이라고도 지칭되었던 티베트 불교 승려이다. 甘肅·靑海 일대의 한인으로 추정된다. 원숭환의 보고에 의하면 이라마는 五臺山에서 수행한 인물로서 萬曆帝로부터 칙서와 法衣를 하사받는 등 조정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원숭환을 위해 여러 임무를 담당했다(李勤璞, 「明末遼東邊務喇嘛」,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71-3, 2000, pp.581-594). 명에서는 당시 후금에 티베트 불교가 성행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금에 파견할 인원으로서 라마를 기용하였다. 『明熹宗實錄』 권73, 천계 6년 윤유월 25일.

22) 사신이란 군주의 칙명을 받아 외국으로 파견된 인원을 지칭한다. 그런데 이때 조문을 위해 심양으로 향했던 이들은 명 황제가 아닌 요동순무 원숭환에 의해 파견된 자들이었기에 엄밀히 말하자면 사신이라고 지칭할 수 없다. 홍타이지 시기 후금-청과 명 간의 교섭에서 명이 파견한 인원 중에는 명 황제의 명을 받아 정식 사신의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 자는 없었다. 다만 후금-청 측 인원은 군주인 홍타이지의 명에 따라 파견된 자들이었으므로 사신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혼동을 피하고 서술의 용이함을 기하기 위해 명 측으로부터 파견된 인원도 '사신'으로 지칭하도록 하겠다.

23) 『明熹宗實錄』 권73, 천계 6년 구월 29일; 『淸太宗實錄』 권1, 천명 11년 시월 17일.

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후계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이간책을 구사할 기회까지 엿보겠다고 천계제(天啟帝)에게 상주(上奏)하였다.[24]

사신 일행은 심양에 한 달 정도 체류하였다. 이 시기 후금에서는 막남(漠南) 할하로 성공적인 원정을 마치고 돌아온 후금군을 위해 개선 의례가 열렸다.[25] 홍타이지는 사신 일행을 의례에 참석하게 하여 후금군의 위세를 과시하고 융숭한 대접을 베풀었다.[26] 이들은 천명 11년 십일월 14일(1627년 1월 1일) 영원으로 귀환하였다. 같은 날 홍타이지는 팡기나(Fanggina, 方吉納)와 운타시(Untasi, 溫塔石) 등 7명을 파견하여 원숭환에게 다음의 서신을 전하게 하였다.

> ①**大金國 皇帝**가 大明國의 袁 선생 대인 각하에 서신을 보냅니다. 지금 南朝(명나라를 지칭)에서 두 나라가 전쟁을 치러왔음을 따지지 않고, 이라마와 네 명의 官員을 보내와 弔問과 慶賀를 하였습니다. (이는) 예로써 대한 것이니 우리 나라 역시 어찌 다른 마음을 품겠습니까? 이미 예로써 왔기에, 마땅히 예를 갖춰 가야 하므로 관원을 보내어 감사를 전합니다. ②**양국 간의 일에 대해서는 先父皇께서 영원에서 서신을 보내셨는데 아직 회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南朝의 皇帝가 서신을 보내온다면, 그 도래할 서신에 맞추어 바로 회답할 것입니다.** 무릇 (양국과 관련된) 사안은 진실한 마음과 뜻으로 임해야만 하니, 거짓된 언사를 왕래하여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③**天命 丙寅年** 十一月 十四日 씀.[27]

---

24)『明熹宗實錄』권76, 천계 6년 구월 28일; 구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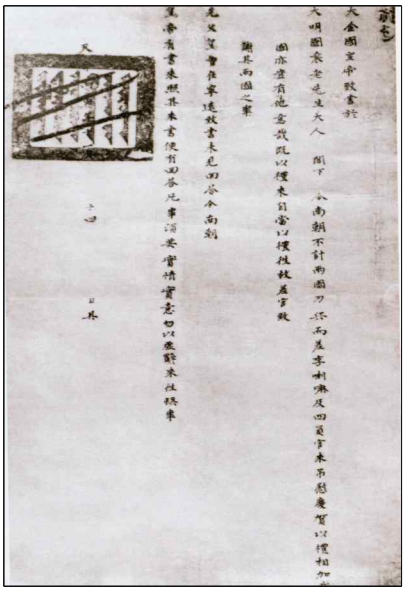
25) 누르하치는 사망하기 몇 달 전 막남(漠南) 지역의 다섯 오톡 할하를 공격했고 호르친과 공수동맹을 맺어 이후 차하르와 명 공격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홍타이지 역시 누르하치가 다져놓은 기반 위에서 다섯 오톡 할하 공격을 진행했다. 할하 만호 가운데 다얀 칸의 아들 알추 볼라드가 이끄는 세력은 16세기 중엽 시라무렌 방면으로 이동한 뒤 그 후손들에 의해 나누어져 '다섯 오톡 할하'로 불리는데, 자루드·바린·홍기라드·바유드·우지예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 후금군의 공격이 대상이 되었던 오톡은 자루드와 바린이었다. 최주봉, 「마지막 대칸 릭단의 몽골 통일 시도와 그 유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p.15의 각주 47.

26)『淸太宗實錄』권1, 천명 11년 시월 27일; 십일월 4일.

27) 이 서신의 도판이 故宮博物院,『淸史圖典·淸朝通史圖錄』第一冊 太祖·太宗朝, 北京: 紫禁城出版社, p.99에 수록되어 있다. "++大金國皇帝致書於 ++大明國袁老先生大人閣下. 今南朝不計兩國刀兵, 而差李喇嘛及四員官來弔慰慶賀. 以禮相加, 我國亦豈有他意哉? 旣以禮來, 自當以禮往, 故差官致謝. 其兩國之事 ++先父皇曾在寧遠致書, 未見回答. 今南朝++皇帝有書來, 照其來書便有回答. 凡事須要實情實意, 勿以虛辭來往誤事. 天命丙寅年 十一月 十四日具." '+' 기호는 擡頭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擡頭란 경

이 서신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홍타이지는 자신을 “대금국 황제”로 칭하였고, 후금의 연호인 천명(天命)을 사용하였다. (①, ③) 원숭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누르하치가 보냈던 서신에 대한 회답을 요구하였다.[28] 누르하치의 서신에 대한 회답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홍타이지는 원숭환에게 이제 자신과 양국 간의 일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이었다.(②) 서신의 도판인 [그림 1]을 보면 만문(滿文) 인장을 붓으로 지워버린 흔적도 확인할 수 있다.[29]

[그림 1] 천명 11년 서신



※ 출처: 故宮博物院,『淸史圖典·淸朝通史圖錄』 第一冊-太祖·太宗朝, 北京: 紫禁城出版社, p.99.

[그림 2] abkai fulingga Aisin gurun i han i doron
(天命金國汗之寶)

※ 출처: 李光濤 編著,『明淸檔案存眞選輯:二集』, 臺北: 中央硏究院歷史言語硏究所, 1973, 附圖二.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줄을 바꾸어 쓰고 다른 줄보다 글자를 올려 쓰는 것을 지칭한다. 2개의 ‘+’ 기호는 해당 글자가 다른 줄보다 두 글자 대두되어있음(雙擡)을 나타낸다.

28) 누르하치가 영원에서 발송한 서신의 내용은 사료에서 찾지 못했다. 후금군이 천명 11년(1626) 정월 14일 영원성을 포위하고 사로잡은 한인을 보내 항복을 권유하는 모습만 사료에서 확인된다.『淸太祖實錄』권10, 천명 11년 정월 14일.

29) 이 인장은 [그림 2]와 동일한 것으로 후금 汗의 인장이었다. 李光濤 編著,『明淸檔案存眞選輯:二集』, 臺北: 中央硏究院歷史言語硏究所, 1973, 附圖一. 인장과 관련된 문제는 만문 인장을 붓으로 지운 사례가 다시 등장하는 천총 3년(1629)의 교섭을 다루면서 서술하겠다.

천명 11년(천계 6년) 십이월 22일(1627년 2월 7일), 원숭환은 서신을 접수하지 않았다. 후금의 사신 일행을 돌려보냈고 답신도 보내지 않았다. 서신에 "大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 이유였다.[30] 원숭환은 조문을 통해 후금의 상황을 정탐해내는 데 성공하였으니 이제 요서 지역의 성지를 수축하여 후금에 대한 방비를 강화하겠다고 황제에게 보고하였다.[31] 그런데 요동독사(遼東督師) 왕지신(王之臣)은 홍타이지가 보낸 서신의 "大金國", "天命 元年" 등의 표현을 거론하며 홍타이지의 불순한 태도를 지적하고 원숭환의 사신 파견 자체를 문제 삼았다.[32] '오랑캐'와 굴욕적인 맹약을 맺어 중원을 내주고 말았던 송(宋)의 오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도 언급하였다.[33]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입장은 이후 후금-청과의 강화교섭이 거론될 때마다 대두되었고 명 조정의 중론에 해당했다.

천명 11년(천계 6년, 1626) 원숭환의 사신 파견은 이후 전개될 천총 원년(1627) 교섭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단, 원숭환은 조문과 경하를 했을 뿐, 양국 간의 교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양국 간의 사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한 사람은 홍타이지였다. 홍타이지는 답신을 받지 못했고 천총 원년(1627) 정월 8일에 다시 원숭환에게 서신을 발송했다.[34] 이 서신에서 홍타이지는 강화를 제안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

---

30) 『明熹宗實錄』 권79, 천계 6년 십이월 22일, "崇煥又奏 '奴遣方金納, 溫台什二夷, 奉書至臣, 恭敬和順, 三步一叩, 如遼東受賞時. **書封稱大人而猶書大金字面, 一踵老酋故智, 臣卽封還之.**'" 이 기사에서 원숭환은 "大金"이라는 표현만 문제시하였고, "황제"라는 표현을 수정하라는 요구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사료는 찾지 못했다. 그러나 원숭환은 "皇帝"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천총 원년(천계 7년, 1627) 정월 26일 원숭환은 홍타이지의 서신에서 "皇帝"를 "汗"으로 수정하였다고 천계제에게 보고한 바 있었다. 그리고 천총 3년(1629) 홍타이지는 화북을 침공하면서 城堡에 보낸 글에서 자신은 강화를 원했기에 "皇帝"라는 표현을 거두고 "汗"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淸太宗實錄』 권5, 천총 3년 십일월 15일.

31) 『明熹宗實錄』 권79, 천계 6년 십이월 22일.

32) 王在晋, 『三朝遼事實錄』 下 권16, p.1548.

33) 王在晋, 『三朝遼事實錄』 下 권16, p.1551-1552. "王之臣又條議數款, '一, 據廣寧以窺河東, 一, 定軍營以固根本, …(중략)…, **一, 絶和議以杜釁端, 此皆目前急着, 若舍此而言滅賊, 謂之望洋, 舍此而言復遼, 謂之畫餅. 仍諭諸臣, 毋再執和議, 蹈宋人自愚自誤之弊也.**'"

34) 천총 원년(1627) 정월 8일 자의 서신은 『天聰實錄稿』, 『淸太宗實錄』, 『舊滿洲檔』, 『滿文老檔』,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 李光濤의 논문에 인용된 『천총실록고』 정월 8일 자 서신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李光濤, 『明淸檔案論文集』,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86, p.415.

을 제시하였다.

원숭환의 보고에 따르면 홍타이지는 기존에 자신이 사용했던 “皇帝”라는 표현을 “汗”으로 수정하여 서신을 작성했다. 그러나 “위호(僞號)”는 그대로였기에 서신을 돌려보냈고 “위호”, 즉 천총이라는 연호를 삭제하고 명의 정삭(正朔)으로 바꾸어 서신을 보내게 하였다. 천계제는 “참호(僭號)”의 사용을 금지하게 하고 명의 정삭을 받들게 하는 데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후금이 차지한 명의 영토와 포로로 데려간 명의 백성도 반환하게 해야 한다고 유지(諭旨)를 내렸다.[35]

그런데 천총 원년(1627) 정월 8일에 후금 측에서 보낸 서신이 “위호”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다시 원숭환에게 발송되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약 9개월이 지난 천총 원년(1627) 시월 2일, 명 황제를 수신자로 한 국서에서는 후금의 연호 천총을 사용하고 있음을 도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36] 정월 8일 홍타이지의 서신에 대한 답신이자 이라마가 같은 해 삼월 5일에 보낸 서신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목된다.

> 저는 영원에 도착하여 한과 각 王子의 좋은 마음을 각 上司 및 관원, 군인 등에게 설명하였고, 都老爺[37](원숭환을 지칭)께서 심히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서 내에 字面이 불편하여 都老爺께서 이를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이후 수정하였음에도 아직 한두 글자에 타당하지 않은 바가 있었습니다. 세 번에 걸쳐 수정한 (문서의) 양식은 비록 전부 타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잘못된 바가 많지 않게 되어 원(숭환) 어르신께서 문서를 열어보게 되었습니다**.[38]

---

35)『明熹宗實錄』권80, 천계 7년 정월 26일.

36) 李光濤, 1959, 「天聰元年十月初二日金國汗致大明國皇帝書」(천총 원년 시월 2일), p.71, 圖版 31.

37) 都老爺는 都察院의 장관인 都御史의 속칭으로서, 지방으로 파견된 총독과 순무 및 요동경략은 도찰원의 당상관인 都御史, 副都御史, 僉都御史과 같은 도찰원 직함을 겸하였기 때문에 都堂이라고도 칭했다. 유소맹 지음, 이훈・이선애・김선민 옮김,『여진부락에서 만주국가로』, 서울: 푸른역사, 2013, p.318. 원숭환은 천총 원년(천계 7년, 1627) 당시 右都御史 직함을 겸하고 있었다.

38)『天聰實錄稿』권1, 천총 원년 삼월 5일. “我到寧遠, 將汗及各王子好心俱在各上司及官軍人等說過, 都老爺甚是歡喜. 因文書內字面不便, 都老爺不可開拆. 後改換將來, 尙有一二字未妥. 第三遭換來格式, 雖不盡妥貼, 差已不多, 袁老爺隨將文書拆視”, 李光濤, 1986, p.401에서 재인용. 이라마의 서술에 의하면 실제로 세 차례에 걸친 수정이 이루

이라마의 서술에 따르면 홍타이지가 원숭환에게 보낸 서신은 세 차례의 수정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위호”의 문제가 원숭환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서신은 이라마가 홍타이지에게 보내는 것이었으므로, 서신의 수정에 대한 이라마의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홍타이지가 수정한 적이 없는데 이라마가 위와 같은 말을 지어내 홍타이지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언급했을 가능성은 작아 보이기 때문이다.[39]

요컨대 원숭환은 조문을 위해 사신을 파견하였고 홍타이지는 답신을 보내 양국 간의 일을 논의하자고 대응하였다. 원숭환이 답신을 보내지 않는 상황에서 홍타이지는 다시 서신을 보냈다. 그런데 서신의 서식 문제로 원숭환이 수리를 거부하자 홍타이지는 원숭환의 요구를 수용하여 여러 차례 자구를 수정하여 서신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천명 11년(1626) 서신을 비롯하여 이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할 천총 원년(1627)의 서신들은 홍타이지 시기 강화교섭에서 초반 국면에 해당한다. 초반 국면이니만큼 서신의 서식 문제가 논의되었고 이 해의 교섭에서 언급된 사항들은 이후에도 거론되었다. 더군다나 여러 서신의 실물을 도판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기에, 이 시기 왕래한 서신에 대해 특히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후금 측이 서식을 수정하면서 원숭환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서신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어진 이후에야 원숭환이 문서를 개봉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술하였듯 원숭환은 서신의 내용을 이미 확인한 뒤에 타당하지 않은 곳이 있어 홍타이지에게 이를 수정하게 하였다고 상주한 바 있었다.

39) 다만 홍타이지가 같은 해(1627) 시월 2일에 崇禎帝에게 보내는 국서에서는 왜 천총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천총 원년(1627) 시월 2일 자 국서는 천계제의 죽음에 대해 조의를 표하기 위해 숭정제에게 발송된 것이었다. 이때 원숭환은 寧錦之戰 당시 금주성에 원군을 보내지 않았다는 모함을 받자 병세가 악화하였다는 핑계로 관직에서 물러나 있었다. 천총 원년(1627) 시월 시점에서 국서의 수신자가 천계제에서 숭정제로, 조정에 이를 전달한 관원은 원숭환이 아닌 祖大壽로 바뀐 상태였기에 홍타이지는 ‘천총’ 연호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원숭환이 다시 遼東督師로 복귀한 이후인 천총 3년(1629) 정월에 홍타이지가 그에게 보낸 서신에서 1629년을 천총 3년이 아닌 “기사년(己巳年)”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도 이 추정을 뒷받침한다. 李光濤, 1959, 「己巳年正月金國汗致袁崇煥書」(천총 3년 정월 13일), p.85, 圖版 39. [그림 4] 참조.

2. 강화교섭을 활용한 양측의 기만 작전

천총 원년(1627) 정월 8일 서신의 주된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다. 홍타이지는 ①일곱 가지의 이유를 들며 공정한 하늘이 후금의 편임을 강조하였다. ②강화 성사를 위한 예물로 금 10만 냥, 은 100만 냥, 단(緞) 100만 필, 청람포(靑藍布) 1000만 필을 요구하였다. 매년 왕래하는 예물로 후금에서 동주(東珠) 10개, 초피(貂皮) 천 장, 인삼 천 근을 보낼 것이니 명은 금 1만 냥, 은 10만 냥, 단 10만 필, 청람포 30만 필을 보낼 것을 제안하였다. ③이상의 내용을 명 황제에게 전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이 전쟁을 계속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하였다.

세 가지 사항 중 두 번째 사항(②)이 가장 특기할 만하다. 첫 번째 사항은 누르하치가 전쟁을 일으킨 명분을 재차 거론한 것이고 세 번째 사항(③)은 서신의 내용을 명 황제에게 알릴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발언이다. 두 번째 사항이 홍타이지가 강화를 맺는 조건으로 제시한 구체적인 사항이었다. 그렇다면 홍타이지가 제시한 예물은 명에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되는 양이었을까? 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천총 3년(숭정 2년, 1629) 명이 차하르 몽골과의 평화적인 관계를 위해 릭단에게 수여하기로 한 무상은(撫賞銀)의 액수가 참고된다.[40]

차하르 몽골의 수장이었던 릭단은 천총 3년(숭정 2년, 1629) 이월 선대총독(宣大總督) 왕상건(王象乾)과의 교섭에서 40만 냥의 무상은을 요구하였으나 명 측은 이를 거절하였다. 뒤이어 26만 7천 냥으로 액수를 줄여 제안하였음에도 수용되지 않았고 8만 1천 냥으로 양측 간에 타협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무상은의 액수가 정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릭단은 융시예부와 투메드의 보쇽투가 명으로부터 받던 무상은을 이제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

40) 명이 건국된 이래 몽골 세력은 여러 차례 분열의 과정을 거치면서 약화하였고 그중 일부는 매년 명 조정으로부터 撫賞銀을 받고 명의 변경을 수비하는 임무를 담당했다. 무상은 정책은 명 말기까지 북변의 軍政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고 몽골 세력은 명에서 撫賞銀이라는 명목으로 제공하는 공물과 대명 교역의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경쟁하였다. 李華彦, 「林丹汗索賞與崇禎朝遼東撫賞政策之重整」, 『아시아연구』 10, 2010, pp.1-28.

하여 이를 관철했다. 융시예부와 보쇽투를 비롯한 우익 몽골이 명으로부터 취하던 액수는 도합 40만 냥 정도였으므로 총 48만 냥 정도의 무상은을 요구한 것이었다. 명조는 결국 릭단이 요구한 만큼 무상은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41]

천총 3년(숭정 2년, 1629)의 시점에 차하르의 릭단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명 측이 매년 부담해야 했던 지출이 48만 냥 정도였다. 홍타이지가 명에게 매년 보내도록 요구한 예물은 금과 은의 양만을 따진다고 했을 때(금 1만 냥, 은 10만 냥), 릭단이 받기로 한 양보다는 적었다. 하지만 강화를 맺기 위해 최초로 보내야 하는 예물의 양, 금 10만 냥과 은 100만 냥은 은 48만 냥을 상회하였다.[42] 더구나 후금은 금, 은뿐만 아니라 단 100만 필, 청람포 1000만 필도 요구하였다.

단과 청람포의 경우, 정묘호란이 매듭지어져 가는 과정에서 강화의 예로 후금이 조선으로부터 받은 예물의 양을 참고한다면 그 수량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다. 천총 원년(인조 5년, 1627) 이월 9일, 후금 이 요구한 물목은 목면(木棉) 4만 필, 소 4천 마리, 면주(綿紬) 4천 필, 포(布) 4천 필이었다. 이 요구에 대해 인조는 현재 재물이 부족한 탓에 보낼 수 없다고 말하였고,[43] 교섭 끝에 같은 달 15일, 목면 15,000필, 면주 200필, 백저포(白苧布) 250필을 비롯한 예물을 전달했다.[44] 후금의 입장에서 조선이 제공한 예물보다 많은 양의 예물을 명에 요구하는 것이 당연했겠지만 단 100만 필, 청람포 1000만 필에 달하는 예물은 과다한 요구였다.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듯이 홍타이지는 정월 8일 자 서신에서 상대방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홍타이지는 대버일러(amba beile, 大貝勒) 아민(Amin, 阿敏)에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공격하게 하였다.[45] 조선으로의 출정을 명령한 날에 원숭환에게 강화를 제안하는 서신을 발송했던 것이었다.[46]

---

41) 최주봉, 2021, p.46.
42) 명 측의 기록에 근거하면 숭덕 7년(숭정 15년, 1642) 오월 금 1냥은 은 10냥에 해당했다. 談遷, 『國榷』(張宗祥 校點, 北京: 中華書局, 1988) 권98, p.5926.
43) 『仁祖實錄』 권15, 5년 이월 9일.
44) 『仁祖實錄』 권15, 5년 이월 15일.
45) 『淸太宗實錄』 권2, 천총 원년 정월 8일.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누르하치가 명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이래 명과 후금 간의 교역은 단절되었고, 전쟁은 후금의 경제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47] 그런데 심각한 기근만큼 후금에 시급했던 사안은 동강진(東江鎭)을 설치한 채 후방을 노리고 있는 모문룡의 존재였다.[48] 모문룡 세력이 요동반도의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조선의 서북 지역에 도사리고 있는 한, 홍타이지는 요서 지역에서 원숭환과 대치하고 후방으로부터는 모문룡의 공격을 받게 되는 '양면 전선'에 놓일 수 있었다.

홍타이지는 특히 후금의 한으로 즉위하기 이전부터 모문룡 세력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지니고 있었다. 천총 원년(천계 7년, 1627) 오월 모문룡은 후금은 결코 귀순의 대상이 아니라며 자신이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홍타이지는 일찍이 누르하치에게 동강진을 먼저 제압해야 한다는 계책을 제안하였다. 그는 후금의 동정을 파악하고 있는 모문룡 세력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였다. 천총 원년(천계 7년, 1627) 정월에는 명이 강화를 제안한 틈을 타 명에 입고 먹을 물자를 요구하는 한편, 조선 쪽으로 병력을 움직여 동강진 세력을 제거하고자 하였다.[49]

이 정탐 내용이 홍타이지의 공격을 받은 모문룡으로부터 보고된 것이기에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으나, 조선에서도 홍타이지가 교

---

46) 홍타이지가 정묘호란을 일으킨 원인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정묘호란의 목표는 '조선 원정'이 아니라 모문룡의 제거였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천총 원년(1627) 후금이 처한 열악한 경제 상황도 정묘호란 발발의 주요 동인으로 지적되었다. 김종원, 「丁卯胡亂時의 후금의 출병동기」, 『동양사학연구』 12·13, 1978; 전해종, 『한중관계사 연구』, 서울: 일조각, 1970, pp.114-127; 김종원, 『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 서울: 혜안, 1999, pp.59-85;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서울: 푸른역사, 2009, pp.46-57.

47) 홍타이지 시기 후금의 취약한 경제 구조와 식량 부족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김종원, 1978, pp.70-72; 노기식, 「滿洲의 興起와 동아시아 질서의 변동」, 『중국사연구』 16, 2001, pp.23-25; 谷井陽子, 「八旗制度再考(二): 經濟的背景」, 『天理大學學報』 57-2, 2006; 劉小萌, 2013, pp.384-386.

48) 구범진, 「조선의 대(對)후금·청 외교와 병자호란의 발발 원인」, 백영서·정상기 엮음, 『내일을 읽는 한·중관계사』, 서울: RHK, 2019, p.163.

49) 毛承斗 輯, 『東江疏揭塘報節抄』(賈乃謙 點校, 『東江疏揭塘報節抄 外二種』,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86) 권6, p.97, 「天啟七年五月十六日具啓」 "**父王不聽我計, 臨終方悔. 今天朝講和, 要全還遼土. 父王苦掙的, 不能恢拓, 豈有返還之禮? 只人民缺食, 哄他些金帛米布, 穿煖吃飽, 先統兵剿除東江.** …(중략)…我氣不過就是東江. 只爲山險谷深, 前埋後伏, 且他奸細甚巧, 我的動靜言語霎時便知. 可恨! 可恨! 定要拿他, 絕了東江, 一直西去, 內應自然齊起."

섭을 통해 시간을 확보하고 모문룡 세력을 제거하고자 했음을 파악하고 있었다. 천총 원년(인조 5년, 1627) 명에 성절사(聖節使)로 파견되었던 김상헌(金尙憲)은 북경에서 귀환하다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치계(馳啓)하였다. 홍타이지가 새롭게 한으로 즉위한 뒤 누르하치의 죽음을 이유로 화호(和好)를 요청하면서 그 기회를 틈타 조선을 침범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형세는 조선뿐만 아니라 동강진의 모문룡 세력까지 위협할 정도였다고 보고하였다.[50] 실제로 후금군은 모문룡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압록강을 건넜다. 주지하듯이 철산(鐵山)에 있던 모문룡은 후금군의 진격 소식을 듣고 가도(椵島, 후금 사료에서는 皮島)로 들어갔다.

천총 원년(1627) 정월 시점에 홍타이지는 기만 작전으로 강화교섭을 활용했다고 생각된다. 홍타이지는 명에 강화교섭을 제안하여 시간을 확보하는 일종의 '완병지계(緩兵之計)'를 활용하는 한편, 조선 방면으로 군사를 움직여 모문룡 세력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교섭 제안의 목적이 시간을 확보하는 데에 있는 한, 홍타이지가 과도한 요구를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51] 후금은 이 작전을 통해 모문룡 세력을 소탕하진 못했지만, 조선과 정묘화약을 맺어 목전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일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수적인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52]

---

50) 『仁祖實錄』 권16, 5년 오월 6일. 천명 11년(인조 4년, 1626) 시월 24일 평안 감사 윤훤(尹暄)은 명 측 장수로부터 확보한 후금 내부의 정황에 대해 馳啓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홍타이지는 먼저 강동(江東)을 침범하여 우환의 근본을 제거하고 그다음 산해관과 영원 등의 성을 침범하도록 분부한 바 있었다. 『仁祖實錄』 권14, 4년 시월 24.

51) 천총 원년의 강화교섭이 기만 작전에 해당한다면, 홍타이지가 원숭환과의 교섭 현장에서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현실적인 강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제시될 수 있다. 과도한 요구 조건으로 교섭이 즉각 중단된다면 모문룡을 제거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타이지 즉위 이후 여러 버일러와 한인 관원들은 명과의 강화교섭에 대해 무심한 태도를 보이거나 격렬한 반대를 표한 바 있었다. 심지어 한 漢人이 명과의 강화를 주장하자 다른 한인 관원들이 홍타이지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를 토막 내 죽여버린 일도 있었다. 더군다나 교섭의 상대방인 원숭환은 누르하치를 패배시킨 장본인이었고 교섭을 위해 서신을 발송했을 때는 누르하치가 사망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숭환과의 교섭을 진행하였던 것이기에 홍타이지는 강화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반대의 입장을 가진 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만큼의 요구 조건을 제시하였다고도 생각된다. 『淸太宗實錄』, 天命 11년 십이월 30일; 『滿文老檔』 (滿文老檔硏究會譯社, 1955-1963 『滿文老檔』 Ⅰ-Ⅶ, 東京: 東洋文庫) Ⅳ, p.15, 『淸太宗實錄』 天聰 원년, 삼월 2일. 이하에서 『구만주당』과 『만문노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용의 편리함을 위해 『만문노당』의 쪽수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천총 원년(1627)의 강화교섭은 원숭환의 조문으로 그 단서가 마련되었다. 원숭환은 사신을 파견하여 후금 내부 상황을 정탐하고, 적의 공세가 느슨해진 틈을 타 요서 지역의 방어선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뒤이어 천총 원년(천계 7년, 1627) 삼월 4일, 원숭환은 후금이 조선을 공격한 상황을 황제에게 보고하면서 병가(兵家)의 핵심은 은밀하게 남을 속이는 데 있다고 역설하였다. 여러 대신은 오랑캐와 화친을 맺으려 한다고 자신을 의심하고 있으나 자신은 오히려 '이간책'을 활용하여 상대방을 속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얻어내겠다는 것이었다.[53] 사월에는 교섭을 통해 적의 공격을 지연시키면서 성지를 수축하여 요동 지역의 수복을 도모하겠다고 상주하였다.[54] 원숭환 역시 기만 작전으로 강화교섭을 활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홍타이지는 교섭을 기만 작전으로 활용하여 모문룡 세력을 약화하였고 조선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원숭환은 후금군이 동쪽에 군사 작전을 펼치고 있는 틈을 타 요서 지역으로 백성을 이주시켜 금주(錦州), 대릉하(大凌河) 일대의 성을 수축하고 둔전을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55] 원숭환과 홍타이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만 작전을 펼친 것이었고 이를 통해 모두 나름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3. 교섭의 중단과 寧錦之戰(1627)

천총 원년(1627) 삼월 5일 원숭환의 답신이 심양에 도착하였다.[56] 이라마가 홍타이지에게 보낸 서신도 함께 전달되었다. 원숭환의 서신은 천총

52) 정묘화약으로 후금-조선 간의 전쟁이 종결된 이후, 세폐와 개시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교섭 과정에 대해서는, 김종원, 1999, pp.113-155; 辻大和, 『朝鮮王朝の對中貿易政策と明清交替』, 東京: 汲古書院, 2018, pp.127-152; 鈴木開, 『明清交替と朝鮮外交』, 東京: 力水書房, 2021, pp.156-183을 참조.

53) 『明熹宗實錄』 권28, 천계 7년 삼월 4일. "**兵家肯綮, 活著在陰以詭,** 若節節道破, 人人使知, 則顯而陽矣. **諸臣紛紛疑款, 然借間用間, 應有微權**."

54) 王在晋, 『三朝遼事實錄』 권 17, p.1589. "錦州三城若成, 有進無退, 全遼卽在目中. 乘彼有事東江, 且以款之說緩之, 而刻日修築, 令彼掩耳不及."

55) 王在晋. 『三朝遼事實錄』 권 17, p.1588.

56) 『淸太宗實錄』 권2, 천총 원년 삼월 5일.

원년(1627) 정월 8일 자 서신에 대한 답장으로 홍타이지가 제안한 예물에 대한 답변과 자신의 요구 사항을 담고 있었다.[57] 원숭환은 후금이 차지하고 있는 요동의 영토와 성지, 포로로 잡아간 관원과 백성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홍타이지가 제안한 예물의 경우, 이전의 전적(典籍)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 정도 수량을 제공한 유례가 없기에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강화를 제안하면서 조선을 공격한 연유를 물으며 홍타이지의 기만적인 행동을 문제 삼았다.

이라마가 홍타이지에게 보낸 서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58] 홍타이지의 서신에 타당하지 않은 자구가 있어 몇 차례 수정을 거치고 나서야 원숭환이 열어볼 수 있게 되었다. 예물은 후금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임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너희가 여전히 전쟁을 원하는 것이다"라는 구절 때문에 황제에게 전주(轉奏)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홍타이지는 같은 해 사월 8일 원숭환, 이라마 각자에게 답신을 보냈고, 두 서신의 내용은 원숭환과 이라마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반박이 주를 이루었다.[59] 요동의 영토와 백성은 돌려줄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기만을 일삼은 건 오히려 교섭을 전면에 내세우며 성지를 수축한 원숭환이라고 주장했다. 제안한 만큼의 예물을 제공해준 유례가 없었다는 원숭환의 주장에는 송(宋)과 남송(南宋)이 요(遼)와 금(金)에게 제공한 세폐를 거론하며 반박했다.[60] 오이라트의 에센이 명으로부터 예물을 받았다는 사실

57) 원숭환이 홍타이지에게 서신의 도판은 李光濤, 1959, pp.63-65에 수록되어 있다. 李光濤, 1959, 「袁崇煥致金國汗書」(천총 원년 삼월 5일), 圖版 27. 그 내용은 『舊滿洲檔』(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69) (六), 『滿文老檔』(滿文老檔研究會 譯註, 東京: 東洋文庫, 1959) Ⅳ, 『明淸史料』, 『天聰實錄稿』, 『淸太宗實錄』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

58) 이라마가 홍타이지에게 보낸 서신은 도판이 『존진』에 수록되어있지 않다. 다만 李光濤는 자신의 저서 『天聰實錄稿』에 기재된 서신의 전문을 인용하였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天聰實錄稿』의 기록을 바탕으로 서신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天聰實錄稿』에 기재된 서신의 원문은 李光濤, 1986, p.401을 참조.

59) 두 서신의 경우 원고의 도판이 李光濤, 1959, pp.66-69에 수록되어 있다. 李光濤, 1959, 「天聰元年四月初八金國汗致袁崇煥書稿」(천총 원년 사월 8일), pp.66-67, 圖版 28; 「天聰元年四月初八金國汗致李喇嘛書稿」(천총 원년 사월 8일), pp.68-69, 圖版 29. 서신의 내용은 『舊滿洲檔』, 『滿文老檔』, 『天聰實錄稿』, 『淸太宗實錄』에도 그 기록이 보인다. 핵심 내용은 실물 문서의 도판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다만 이라마에게 보내는 서신의 원고의 경우 그 도판을 확인해보았을 때 일부 자구가 보이지 않고 서신의 마지막 부분 원고의 마지막 장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해당 부분은 『천총실록고』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였다.

도 『대명회전』에 적혀 있음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제안은 정당한 것이라고 역설했다.[61] 뒤이어 강화 성사를 위한 예물의 경우 이제 그 양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니 자신이야말로 교섭에 성의를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라마가 홍타이지에게 보낸 서신에서 원숭환과 홍타이지, 상천(上天), 명 황제를 대두한 방식을 지적했다. 이라마의 서신에서 명 황제를 "天"과 똑같이 대두하고, 홍타이지 본인을 명의 관원보다 두 글자 아래에 작성한 것은 대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자신이 이제 보내는 서신(사월 8일의 서신)에서는 명 황제를 "天"보다 한 글자 아래에 작성하되 "汗"은 명 황제보다 한 글자 아래에, 명의 관원을 "汗"보다 한 글자 아래에 작성하였다고 전했다.

홍타이지는 이라마가 자신을 원숭환보다 두 글자나 아래에 작성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런데 원숭환이 삼월 5일 홍타이지에게 보낸 서신의 도판을 확인해보면 원숭환은 오히려 홍타이지를 자신과 대등한 높이로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62] '규칙'을 어긴 것은 원숭환보다 홍타이지를 두 글자나 아래에 작성하여 서신을 보낸 이라마였다. ([표 1] 참조)

---

60) 景德 원년 십이월 7일(1005년 1월 19일) 北宋은 거란과 澶淵의 맹약을 맺고 매년 비단 20만 필과 은 10만 냥을 보낼 것을 약속하였다. 紹興 11년(1141) 십일월 22일 南宋은 해마다 조공으로 은 25만 냥과 비단 25만 필을 1142년을 기점으로 보낼 것을 약조하였다. 윤영인, 「10-13세기 동북아시아 多元的 國際秩序에서의 冊封과 盟約」, 『동양사학연구』 101, pp.133-137. 홍타이지는 『遼史』를 만주어로 번역할 것을 지시하고, 『金史』, 『元史』 역시 만주어 및 몽골어로 번역하게 하였다. 홍타이지는 이 전적들을 통해서 송이 요와 금에 제공한 세폐의 양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요사』, 『금사』, 『원사』의 만주어 번역에 대해서는 Mark C. Elliott, "Whose Empire Shall It Be?: Manchu Figurations of Historical Process in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Lynn Struve ed., *Time, Temporality, and Imperial Transitio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5, pp.31-41을 참조.

61) 오이라트의 에센이 명으로부터 받은 예물에 대해서는, 조원, 「명·오이라트 通貢·互市의 양상과 성격」, 『몽골학』 67, 2021, pp.172-178의 설명을 참조. 천총 6년(1632) 정월 후금에 투항한 한인 관원은 모든 사안을 『大明會典』을 기준으로 처리하자고 건의하였는데, 이로 미루어보아 당시 후금에서 『대명회전』도 입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天聰朝臣工奏議』 (潘喆 等編, 『淸入關前史料選輯』 第2輯,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9), 「高鴻中陳刑部事宜奏」, p.2.

62) 李光濤, 1959, 「袁崇煥致金國汗書」(천총 원년 삼월 5일) p.63, 圖版 27. 도판을 보면 원숭환과 홍타이지 모두 平擡되고 있다.

[표 1] 천총 원년(1627) 강화교섭에서의 擡頭 문제

원숭환의 대두 방식			
		皇帝	天
汗	官員		

이라마의 '규칙 위반'			
		皇帝	天
	官員		
汗			

새로운 대두 방식			
			天
		皇帝	
	汗		
官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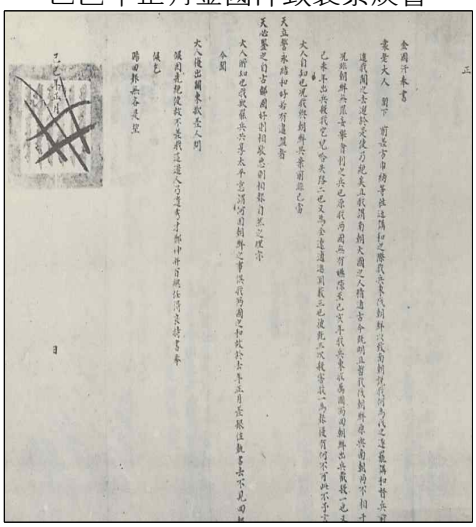
단, 대두 문제와 관련하여 '귀책 사유'가 이라마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홍타이지가 제시한 새로운 대두 방식을 원숭환이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숭환 본인부터 홍타이지를 자신과 대등한 상대로 상정하여 서신을 보낸 상황에 홍타이지를 자신보다 위에 올리는 대두 방식을 용납하기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총 원년(1627) 사월 8일 자에 홍타이지가 원숭환과 이라마에게 보내는 두 통의 서신을 비롯해 이후의 서신에서도 [표 1]의 대두 방식을 적용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이 두 통의 서신은 그 '원고'만이 『존진』에 도판으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서(正書)된 서신의 도판을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홍타이지가 제안한 대두 방식이 실제 원숭환에게 발송된 서신에서 적용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다. 게다가 천총 3년(1629)에 원숭환과 이루어진 재교섭에서 그에게 보낸 서신이 실물로 남아있다. 이 서신의 도판인 [그림 3]과 그 일부를 확대한 [그림 4]를 살펴보면 해당 서신에서는 홍타이지가 천총 원년(1627) 사월에 제시한 대두 방식이 지켜지지 않고, 홍타이지 본인과 원숭환을 대등한 위치에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천총 원년(1627) 홍타이지는 명 변경의 관원인 원숭환을 군주인 자신보다 아래에 두는 새로운 서식을 제안하였으나 천총 3년(1629)의 시점에

서는 이 주장을 유지하지 않고, 원숭환을 대등한 상대로서 상정한 서식을 따랐다. 그리고 이는 [그림 1]로부터 확인할 수 있듯이, 천명 11년(1626) 홍타이지가 원숭환에게 최초로 보낸 서신의 서식과 같았다.[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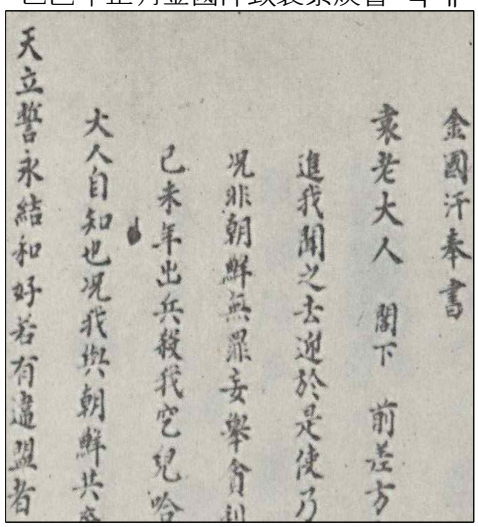
[그림 3]

己巳年正月金國汗致袁崇煥書



[그림 4]

己巳年正月金國汗致袁崇煥書 확대



※ 출처: 李光濤, 1959, 「己巳年正月金國汗致袁崇煥書」 (천총 3년 정월 8일), p.85, 圖版 39.

자료의 한계로 홍타이지가 제안한 대두 방식이 천총 원년(1627) 사월 8일 자 서신에 적용되었을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그는 어찌 되었건 자신의 주장을 담은 서신을 원숭환과 이라마에게 발송하였다. 그런데 두 통의 답신을 발송하기 직전에 명이 탑산(塔山), 대릉하, 금주 지역에 명의 병사들이 성을 수축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홍타이지는 두 서신 외에 별도로 한 통의 서신을 더 작성하여 총 세 통의 서신을 발송하였다.[64] 그 내

63) Wang(2018)은 『滿文老檔』을 활용하여 홍타이지가 하늘과 명 황제 모두를 두 글자 올려 작성하는 방식과는 다른 새롭게 4단계로 구분되는 위계질서를 만들고 자신을 하늘이나 명 황제보다는 아래이지만 명 관원들보다는 상위에 두었다고 언급했다. Yuanchong Wang, *Remaking the Chinese Empire, Manchu-Korean Relations 1616-1911*,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2018, pp.35-38.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명의 관원과 홍타이지가 같은 높이로 대두된 실물 문서의 도판이 존재하기 때문에 Wang(2018)은 『만문노당』의 기록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용은 원숭환이 또 강화를 논의하면서 성을 수축하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후금의 사신을 따로 파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65]

천총 원년(1627) 사월 8일 홍타이지가 원숭환과 이라마에게 총 세 통의 서신을 발신한 이후 원숭환과 이라마는 답신을 보내지 않았다. 천총 원년(1627)의 원숭환과의 교섭은 중단되었다. 교섭의 중단은 홍타이지에게 명을 공격할 명분을 가져다주었다. 이 전투가 바로 영원(寧遠)·금주(錦州) 전투(이하 영금지전으로 약칭)이다. 홍타이지는 영금지전에 착수한 뒤 금주성의 두 태감(太監)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자신은 상당한 양보를 하면서 강화의 의지를 피력했음에도 원숭환이 명 황제에게 전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섭을 중단했기에 공격했다고 주장했다.[66]

천총 원년(1627) 오월 6일 홍타이지는 버일러 두두(Dudu, 杜度)와 아바타이(Abatai, 阿巴泰)로 하여금 심양을 지키게 하고, 다른 버일러들을 이끌고 출정하였다.[67] 그는 금주성의 태감에게 서신을 보내 교섭 중단의 책임은 원숭환을 비롯한 변경의 관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신은 강화를 원하고 있다며 이 뜻을 명 황제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였다. 홍타이지는 강화를 맺을 것이 아니라면 투항하라는 말로 서신을 끝맺은 뒤 군대를 둘로 나누어 금주성의 서쪽과 북쪽을 동시 타격했다. 그러나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성으로부터 5리 떨어진 곳에 세운 군영으로 복귀했다.[68]

금주성 함락에 실패하자 16일에 홍타이지는 금주성의 태감과 교섭을 시도했다. 교섭의 중단 이후 영금지전에 착수하였으나 그 전장에서도 교섭의 제안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양측 인원이 물밑작업으로 세 차례 왕래한 이후 태감 기용(紀用)은 후금 측에 금주성으로 사신을 보내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홍타이지는 수이잔(Suijan, 綏占), 유흥치(劉興治)를 파견하였지만 금주성에서는 이들을 성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다. 금주성에서는 따로 인

---

64)『淸太宗實錄』, 권3, 천총 원년 사월 8일, “甲辰, 遣明寧遠巡撫袁崇煥使人杜明忠還答崇煥書.”

65)『明淸史料』丙編, 第一本,「金國汗致袁崇煥書稿」, p.4a.

66)『淸太宗實錄』, 권3, 천총 원년 오월 12일.

67)『淸太宗實錄』권3, 천총 원년 오월 6일.

68)『淸太宗實錄』권3, 천총 원년 오월 12일; 王在晋,『三朝遼事實錄』권17, pp.1602-1603; 計六奇,『明季北略』(北京: 中華書局, 2006) 권2, p.43.

원을 파견하여 후금군이 우선 퇴각해야만 이전 교섭에서 요구한 예물을 “상사(賞賜)할 것”이며 강화와 관련된 사안을 황제에게 상주하겠다고 전했다.[69] 이는 교섭을 구실삼아 후금군을 일단 퇴각시킨 뒤 지원군이 도래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조치였다.

홍타이지는 같은 날 영원성의 원숭환이 금주성의 기용에게 보내는 서신을 중간에서 탈취하였는데, 실제로 서신에는 6~7만 명의 수군이 산해관에 도착했고 계주(薊州)·선부(宣府)의 군사가 영원성 근방에 도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70] 금주성 주변의 포위망을 뚫기 위한 지원군이 산해관과 영원성 근방에 도착하고 있는 시점에 홍타이지는 서신을 보내 투항을 권유했다.[71] 금주성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자, 후금군은 영원성으로 진군하였다.[72] 그러나 영원성이야말로 누르하치에게 패배를 안겨준 요새였으며, 원숭환이 수비하던 곳이었다. 후금군은 영원성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뒤이어 다시 금주성을 공격했지만,[73] 상당수의 병사를 잃고 심양으로 귀환하였다.[74]

종합하면, 천총 원년(1627) 홍타이지와 원숭환의 강화교섭은 원숭환이 조문을 위해 사신 일행을 심양에 파견하여 단서가 마련되었다. 홍타이지는 서신을 보내 강화를 위한 조건을 제안하였다.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원숭환이 답신을 보내지 않자 교섭은 중단되었다. 홍타이지는 교섭의 중단을 명분으로 삼아 영금지전에 착수했다. 그런데 전장에서 홍타이지는 교섭을 제안했다. 홍타이지는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는 한편 교섭을 재차 제안하여 상대방을 ‘교섭의 테이블’로 끌어들이려 했다. 금주성의 태감은 홍타이지의 교섭 제안을 역으로 활용하여 후금군의 공세를 잠시나마 늦추고자 하였다. 양측 간의 교섭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홍타이지 역시 영원성을 함락하지 못한 채 심양으로 귀환했다. 천총 원년(1627) 요동순무 원숭환과의 강화교섭은 일단락되었다.

---

69)『淸太宗實錄』권3, 천총 원년 오월 16일.
70)『淸太宗實錄』권3, 천총 원년 오월 16일.
71)『淸太宗實錄』권3, 천총 원년 오월 18일.
72)『淸太宗實錄』권3, 천총 원년 오월 27일.
73)『淸太宗實錄』권3, 천총 원년 오월 28일.
74)『淸太宗實錄』권3, 천총 원년 유월 4일.

Ⅱ. 홍타이지의 화북침공과 변경의 강화교섭

1. 홍타이지의 조문 시도와 교섭 제안

천총 원년(천계 7년, 1627) 팔월 22일 천계제(天啟帝)가 사망하였다.[75] 정보를 입수한 홍타이지는 천계제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고자 하였다. 『明淸史料』丙編에는 천총 원년(1627) 시월 2일 "金國汗"이 "大明國 皇帝"에게 보낸 국서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도판이 『존진』에 수록되어 있다. 이 국서는 천계제가 사망하고 머지않은 시점에 발송된 것으로 천총 원년(1627) 홍타이지의 조문 시도와 교섭 제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국 한이 대명국 황제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이라마가 (저희 쪽으로) 도래한 이후 양국의 강화를 위해 여러 번 왕래하였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람을 보내 (강화를) 논하고자 하였는데 이내 고향으로 돌아온 여진인과 한인이 다음과 같이 供述하였습니다. "方(팡기나)과 溫(운타시)이 영원에 도착했을 때, (영원의 사람들이) 이 둘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에서) 이 한두 명의 파견한 사람을 죽인다 한들 상대방(후금)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였기에 우리의) 사람을 파견하지 않고 서신을 아오한의 두렁과 라마에게 맡기어 보냅니다. 만약 전쟁을 길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고 태평이야말로 상서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을 보내오십시오. 서로 태평을 얻어 좋은 사람이 왕래하고 마음에 있는 일을 모두 명백히 말하여 강화가 성사되어야 비로소 조금도 괘념하는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병력을 물리지 않는다면 피차 모두 평안하고 온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비.[76]

---

75) 『明熹宗實錄』권87, 천계 7년 팔월 22일.

76) 李光濤, 1959, 「天聰元年十月初二日金國汗致大明國皇帝書」(천총 원년 시월 2일), p.71, 圖版 31; 『明淸史料』丙編, 第一本, 「金國汗致書大明皇帝書」, p.7a, "+金國汗奉書++大明國皇帝. 從李喇嘛到後, 爲兩國和事來往數次未妥. 今欲差人去講, 乃遇回鄉金, 漢人供說, '方, 溫到寧遠時, 有欲害之心. 然殺此一二差人, 豈能勝敵乎?' 故不差人, 而將其書寄付敖漢都令, 喇嘛去. 若謂兵戈非吉, 太平乃吉, 則差人來. 彼此皆得好人通往, 將心事盡講明, 而後和成, 方無絲毫掛念. 如不罷兵, 彼此皆無安穩矣. 不備."

이 국서에 따르면 팡기나와 운타시가 영원에 도래했을 때 영원의 분위기는 살벌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인물은 Ⅰ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천총 원년(1627) 원숭환과의 교섭에서 후금 측의 사신으로 기용되었던 인물이었다. 홍타이지는 귀향한 여진인과 한인을 통해 후금의 사신에 영원으로 파견되었을 때 정황을 파악하였다. 그는 후금 측의 인원을 파견하지 않고 라마를 비롯하여 차하르 몽골로부터 후금으로 귀부한 아오한의 소놈 두렁을 파견했다.[77] 그리고 이 국서의 도판을 보면 명 황제가 금국 한보다 한 글자 더 대두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78]

이 국서는 당안 자료로만 현전할 뿐, 『구만주당』, 『만문노당』, 『청태종실록』에는 기록이 없다. 그리하여 소놈 두렁과 라마가 실제로 명에 파견되었는지, 홍타이지가 숭정제(崇禎帝)에게 보낸 국서가 발송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숭정장편』 숭정 원년(1628) 오월 11일 조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주목된다.

> 대청(후금을 지칭)이 요동의 순무와 총병에게 서신을 보내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오한과 나이만이 우리에게 귀부한 이래, 우리는 라마를 파견하여 보내 강화를 논하게 하였고 아오한과 나이만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파견하여 강화를 권하였지만, 남조에서 강화하지 않았으니, 이는 (너희가) 전쟁을 원하는 것이다."[79]

이 기사는 오월 11일 요동순무와 총병이 후금으로부터 수신한 서신을 기록한 것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홍타이지는 이전에 라마를 비롯하여 아오한, 나이만의 사람을 명 측에 파견하여 교섭을 제안하게 한 바 있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당안 자료로만 현전하는 천총 원년(1627) 시월 2

---

77) 아오한과 나이만은 차하르 구성하는 '여덟 오톡' 중에 두 오톡으로서 소놈 두렁은 아오한의 타이지였다. 그는 천총 원년(1627) 후금에 귀부했고, 원래 하다의 영토였던 開原 일대를 받고 거주했다. 1628년 누르하치의 셋째 딸 망구지와 결혼하였으며 그해에 지농 칭호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 역주』 太宗 1, 서울: 소명출판사, 2017, p.605의 각주 11.

78) 李光濤, 1959, 「天聰元年十月初二日金國汗致大明國皇帝書」(천총 원년 시월 2일), p.71, 圖版 31.

79) 『崇禎長編』, 숭정 원년 오월 11일, "大淸貽書遼東撫鎭云, '自敖漢, 乃蠻歸來, 我差喇嘛去講, 敖漢, 乃蠻亦差人去勸講, 而南朝不講和, 是願刀兵也.'"

일 자 국서에서 조문과 교섭의 제안을 위해 파견된 자들 역시 라마와 아오한의 소놈 두렁이었다.[80] 『숭정장편』의 기록을 통해 라마와 몽골의 타이지가 교섭의 제안을 위해 파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81]

홍타이지가 라마와 몽골 타이지 일행을 파견하여 명 측에 교섭을 제안하게 하였지만, 명 측에서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滿文老檔』 천총 2년(1628) 정월 2일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 앞서 전투에서 잡은 銀住에게 서신을 가져가게 하여 영원으로 파견했다. 은주는 영원의 총병관 祖大壽의 시종이었다. …(중략)…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두 나라의 길을 열고자 옛 황제에게 종이를 태우고 새 황제가 즉위한 禮로 白喇嘛에게 관원을 따르게 하여 파견하고자 했었다.** 보내온 서신을 보니 **"葬禮에 조문한 자는 누구이고, 강화하자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말이 있기에 파견하는 것을 중지하고, …(중략)… 지금(정월 2일)이라도 예를 행하러 오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면 보내고자 한다.[82]

이 기사에 따르면 후금은 천총 2년(1628) 정월보다 이전 시점에 백라마(白喇嘛)와 후금의 관원을 파견하여 천계제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고 숭정제의 즉위를 축하하고자 하였다. 천총 원년(1627) 시월에 라마와 몽골 타

---

80) 라마를 비롯하여 아오한과 나이만의 사람을 명 측에 파견하여 강화를 제안한 사례는 천총 원년(1627) 시월 2일 자에 홍타이지가 보낸 국서 이외에 다른 사료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81) 1장의 각주 22에서 티베트 불교의 라마가 후금과 명 사이 교섭의 실무자로서 중요하게 기용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몽골 귀족과 수장들도 후금과 명과의 교섭에서 중개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Nicola Di Cosmo and Dalizhabu Bao, *Manchu-Mongol Relations on the Eve of the Qing Conquest: A Documentary History*, Leiden; Boston: Brill, 2003, pp.73-78.

82) 『滿文老檔』 Ⅳ, 1959, p.115. "neneme dain de jafaha yen ju de bithe jafabufi Ning Yuwan de takūrafi unggihe, Yen Ju, Ning Yuwan i dzung bing guwan Dzu Da Šeo i giyjan bihe, …(중략)…**be taifin be buyeme juwe gurun i jugūn neiki seme, fe han de hoošan deijime, ice han tehe doroi, Be lama de hafan adabufi takūrambihe,** jihe bithe be tuwaci, sinagan de waliyahangge we, acaki seme gisurerengge we sere gisun bisire jaka de, takūrarabe ilifi, …(중략)… te bicibe dorolome jici sain seci, unggiki,

takūrambihe의 -mbihe 용법은 -me bihe로 분철 가능하며 과거에 행하려고 했던 행동이 발화 시점에서 행해지지 않고 있음을 표시한다. 河內良弘, 『滿洲語文語文典』 京都: 京都大壑學術出版會, 1996, pp.104-105.

이지로 구성된 일행을 파견하였던 것과 달리, 이번엔 후금 측 인사였던 백라마와 관원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83] 그러나 명 측에서는 서신을 보내와 조문하러 온 사람은 누구이며, 그 와중에 강화하자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고 서신을 보내왔다. 이 서신을 받은 홍타이지는 백라마와 후금 측 관원을 파견하여 조문 계획을 일단 취소하였다. 천총 2년(1628) 정월 2일에는 "지금이라도 예를 행하러 오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면 보내고자 한다"며 조문을 시도하였다.

홍타이지는 조문 시도와 교섭 제안을 동시에 하는 바람에 명 측에 의해 조문을 거부당했다. 그런데 조문과 교섭 제안 두 임무를 부여받은 일행이 바로 천총 원년(1627) 시월 2일 자 국서를 휴대하고 영원으로 파견되었던 라마와 몽골 타이지 일행으로 보인다. 천계제 사망 이후 천총 2년(1628) 정월 2일까지 교섭 제안을 위해 명에 파견되었던 자들은 사료상 이들 외에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천총 원년(1627) 시월 2일 자 국서를 전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라마와 몽골 타이지 일행은 교섭의 제안과 더불어 천계제의 죽음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임무까지 부여받았던 것이었다.

종합하면, 천총 원년(1627) 시월 2일에 홍타이지가 명 황제에게 발송한 국서는 실물 자료로만 남겨진 채, 『만문노당』과 『청태종실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숭정장편』과 『만문노당』의 기록을 통해 이 국서에서 거론된 라마와 몽골 타이지 일행이 파견되어 조문을 시도하고 교섭을 제안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국서에는 명 황제를 금국 한보다 한 글자 더 대두하여 작성하였다. 그러나 명 측에서는 조문을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홍타이지는 후금 측 인원을 조문을 위해 파견하려던 계획을 취소하였다. 뒤이어 천총 2년(1628) 정월 2일에 조문단 파견을 재차 제안하였고, 명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

83) 白喇嘛(?~1637)는 『만문노당』에서 Baga Ba lama, Ba lama, Be lama로 기록되었다. 그는 티베트인 승려로서 호르친에 와있다가 1621년 호르친의 밍간 버일러가 후금에 귀부할 때, 師兄인 티베트의 大라마 우를룩 다르한 낭수 라마(斡祿打兒漢囊素, Örlüg Darqan Nangsu lama, ?-1621)와 함께 후금의 遼陽에 왔다. 1621년 낭수 라마가 사망하자 누르하치가 遼陽城 남쪽에 기념사찰을 세우고 백라마를 住持로 주재시킴으로써, 그는 후금-청 최초의 라마 주재 사찰의 주지가 되었다. 티베트 불교를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후금-청의 외교 면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다. 李勤璞, 「白喇嘛與清朝藏傳佛教的建立」, 『臺灣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30, 1998.

그런데 머지않아 천총 원년(천계 7년, 1627) 요동순무의 직에서 사직하였던 원숭환이 요동독사(遼東督師)로 복귀하였다. 원숭환은 영금지전 당시 금주에 원병을 파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충현(魏忠賢이 중심이 된 엄당(奄黨)의 모함을 받자 같은 해 칠월 사직하였다. 숭정제가 즉위하고 위충현이 실각하자 천총 2년(숭정 원년, 1628) 칠월 다시 요동 방어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84] 천총 3년(1629) 정월, 홍타이지는 다시 강화교섭을 제안하였고 그 대상은 요동독사(遼東督師)로 복귀한 원숭환이었다.

2. 천총 3년(1629) 원숭환과의 교섭 재개와 1629-30년 화북침공

천총 3년(1629) 정월 13일 홍타이지가 원숭환에게 서신을 발송하였다. 이 서신에서 홍타이지는 정묘호란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조선이 먼저 잘못을 저질렀기에 군사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지금이라도 명과 강화를 맺고자 하며 조선 때문에 후금과 명 간의 교섭을 그르칠 수 있겠냐고 하였다. 후술하겠지만 이 서신은 후금 측에서 인장을 찍었다는 이유로 반송되었다.[85] 이 서신을 시작으로 홍타이지는 천총 3년(1629) 정월 13일부터 칠월 18일까지 원숭환에게 여섯 통의 서신을 발송하였고, 원숭환으로부터 네 통의 답신을 받았다. 그런데 열 통의 서신 전부가『청태종실록』에는 기재되지 않았고『만문노당』에만 기록되었다. 천총 3년(1629)에 왕래한 서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84) 張廷玉 等,『明史』(北京: 中華書局, 1974) 권259,「列傳」 147,「袁崇煥・毛文龍」, pp.6711-6713.
85)『滿文老檔』Ⅳ, 1959, pp.213-215.

[표 2] 천총 3년(1629) 강화교섭 서신 왕래 일람

구분	날짜	발신	수신	내용
#①	정월 13일	汗	袁	정묘호란에 대해 해명이 이루어짐. 요동으로 복귀한 원숭환에게 안부를 물음. 서신에 인장을 찍었다는 이유로 반송.
②	윤사월 2일	袁	汗	강화는 한마디 말로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 책봉을 받지 않았다면 인장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중국의 예법이 그렇다고 설명.
③	윤사월 25일	汗	袁	大凌河를 명의 邊으로, 三岔河를 후금의 邊으로. 중간은 비워둘 것을 제안. 인장 발급을 요구.
④	유월 20일	汗	袁	명으로 파견된 사신이 소식이 없기에 서신 다시 발송. 칠월 5일까지도 소식이 오지 않을 시, 원숭환이 사신들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며 경고.
⑤	유월 27일	汗	袁	투항한 한인과 포획한 명 측의 간세(奸細) 모두가 원숭환이 거짓으로 강화를 논하고 있음을 알려옴. 의심이 들었으나 재차 서신을 발송.
⑥	칠월 3일	袁	汗	후금이 차지한 요동의 영토 반환을 재차 요구. 홍타이지가 자김 차지한 영토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기에(서신③) 황제에게 轉奏하지 못했다고 언급. 인장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
⑦	칠월 3일	袁	汗	답신이 늦은 까닭을 해명.
#⑧	칠월 10일	汗	袁	요동 반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명. 자신의 서신을 황제에게 계속 전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하되 다시 강화를 제안.
⑨	칠월 10일	汗	袁	후금의 사신을 무사히 보내준 것에 감사를 표명.
⑩	칠월 16일	袁	汗	홍타이지의 좋은 마음을 알았으며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며 동조. 그러나 전쟁이 십 년이나 지속된 만큼, 강화는 몇 마디 말로 정할 수 없으며 홍타이지의 마음에 달렸다고 주장.

【범례】

표시는 해당 서신의 한문본이 존재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서신 ①은 『존진』에 실물의 도판이 수록되어 있다. 아래의 【근거】에서 출처를 밝혔다.

【근거】

①『滿文老檔』Ⅳ, 1959, pp.213-215.
②『滿文老檔』Ⅳ, 1959, pp.217-218.
③『滿文老檔』Ⅳ, 1959, pp.218-220.
④『滿文老檔』Ⅳ, 1959, pp.220-221.
⑤『滿文老檔』Ⅳ, 1959, pp.221-222.
⑥『滿文老檔』Ⅳ, 1959, pp.222-223.
⑦『滿文老檔』Ⅳ, 1959, pp.223-224.
⑧『滿文老檔』Ⅳ, 1959, pp.225-228.
⑨『滿文老檔』Ⅳ, 1959, p.228.
⑩『滿文老檔』Ⅳ, 1959, pp.228-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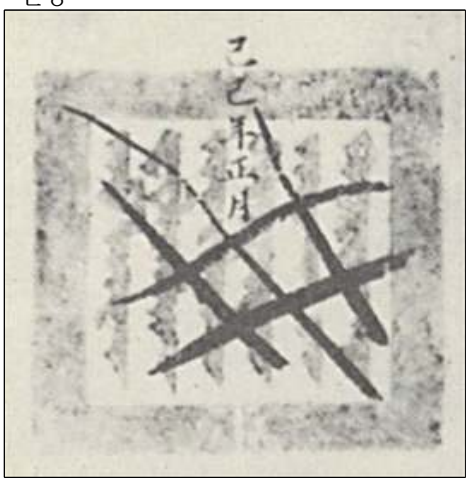
#①『明淸史料』丙編, 第一本, 「金國汗致袁崇煥書」, p.9a-b; 李光濤, 1959, 「己巳年正月金國汗致袁崇煥書」, p.85, 圖版 39.

#⑧『明淸史料』丙編, 第一本, 「金國汗致袁崇煥書稿殘葉」, p.6a-b

[표 2]에서 확인된 천총 3년(1629) 원숭환과의 교섭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동의 영토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홍타이지가 후금의 국경으로 삼자고 언급한 삼분하(三岔河)는 바로 요하(遼河)의 하류였다. 홍타이지는 요하를 기준으로 동쪽을 후금의 강역으로 삼겠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홍타이지의 입장에서 원숭환이 기만적인 태도로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몇 차례 발생하였다. 홍타이지는 그래도 서신을 발송하여 강화를 제안하였다. 세 번째, 인장에 관한 문제가 불거졌다. 후금이 인장을 찍어 서신을 보내자 원숭환은 책봉을 받지 않았다면 인장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타이지는 인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였다. 홍타이지는 강화교섭을 위해 명으로부터 책봉도 받을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서신 ①은 그 실물 문서의 도판이 『존진』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확인해보면 당시의 교섭 양상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그림 5]를 보면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홍타이지가 찍은 인장을 붓으로 여러 차례 그어 지워버린 흔적이 있다. Ⅰ장에서 언급된 [그림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인장에 대한 조치는 홍타이지가 천명 11년(1626) 십일월 14일에 원숭환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이루어진 바 있었다.[86] 천명 11년(1626)의 서신과 마찬가지로 원숭환은 천총 3년(1629) 정월 13일의 서신도 인장을 붓으로 지운 채 후금으로 반송했다.

[그림 5]己巳年正月金國汗致袁崇煥書 인장



출처: 李光濤, 1959, 「己巳年正月金國汗致袁崇煥書」, p.85, 圖版 39를 편집

[그림 6] 金國汗致大明衆臣宰書

출처: 李光濤, 1959, 「金國汗致大明衆臣宰書」, p.87, 圖版 41.

다음으로 서신의 연도를 후금의 연호가 아닌 60갑자, 기사년으로 표기하였다. 연호는 천총 원년(1627) 원숭환과의 교섭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으로, 천총 3년(1629)에는 후금의 연호 대신 60갑자로 연도를 표기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존진』에 수록된 도판인 [그림 6]을 확인해보면 인장 문제에 관하여 또 다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그림 6]은 원숭환과의 재교섭에서 강화가 성사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천총 3년(1629) 칠월 18일 홍타이지가 명의 대신들에게 발송한 서신의 도판이다. 이 서신에서 홍타이지는 본인은 강화를 성사시키고자 하고 있음에도 명의 신하들이 전쟁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쟁이 지속되어 사상자가 더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바로 강화에 반대한 여러 대신에게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홍타이지는 이 서신에 인장을 찍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87]

86) 彭孫貽, 『山中聞見錄』 (李澍田編, 『東北史料薈萃』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0), p.53. "時西款已定. 崇煥乃令喇嘛僧齎金帛請款於建州. 四王子亦遣人遺崇煥土物, 書有印稱大金國號. 崇煥諭其去印與國號, 汗殊無所難. 復書來, 崇煥以聞. 帝未之許也."

87) 李光濤, 1959, 「金國汗致大明衆臣宰書」(천총 3년 칠월 18일) p.87, 圖版 41.

정리하면, 홍타이지는 천총 원년(천계 7년, 1627) 교섭 당시 명의 정삭을 받들라는 원숭환의 요구를 받은 바 있었다. 천총 3년(1627) 원숭환과의 재교섭에서 그는 명의 정삭을 받들어 숭정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천총이라는 연호를 거두고 60갑자로 연도를 표기하는 절충안을 선택하였다. 인장의 문제가 불거져 해당 서신이 반송당하자, 칠월의 명 대신에게 보내는 서신에서는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홍타이지는 천총 3년(1629) 당시 원숭환의 요구를 수용해가며 교섭에 임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앞에서 언급하였듯, 교섭에 대한 원숭환의 진의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교섭의 끈을 놓지 않은 채 강화를 제안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요동의 영토를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한, 홍타이지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교섭은 중단될 여지가 다분했다. 강화를 위한 서신이 한창 왕래 중이던 천총 3년(1629) 이월, 부장(副將) 고홍중(高鴻中)이 홍타이지에게 강화에 대한 견해를 상주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명으로부터 강화의 제의가 왔을 시 그들이 진심으로 임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이를 '허락'해주어도 무방했다. 강화가 성사된다면 조선과 마찬가지로 명에 왕위(王位)를 봉해달라고 요청하고 명의 정삭(正朔)을 따라도 된다고 주장하였다. 강화가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북경으로 바로 진격하여 포위 작전을 펼쳐야 하고, 명이 버티지 못하고 강화의 사신을 파견한다면 그때 강화를 '허락'해주면 된다는 것이었다. 서로 황제를 칭하는 것만 합의된다면 황하를 경계로 삼아 명조를 황하 이남에 살게 해도 되고, 산해관을 경계로 해도 무방하다고 제언하였다.[88] 홍타이지는 고홍중에게 칙유를 내려 그 계책에 대해 "심히 합당한 의론"이라며 찬성하였다.[89]

---

88) 李光濤 編著,『明淸檔案存眞選輯:三集』, 臺北: 中央硏究院歷史語言硏究所, 1975,「天聰失年二月高鴻中勸請進兵奏本」, p.44, 圖版 3;『明淸史料』 丙編, 第一本,「高鴻中奏本」p.45a. 본 당안에는 이름과 날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연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주본에 언급되고 있는 사안들은 모두 '1629-30년 화북침공'이 이루어지기 전 원숭환과의 교섭에서 거론된 내용이었다.『존진』의 편집자 리광타오(李光濤) 역시 당안의 연도를 천총 3년(1629)으로 비정하였다. 문서의 해제는 李光濤, 1975, p.2를 참조.

89)『明淸史料』 丙編, 第一本,「勅諭副將高鴻中稿」 p.15a, "勅諭副將高鴻中知道. **覽卿所奏, 勸朕進兵勿遲, 甚爲確論.** 但南朝規矩, 兵民爲二, 民有常業, 兵有常糧. 我國兵民爲一, 出則備戰, 入則務農, 兼以收拾兵器. 故稍遲時日, 俟地鋤完卽行."

또 홍타이지는 유월에, “나는 누차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저들이 응하지 않았으니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라며 공격을 다짐하였다.[90] 이전과 마찬가지로 교섭 중단의 책임을 물으며 군사행동의 명분을 만들고 있었다.[91]

홍타이지는 천총 3년(1629) 시월 2일 하라친의 타이지 부르가두(Burgadu, 布爾噶都)[92]를 길잡이로 삼아 출정했다. 이것이 바로 기사지역(己巳之役)이라고도 지칭되는 ‘1629-1630년 화북침공’이었다. 홍타이지는 영원성과 산해관 쪽이 아닌 하라친의 목지(牧地)를 지나 영평(永平)과 준화(遵化) 방면의 관문을 타격하는 작전을 취했다.[93] 이 작전은 명군의 허를 찔러 북경까지 진출하게 되었고, 후금의 군대는 북경 인근 지역을 약탈한 뒤 이듬해(1630) 삼월이 되어서 심양으로 귀환했다. 침공 과정에서 함락한 영평, 준화, 난주(灤州), 천안(遷安) 4개의 성은 아민과 쇼토(Šoto 碩託)로 하여금 점령하여 지키게 하였다.[94] 화북침공에 종군한 병사는 재화와 포로를 최대한 가져온 채로 귀환했기에 병사들의 사기는 올라갔다. 성을 점령하는 군대를 교대할 때는 군사들이 앞다투어 명의 내지로 향하겠다고 홍타이지에게 무릎 꿇고 호소하였다.[95] 포획한 인구와 마필은 그 수가 3천에 달할 정도였다.[96]

흥미롭게도 홍타이지는 영금지전(寧錦之戰) 때와 유사하게 화북을 침공하

---

90)『淸太宗實錄』권5, 천총 3년 유월 12일. “上諭諸貝勒大臣曰, ‘戰爭者, 生民之危事. 太平者, 國家之禎祥. …(중략)… **我屢欲和而彼不從, 我豈可坐待. 定當整旅西征.**’”

91) 홍타이지는 같은 해 시월 30일, 遵化城을 공격하기 전에 당시 順天巡撫였던 王元雅에게도 서신을 보내 명 황제와 대신들의 태도 때문에 후금과 명 간의 교섭이 중단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신은 강화를 성사시키고자 하였으나 명 측에서 자신을 멸시하고 서신에 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였다.『淸太宗實錄』권5, 천총 3년 시월 30일.

92) 부르가두는 하라친의 타이지(台吉)로서 ‘1629-30 화북침공’에서의 전공을 인정받아 다르한이라는 칭호를 하사받고 두르가두 다이 다르한(Durgadu Dai Darhan)으로 불렸다. 烏雲畢力格, 『喀喇沁萬戶研究』,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2005, p.95, pp.136-137, pp.166-167.

93) 노기식, 2000, pp.192-194.

94) 박민수, 2017, p.22.

95)『滿文老檔』Ⅳ, 1959, 천총 4년 삼월 10일, pp.338-339. 단,『淸太宗實錄』의 삼월 10일 자 기사에는 군사들이 앞다투어 명의 내지로 향하겠다고 홍타이지에게 호소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96)『淸太宗實錄』권6, 천총 4년 정월 17일.

는 전장에서 명 황제와 변경의 관원에게 교섭을 제안하였다. 천총 3년(1629) 십일월 22일, 홍타이지는 후금에 투항한 왕 태감(太監)을 명으로 귀환시키면서 교섭을 제안하는 국서를 명 황제에게 전하게 하였다.[97] 십이월에도 세 차례에 걸쳐 명 황제에게 교섭을 제안하는 국서를 발송하였다.[98] 천총 4년(1630) 이월 9일에는 다시 명 황제에게 한 통의 국서를 보내고 금주의 관원, 명의 여러 대신에게도 각각 한 통씩 서신을 보냈다. 명 황제에게 보낸 국서에서는 두 나라가 천지에 굳게 맹세하여 강화를 맺게 된다면 평화롭게 살아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금주의 관원과 대신들에게는 자신은 계속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명 황제가 이를 무시하였으므로 전투에서 사상자가 발생한들 책임은 모두 명 측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99]

교섭의 제안은 천총 4년(1630) 삼월 2일 홍타이지가 먼저 심양으로 귀환한 이후에도 이루어졌다.[100] 삼월 10일, 홍타이지는 자신이 화북을 침공할 동안 심양을 지키고 있던 아민과 쇼토를 영평 지역으로 파견하여 함락한 4개의 성을 점령하게 하였다.[101] 영평 등 성지에서 주둔하던 후금군은 29일 아민의 지휘 아래 근처 지역을 약탈했고, 그 과정에서 아민도 자신의 명의로 명 황제에게 서신을 보냈다.[102] 흥미롭게도 아민의 서신은 『청태종실록』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서신에서 아민은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은 강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라고 언급하면서 강화를 맺게 되면 천지에 굳게 맹세할 것이고, 그날부터 명에 대한 공격을 그치겠다고 하였다. 금은 남송과 강화를 맺었음에도 공격을 그치지 않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였지만, 자신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민은 전투에서 사로잡은 몽골인을 풍윤(豐潤) 지역으로 파견하여 이 서신을 전하고자 하였고 풍윤의 총병관은 서신을 명 황제에게

97)『淸太宗實錄』권6, 천총 3년 십일월 22일.
98)『淸太宗實錄』권6, 천총 3년 십이월 18일; 십이월 22일; 십이월 25일. 단 십일월과 십이월에 명 황제에게 발송한 국서의 경우 그 내용은 사료에서 찾지 못하였고, 발송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하였다.
99)『淸太宗實錄』권6, 천총 4년 이월 9일.
100)『淸太宗實錄』권6, 천총 4년 삼월 2일.
101)『淸太宗實錄』권6, 천총 4년 삼월 10일.
102)『滿文老檔』Ⅳ, 1959, 천총 4년 삼월 29일, pp.346-347.

올리겠다는 답변을 해왔다. 이에 대해 아민은 명 황제가 사신을 파견한다면 이들을 영평으로 보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103] 사신은 도래하지 않았고 서신을 전달하기 위해 파견된 몽골인에 진술에 따르면, 이는 북경의 대신들이 아민의 서신을 보고도 황제에게 전달하지 않고 후금 측의 사신과 서신을 돌려보냈기 때문이었다.[104]

아민은 영평 등 4개의 성을 점령한 상태에서 교섭을 추진하였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머지않아 천총 4년(숭정 3년, 1630) 오월 12일 명의 총병 조대수가 반격하여 난주를 공격하였고,[105] 천안을 지키던 아민은 수백 명의 원군만을 보내고 영평으로 물러났다. 이후에도 아민은 직접 전투를 벌이지 않고 영평의 한인들을 살해한 뒤 후금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회군하였다.[106] '1629-30년 화북침공'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종합하면, 천총 3년(1629) 강화교섭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원숭환이 요동으로 복귀함에 따라 홍타이지는 다시 그에게 교섭을 제안했다. 양측 간에는 10통에 달하는 서신이 왕래하였고 홍타이지는 일부 양보를 하였으나 교섭의 진전은 보이지 않았다. 교섭이 중단되자 홍타이지는 화북을 침공했다. 홍타이지는 군대를 이끌고 하라친의 목지를 통과하여 산해관이 아닌 영평과 준화 방면으로 공격을 전개했다. 홍타이지는 공격을 진행하는 동시에 그 전장에서 교섭을 계속 제안했다. 홍타이지가 심양으로 귀환한 이후, 영평 등 4개의 성을 후금군이 점령한 시점에서도 아민의 명의로 강화교섭이 시도되었다.

이상에서는 '1629-30년 화북침공'의 착수를 전후로 하여 강화교섭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확인하였다. 그런데 천총 6년(1632) 시점의 강화교섭은 또 다른 화북침공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편, 이전의 교섭과 또 구분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제 천총 6년(1632) 산서(山西)의 선부(宣府)·대동(大同) 지역에서 이루어진 강화교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103)『滿文老檔』Ⅳ, 1959, 천총 4년 삼월 29일, pp.346-347.
104)『滿文老檔』Ⅳ, 1959, 천총 4년 사월 13일, pp.354-355.
105)『崇禎長編』, 숭정 3년 오월 12일.
106) 박민수, 2017, p.23;『淸太宗實錄』권6, 천총 4년 오월 13일.

3. 1632년 화북침공과 '宣府 맹약' : 알탄의 선례와 교역 문제

천총 6년(1632) 정월 초하루 홍타이지는 즉위 이래 처음으로 혼자 남면하여 신년하례를 받았다.[107] 이는 그가 후금의 한으로서 갖는 정치적 권위가 이전보다 한층 강화되었음을 의미하였다.[108] '1629-30년 화북침공'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물자와 인구를 노획하고, 천총 5년(1631) 대릉하(大凌河)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는 등 명과의 전쟁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룩한 것도 그의 권위를 강화하는 데 일조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109] 군사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천총 6년(1632)에도 후금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은 해소되지 못한 상태였다.

한인 관원 장국조(臧國祚)는 천총 6년(1632) 삼월에 홍타이지에게 인구와 비교해 경작 가능한 영토가 작은 후금의 현실을 언급했다. 추위와 배고픔에서 빈민들이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은 죽거나 도망가고 말 것이라고 상주하였다.[110] 다시금 군사를 출동시켜 명으로부터 재물을 약탈하고 팔기(八旗)가 이를 균분하는 것만이 대책이라는 주장도 제시되었다.[111]

그런데 천총 6년(1632) 홍타이지는 다시 화북침공을 단행하여 상당한 물자를 획득하게 되었다. 우선 천총 6년(1632) 차하르의 릭단이 대칸의 종주권을 강조하며 몽골 통일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몽골 세력이 그를 피해 후금으로 귀부했다.[112] 홍타이지는 몽골 세력과 연합하여 '反릭단

---

107) 『淸太宗實錄』 권11, 천총 6년 정월 1일. 천총 6년 정월 초하루 신년하례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Macabe Keliher, The Board of Rites and the Making of Qing China, Oak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9, pp.48-64의 설명이 자세하다.

108) 천총 6년(1632) 정월 초하루 시점에 홍타이지와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하던 세 명의 대버일러 중 실각하지 않은 자는 다이샨뿐이었다. 천총 4년(1630) 버일러 아민은 '1629-30년 화북침공'을 통해 획득한 永平 지역을 수비하지 않고 그대로 퇴각하였고 홍타이지는 이에 대한 죄를 물어 그를 숙청하였다. 이듬해(1631) 팔월 13일에는 또 다른 버일러 망굴타이가 실각하였다. 대릉하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정람기가 항상 뒤처진다는 비판을 듣고 홍타이지가 자리를 떠난 후에 칼을 뽑으려 하다가 더걸러이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망굴타이도 사실상 실각하였고, 이듬해 천총 6년 십이월에 사망하였다.

109) 대릉하 전투의 전황과 그 성과에 관해서는 李鴻彬, 「試論皇太極與大淩河之戰」, 『史學集刊』, 1997-1의 설명을 참조.

110) 『明淸史料』 丙編, 第一本, 「整紅旗固山備禦臧國祚奏本」, p.22b.

111) 『天聰朝臣工奏議』, 「胡貢明陳言圖報奏」, p.12.

112) 노기식, 2000, pp.175-186.

연맹'을 형성하고 사월 1일 원정에 나섰다.[113] 사월 13일, 후금군과 몽골군이 시라무렌과 요하의 합류 지점에 집결하였다.[114] 23일에는 차하르에서 도망쳐 온 병사로부터 릭단의 소재를 파악하였다. 후금 측 기록에 따르면 릭단은 홍타이지가 원정을 떠났다는 소식에 두려움을 느껴 사람들을 모두 이끌고 도주한 상태였다.[115]

사월 24일, 홍타이지는 말이 지치고 군량도 부족해진 탓에 추격을 포기하고 후흐호트(Huhu hoton, 歸化城)를 향해 남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 후흐호트로 진격 중이던 사월 28일, 선봉대가 잡은 포로가 릭단이 카라 망나이(Kara Mangnai, 喀喇莽奈)에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후금-몽골 연합군은 방향을 바꾸어 다시 릭단을 쫓아 북상하였다.[116] 오월 9일, 선봉대는 카라 망나이에 도착하였으나 릭단은 사라진 이후였다.[117]

홍타이지는 버일러 및 대신들과의 회의 끝에 북쪽으로 차하르를 추격하는 것을 다시 중단하고 후흐호트와 명의 변경에 위치한 몽골 바이싱[118]으로 진격로를 선회했다.[119] 연합군은 좌·우익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방향으로 공격을 전개했다.[120]

후금-몽골 연합군은 후흐호트를 비롯하여 대동(大同)·선부(宣府) 일대의 몽골 바이싱을 약탈했다. 후흐호트는 연합군에 의해 점령되었고 대규모 약

---

113)『滿文老檔』V, 1961, 천총 6년 사월 1일, p.729.

114)『滿文老檔』V, 1961, 천총 6년 사월 13일, p.741.

115)『滿文老檔』V, 1961, 천총 6년 사월 23일, pp754-755.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후금-몽골 연합군이 릭단을 쫓아 북상하던 시점에 릭단은 이미 흥안령 이북의 아루 몽골로 원정을 떠나 있었다. 릭단은 후금군을 두려워하여 도망친 것이 아니라 모밍간 등 아루 몽골을 자신의 세력으로 삼기 위한 원정길에 오른 상황이었다. 릭단의 아루 몽골 원정에 대해서는 최주봉, 2021, pp.53-69의 설명을 참조.

116)『滿文老檔』V, 1961, 천총 6년 사월 28일, pp.758-759.

117)『滿文老檔』V, 1961, 천총 6년 오월 9일, pp.764-765.

118) 바이싱(bayišing)은 16세기 중엽부터 알탄이 白蓮教徒를 비롯한 越境漢人을 동원하여 豊州灘, 즉 투메드 평원에 건설한 성곽도시를 지칭하며 한문 사료에서는 板升으로 음역한다. 최주봉, 2021, p.40의 각주 175.

119)『滿文老檔』V, 1961, 천총 6년 오월 11일, pp.765-766.

120) 좌·우익으로 분화된 연합군의 구체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齊木德道爾吉, 「天聰六年愛新國大軍征略庫庫和屯史實解讀(一):以《滿文原檔》爲中心」, 『內蒙古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 2014-4, pp.5-13; 「天聰六年愛新國大軍征略庫庫和屯史實解讀(二):以《滿文原檔》爲中心」, 『內蒙古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 2014-5, pp.5-17의 분석이 자세하다.

탈의 대상이 되었다. 천총 6년(1632) 오월 27일 후흐호트를 점령한 후금군은 후흐호트 서쪽의 황하 일대부터 동쪽으로는 선부까지 방화와 살육·약탈을 자행하고 10만에 가까운 인축(人畜)을 노획하였다.[121]

더걸러이(Degelei, 德格類)가 이끄는 군대는 대동 지역에 인접한 만리장성의 관문인 살호보(殺虎堡)로 나아가 명 측 관원들에게 명이 릭단에게 주기로 되어있던 물자를 요구하였다.[122] 살호보의 관원들은 재물과 가축을 모두 내주었다.[123] 유월 7일에는 선부 지역으로 파견되었던 아지거(Ajige, 阿濟格)가 그 일대 바이싱에서 노획한 인축과 물자에 대해 알려왔는데, 그 수가 사람 5,523명, 낙타, 말, 당나귀, 소, 양 등을 포함한 가축의 노획 수는 22,073마리에 달했다.[124]

천총 6년(1632) 초여름 후금-몽골 연합군은 차하르로 원정을 실행하였으나 릭단은 이미 아루 몽골을 향해 북쪽으로 떠난 상태였다. 홍타이지는 몽골 바이싱을 약탈하는 것으로 노선을 선회하였다. 차하르의 릭단을 공격하기 위한 차하르 원정이 화북 변경에 대한 침공으로 전환된 것이었다. 후금-몽골 연합군은 화북 변경 일대의 몽골 바이싱으로부터 상당한 물자를 약탈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화북 변경의 명 관원에게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하여 릭단이 받던 물자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후금-몽골 연합군은 천총 6년(1632) 유월 8일 후흐호트를 떠나 만리장성의 성보(城堡)들을 경유하면서 귀환길에 올랐다. 후금-몽골 연합군은 득승보(得勝堡), 장가구(張家口) 등 명 변경의 관원들을 위협하여 릭단에게 주기로 되어있던 재물들을 거두어갔다.[125]

홍타이지는 귀환 과정에서 변경 관원들에게 강화를 제안하였다. 유월 11

---

121)『舊滿洲檔』8, pp. 4043, 4054. 본『구만주당』기사에는 후금군이 민가와 관아는 물론 식량까지 불태워버리고 10만에 가까운 人畜을 노획하고 11,380명의 사람을 살해한 잔혹함이 기록되어 있다.『만문노당』과『청태종실록』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록이 누락되었다. 齊木德道爾吉, 「天聰六年愛新國大軍征略庫庫和屯史實解讀(二):以《滿文原檔》爲中心」,『內蒙古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 2014-5, pp.7, 16.

122)『滿文老檔』Ⅴ, 1961, 천총 6년 유월 1일. pp.773-774.

123)『滿文老檔』Ⅴ, 1961, 천총 6년 유월 4일, pp775-776. 살호보에서 확보하게 된 포로는 남자 160명, 여자, 아이들은 158명으로 도합 320명에 달했고 가축 1,440마리, 비단과 모청포는 총 6,490필이었다.『滿文老檔』Ⅴ, 1961, 천총 6년 유월 10일, p.785.

124)『滿文老檔』Ⅴ, 1961, 천총 6년 유월 7일, p.784.

125)『滿文老檔』Ⅴ, 1961, 천총 6년 유월 13일, pp.792-793.

일에는 명의 살호보의 관원들에게 강화를 제안하는 서신을 발송하였다.[126] 유월 13일에도 득승보에 서신을 보내 대동, 양화(陽和)의 관원들에게 강화를 제안하는 서신을 전하도록 요구하였고, 장가구의 관원에게도 같은 서신을 발송하여 선부의 관원들에게 전하게 하였다.[127] 홍타이지는 자신이 강화를 원하고 있음을 명 황제에게 전하고자 하였으나, 요동의 관원들이 원한을 품고 중간에서 서신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유월 13일 선부, 대동의 관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홍타이지는 다음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화를 맺고자 함을 밝혔다.

> 금국 한의 글, 변경의 관원들에게 보낸다. 우리가 싸움을 시작한 것은 큰 御座를 취하고 천하를 얻고자 하여 시작한 것이 아니다. …(중략)… 내가 진심으로 생각한 것을 꺼내어 말하겠다. **우리 작은 나라의 사람은 두 나라가 강화하여 재물을 조금 더 풍족하게 취하고, 상호 간에 상품을 거래하며 각자 마음대로 사냥하고, 매를 날려 보내며 태평하게 사는 것을 바란다.**[128]

홍타이지는 양국이 강화를 맺고 상호 간의 상품을 교역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제까지의 교섭은 대상이 요동의 관원들로 국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금이 명과의 전쟁에서 확보한 땅을 돌려주는 문제를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다. 천총 6년(1632)에는 홍타이지의 군대가 차하르와 명이 교역하던 곳까지 진출하였고 이곳을 지키고 있던 관원들에게 교역 재개를 강화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홍타이지는 같은 날에 보낸 또 다른 서신에서 차하르의 릭단이 명으로부터 받던 무상은(撫賞銀)을 이제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에 따르

---

126)『滿文老檔』Ⅴ, 1961, 천총 6년 유월 11일, pp.786-787.

127)『滿文老檔』Ⅴ, 1961, 천총 6년 유월 13일, pp.789-790.

128)『滿文老檔』Ⅴ, 1961, 천총 6년 유월 13일, pp.790-791 “Aisin gurun i han i bithe, jecen i hafasa de unggihe, meni dain deribuhengge, amba soorin be gaiki, abkai fejergi be bahaki seme deribuhengge waka, …(중략)… **meni ajigan gurun i niyalma, juwe gurun doro acafi ulin elgiyeken bahara, ishunde hūda hūdašame meni meni cisui aba abalame giyahūn maktame taifin banjire be buyembi kai.**”;『淸太宗實錄』권12, 천총 6년 유월 13일, “滿洲國皇帝、致書於明守邊各官. 我之興兵, 非欲取中原, 得天下也…(중략)…**我今開誠相告. 惟願兩國和好, 戢兵息戰, 兆庶敉寧, 財貨豐足, 互相貿易, 各安耕獵, 以樂太平.**”

면, 이 무상은은 본래 투메드의 알탄(1508-1582)과 릭단의 할아버지인 부얀(1555-1603)이 받던 것이었으나 릭단이 이를 취하게 되었고, 지금 후금-몽골 연합군이 차하르를 내쫓았으니 그 재물을 자신에게 주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었다.[129] 홍타이지는 또 후흐호트를 여러 차례 "게겐 한의 후후城(Huhu hoton)"으로 지칭한 바 있었다. 성(城)의 국인들은 원래 게겐 한의 것이었다가 차하르가 취했는데, 이제 자신의 것이 되었다고 주장했다.[130] 게겐이란 알탄의 칸 호(號)로서[131] 당시 홍타이지는 알탄이 거느리던 인구(人口)와 그가 취하던 재물이 차하르의 릭단을 거쳐 이제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 셈이었다. 심양으로 귀환하기 며칠 전에는 후흐호트에 방문(榜文)을 붙여 "게겐 한의 성에 있는 묘우(廟宇)를 훼손시키지 말라"며 경고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물건을 취할 시 이후에 자신이 다시 이곳에 와서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132] 홍타이지는 융경화의(隆慶和議)가 성사되어 순의왕(順義王)으로 봉해진 뒤 명으로부터 무상은을 받고 명과 물자를 교역했던 알탄의 선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133]

후금 측의 교섭 제안에 장가구의 관원은 천총 6년(숭정 5년, 1632) 유월 21일 교역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응하였고,[134] 홍타이지는 장가구의 관문에서 교역이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135] 24일에는 버일러들과 대신들에게 은으로 된 기물을 모두 내도록 하였다. 그리고 바두리(Baduri, 巴都禮)를 수장으로 삼아 장가구로 보내어 물품을 한인과 거래하게 하였다. 장가구의 관문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교역이 이루어졌고, 여기에는 연합군으로 원정에 참여했던 호르친 세력까지 가담하였다. 홍타이지가 장가구 지역에서 명과의 교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요동 지역과 장가구에서의 시가(市價)가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요동에서 망

129)『滿文老檔』Ⅴ, 1961, 천총 6년 유월 13일, pp.792-793.
130)『滿文老檔』Ⅴ, 1961, 천총 6년 유월 1일, pp.773-774.
131) 和田清, 潘世憲譯,『明代蒙古史論集』,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2015, p.738.
132)『滿文老檔』Ⅴ, 1961, 천총 6년 유월 5일, pp.779-780.
133) 경술지변과 융경화의에 대해서는 토마스 바필드 지음, 윤영인 옮김,『위태로운 변경』,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pp.497-508의 설명을 참조.
134)『滿文老檔』Ⅴ, 1961, 천총 6년 유월 21일, p.797.
135)『滿文老檔』Ⅴ, 1961, 천총 6년 유월 23일, p.798.

단(蟒緞) 1필의 값은 후금이 명과 전쟁을 벌인 이후로 평소의 40~50배 가까이 올랐던 반면, 장가구에서는 원래의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었다.[136]

국지적으로나마 장가구에서 명과 후금 사이에 교역이 이루어졌고, 천총 6년(1632) 유월 28일에는 선부순무 심계(沈棨), 총병 동계서(董繼舒)와 함께 장가구에서 맹약을 맺었다.[137] 천지신에 백마와 흑우를 바치는 의식이 행해졌고 명과 후금은 이제 함께 평화를 누릴 것을 약속하였다. 강화를 먼저 깨는 쪽에 하늘이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었다.[138] 이 '선부 맹약(宣府 盟約)'은 홍타이지 즉위 이후 후금과 명의 변경 관원 사이에 맺어진 최초의 맹약이었다. 홍타이지는 선부 관원과 맹약을 맺고 장가구에 명과 교역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둔 뒤, 칠월 1일에 심양으로의 귀환길에 올랐다.

천총 6년(1632) '선부 맹약'이 성사되었지만, 이는 지방 관원과 맺은 맹약이었다. 홍타이지 역시 이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심양으로 귀환한 이후 명 측에서 황제의 사신을 공식적으로 파견하여 양측의 평화를 위해 진전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였다. 명은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명의 처사는 천총 7년(1633) 이월 홍타이지가 영원성 서쪽 지역을 약탈하게 하면서 붙인 방문(榜文)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방문에 따르면 홍타이지는 명 변경의 관원과 맹약을 성사시켰기에 명 조정에서 사신을 파견해와 진전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명에서는 사신을 보내지 않았고 '선부 맹약' 이후 강화의 진전을 위해 자신이 파견한 사신마저 돌려보냈다고 지적하였다.[139]

명 조정에서 천총 6년(1632)에 성사된 맹약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것은 강화의 당사자였던 선부순무 심계가 밝히고 있듯이, '선부 맹약'이 후금-몽골 연합군을 퇴각시키기 위한 "권도(權道)"에 불과했기 때문이었

136)『滿文老檔』V, 1961, 천총 6년 유월 24일, p.799.
137)『滿文老檔』V, 1961, 천총 6년 유월 28일, pp.803-804.
138)『明淸史料』甲編, 第八本, 「錦衣衛掌衛事王世盛題本」, p.736a, "原有夷人誓稿內稱 '大明國, 金國爲華夷共享太平, 議講和款. 因此白馬祭天, 烏牛祭地, 盟誓堅款, 各要和好. 如大明先背盟壞款, 敎天地鑒察, 如金國先背盟壞款, 亦敎天地鑒察, 報應以橫禍非災, 國敗人亡.'"
139)『淸太宗實錄』권13, 천총 7년 이월 21일.

다. 심계는 사안을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홍타이지에게 보낸 서신에서 나라를 욕보이는 발언을 했다는 죄목으로 실각하였다.[140] 후금의 서신 자체를 일절 접수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았다.[141] 천총 6년(1632) 심계가 주도한 '선부 맹약'은 황제의 재가 없이 변경의 관원이 단독으로 맺은 것에 불과했다.

명 측으로부터 사신이 도래하지 않자, 천총 6년(1632) 시월 홍타이지는 명 황제, 요동의 태감 및 관원에게 강화를 제안하는 서신을 발송하였다. 서신에서 홍타이지는 선부에서 맹약을 맺은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제 요동의 관원은 물론, 명 황제와 정식으로 강화를 맺고자 한다는 말을 전했다. 특히 홍타이지가 명 황제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특기할 만하다.

> 오직 강화가 성사된다면 세폐를 받고 여유롭게 노닐며 사냥할 수 있게 될 것이니, 함께 태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142]

이는 건륭 삼수본『淸太宗實錄』기사의 한 문장으로 홍타이지가 숭정제에게 보낸 국서에서 강화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명 황제에게 보낸 국서가『천총실록고』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리광타오(李光濤)는 자신의 책에서『천총실록고』에 이 국서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옮겨두었으며『천총실록고』에서 어떠한 수정이 가해졌는지, 수정이 이루어지기 전의 원문은 무엇이었는지 기재해두었다.[143] 위에서 언급한『청태종실록』의 문장은『천총실록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단, 아래의 인용문은『천총실록고』에서 수정이 이루어지기 전의 문장을 옮긴 것이다.

---

140)『崇禎長編』, 숭정 5년 칠월 13일; 張廷玉 等,『明史』, 1974, 권257,「列傳」145,「熊明遇」, pp.6630-6631.

141)『明淸史料』甲編, 第八本,「錦衣衛掌衛事王世盛題本」, p.736a.

142)『淸太宗實錄』권12, 천총 6년 시월 10일, "惟和好旣成, 獲邀歲幣, 優游田獵. 共享太平是所願也."

143) 李光濤, 1986, pp.71-73.

소국의 사람으로서 강화가 성사될 시에, 재물을 일부 얻으면서 사냥하고 매를 놓으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즐겁고 유쾌한 일입니다, 삼가 이를 상주합니다.[144]

『천총실록고』에서 수정이 이루어지기 전의 원문과 『청태종실록』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서술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후금을 소국이라고 자칭하는 표현이 사라졌고, "삼가 상주합니다"와 같이 명을 상국으로 상정하는 표현도 없어졌다. 둘째, 『천총실록고』 원문은 강화를 통한 교역을 두고 "재물을 일부 얻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청태종실록』은 "세폐"라는 말로 대체하였다. 『천총실록고』에서는 홍타이지가 강화를 통해 명과의 교역을 복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난다. 반면에 『청태종실록』은 후금이 명으로부터 "세폐"를 받고자 한다고 서술하여 마치 요와 금의 사례처럼 후금도 명에 대한 우위를 바탕으로 강화를 맺고자 했던 것처럼 기록하였다. 『천총실록고』의 문장을 통해 강화를 성사시키고자 했던 홍타이지의 의지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그 강화의 조건으로 명과의 교역 문제가 대두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종합하면, 천총 6년(1632) 당시 홍타이지는 화북 변경을 침략하면서 강화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고, '선부 맹약'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강화는 진전되지 못했고 '선부 맹약' 이후 홍타이지는 어떠한 답신도 받지 못했다. 천총 6년(1632)의 강화교섭은 이렇게 중단되었다.

교섭이 중단되고 이듬해인 천총 7년(1633) 유월 후금에서는 명, 몽골, 조선 세 나라 중에 어디를 먼저 공격할 것인가를 두고 '대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대토론'의 결과 명을 먼저 공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홍타이지는 천총 8년(1634) 화북을 다시 침공하였다.[145] 이 침공에서 홍타이지는 대동과 선부 지역을 공격하고 상당수의 포로를 획득하였다.[146]

---

144) 李光濤, 1986, p.72, "小國之人, 和好成時, 得些財物, 打獵放鷹, 便是快樂處. 謹奏." 『천총실록고』에서는 이 문장의 일부 글자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夫小國之人, 和好告成, 薄有所獲, 行獵放鷹, 樂事無窮矣." "삼가 이를 상주합니다"에 해당하는 "謹奏"가 수정된 문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역시 주목된다.

145) 천총 7년(1633)의 '대토론'과 '1634년 화북침공'의 전개 양상에 대해서는 박민수, 2017, pp.25-33의 설명이 자세하다.

그런데 천총 8년(1634)의 화북침공 과정에서 홍타이지는 교섭을 제안했다. 홍타이지는 숭정제뿐만 아니라, 산서의 총독(總督) 장종형(張宗衡), 총병관 조문조(曹文詔), 대동 지역의 대왕(代王)과[147] 그의 어머니에게까지 교섭을 제안하는 서신을 보냈다. 홍타이지는 여러 차례의 교섭 제안에도 응하지 않는 명 측을 비난하면서 명의 그러한 태도 때문에 공격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천총 6년(1632) '선부 맹약'이 성사된 이후, 명 측에서 별도의 사신을 파견해올 것을 기대하였으나 도래하지 않았고 명 황제를 비롯하여 요동과 선부·대동의 관원들에게 다시 서신을 보냈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강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여러 번 교섭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명 측이 또 무응답으로 일관했기에 공격을 결정하였다고 전했다.[148]

천총 6년(1632) '선부 맹약'이 성사되었으나 이내 교섭은 중단되었고, 이는 다시 홍타이지가 '1634년 화북침공'을 일으키는 데 명분을 제공해주었다. 더 나아가 침공 과정에서 다시금 산서의 관원 및 번왕에게 서신을 발송하여 명 측이 교섭에 다시 응하도록 압박하는 등 이전의 강화교섭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명은 역시 단 한 차례도 회신하지 않았다. 전술하였듯이 숭정제가 후금의 서신 자체를 접수하지 말도록 엄중한 경고를 내린 바 있었기 때문이었다.

---

146) 박민수, 2017, p.33.

147) 각 번왕의 분봉지와 분봉 시점에 대해서는 趙現海, 「明代九變軍鎮體制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5, pp.50-68의 설명을 참조.

148) 『淸太宗實錄』 권19, 천총 8년 칠월 8일; 칠월 13일; 팔월 15일; 팔월 18일; 팔월 24일; 팔월 26일; 윤팔월 3일.

Ⅲ. 숭덕 연간의 명·청 강화교섭과 화북침공

1. 숭덕 3년(1638) 명·청 강화교섭과 1638-39년 화북침공

홍타이지는 숭덕(崇德) 원년(1636) 사월 11일 “관온인성황제(寬溫仁聖皇帝)”라는 존호를 받고 국호를 청으로 고쳤다. 그는 “조선 정복”, “몽골 통일”, “전국옥새(傳國玉璽)의 획득”이라는 세 가지 “위업(偉業)”을 내세우면서 황제가 되었음을 선언하였다.[149] 그런데 숭덕 연간 명 조정에서 청과의 강화교섭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었다. 중심에는 숭덕 원년(숭정 9년, 1636) 시월부터 숭덕 4년(숭정 12년, 1639) 삼월까지 명의 병부상서(兵部尙書)를 역임한 양사창(楊嗣昌)이라는 인물이 있었다.[150] 양사창은 산영순무(山永巡撫)을 역임하던 천총 6년(숭정 5년, 1632) 당시부터 후금과의 전쟁 상황에 대하여 현실적인 진단을 내린 바 있었다. 그에 따르면 당시 많은 사람이 요동을 되찾아야 한다고 “오만하게” 역설하고 있지만, 이는 천계(天啟) 연간 초반이었다면 몰라도 국가 재정이 불안해진 현재 상황에서 가볍게 말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151]

양사창은 숭덕 2년(숭정 10년, 1637) 팔월 시점부터 교섭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숭환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강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간첩을 심양으로 파견하여 청 측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고 숭정제(崇禎帝)에게 상주하였다. 이를 통해 청 내부의 분열을 조장할 기회까지 엿보겠다고 보고하였다. 간첩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시 요동에 정세를 잘 알고 있던 주원충(周元忠)이라는 맹인이었다.[152] 숭정제는 양사창의 보고를 확인하고 당시 요동순무 방일조(方一藻)에게 주원충을 파견할 것을 명하였다.[153]

---

149)『淸太宗實錄』권28, 숭덕 원년 사월 11일.

150) 張德信,『明代職官年表』1, 合肥: 黃山書社, 2009, pp.671-674.

151) 楊嗣昌,『楊文弱先生集』(梁頌成輯校,『楊嗣昌集』2, 長沙: 嶽麓書社, 2008) 권45,「答楊左司馬一鵬」, p.1045.

152) 주원충의 파견을 결정한 양사창의 말에 따르면 그는 맹인이자 점쟁이였고 단지 요동의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파견되었다.『崇禎實錄』숭정 11년, 시월 5일.

단, 주원충은 숭덕 2년(숭정 10년, 1637) 팔월 이후 즉각 심양으로 파견되지 않았다. 숭덕 3년(숭정 11년, 1638) 이월에는 다른 변수가 발생했다. 홍타이지의 군대가 후흐호트 지역으로 남하한 자삭투 칸 수반디(Subandi, 素班第)를 공격하고 귀환하는 상황에서 선부(宣府) 근처에 출몰한 것이다.[154] 홍타이지는 이월 28일 선부의 대신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그는 '선부 맹약'이 무산되는 과정을 재론하면서 명 측에 "세폐"와 "개시(開市)"를 요구하고 잘못을 인정하라고 압박했다. 요구에 따르지 않을 시 대군을 이끌고 명을 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잊지 않았다.[155] 선부의 대신들은 답신을 보내지 않았으나 홍타이지의 군대가 명의 변경을 침입하지 않고 그대로 귀환 길에 오름으로써 사안은 일단락되는 듯했다.[156]

양사창은 청의 군대가 철수한 이후인 숭덕 3년(숭정 11년, 1638) 삼월 25일 주소(奏疏)를 올려 홍타이지가 선부 지역에서 "세폐"와 "개시"를 요구한 일을 숭정제에게 보고하였다.[157] 뒤이어 삼월 27일에는 요동순무 방일조와 태감 고기잠이 자신에게 제안한 방책을 숭정제에게 설명하였다. 그 방책은 정탐을 위해 심양 쪽으로 파견된 상태였던 주원충에게 "유첩(諭帖)"을 보내 청과 강화를 논의하게 하는 것이었다.[158] 양사창은 같은 주소에서 청과 강화를 맺고 농민군을 진압하여 고통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59] 청과의 강화는 무상(撫賞)을 베풀어주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 명분은 심히 고귀하고 정당한 것이니 명의 존엄에 전혀

---

153) 楊嗣昌, 『楊文弱先生集』 권18, 「覆遼撫密奏軍機疏」, pp.414-415. 方一藻는 당시 요동의 정세를 익히 알고 있는 周元忠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었고, 그를 심양에 파견하여 적의 정황을 정탐하는 계책을 양사창에게 건의한 바 있었다. 주원충은 실제로 숭덕 3년(숭정 11년, 1638) 사월 심양에 도래하였다.

154) 『淸太宗實錄』 권40, 숭덕 3년 이월 27일. 숭덕 3년(1638) 자삭투 칸 수반디에 대한 청군의 공격에 관해서는 이선애, 「淸 初期 外藩(tulergi golo) 형성과정과 理藩院」,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15-116의 설명을 참조.

155) 『淸太宗實錄』 권40, 숭덕 3년 이월 28일.

156) 『淸太宗實錄』 권41, 숭덕 3년 삼월 17일.

157) 楊嗣昌, 『楊文弱先生集』 권23, 「烽退狡謀益深疏」, p.6.

158) 주원충은 숭덕 3년(숭정 11년, 1638) 삼월 21일 시점에 이미 심양 부근에 도달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심양 도착한 일자는 사월 4일이었다. 楊山松, 『孤兒籲天錄』(『四庫禁毁書叢刊』編纂委員會編, 『四庫禁毁書叢刊補編』 17, 北京: 北京出版社, 2005) 권5, p.325, "三月二十一日, 方公又言, 元忠已至彼中." 양산송은 양사창의 아들이며 그 역시 아버지 양사창의 문집을 편찬하였다.

159) 楊嗣昌, 『楊文弱先生集』 권23, 「覆關寧撫監密奏邊情疏」, p.537.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160] 숭정제는 양사창의 주소에 대해 순무와 태감에게 그 방책을 시행하게 하라고 유지를 내리되 "과초(科抄)[161]를 작성하는 것을 불허했다."[162] 병부상서 양사창과 요동의 순무·태감이 황제의 재가를 받아 청과의 교섭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제 명 변경의 관원이 아닌 명 조정의 대신인 병부상서가 청과의 강화교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이전의 교섭은 변경 관원과 홍타이지 간의 강화교섭이었던 반면, 숭덕 연간에는 명 조정의 대신이 명 황제의 재가를 받아 교섭을 주도했다. 실질적인 '명-청 강화교섭'이 숭덕 3년(1638)에 개시되었다.

주원충을 비롯한 사신 일행에 대한 청 측의 기록은『청태종실록』숭덕 3년(1638) 사월 4일 자 기록에 등장한다. 이에 따르면, 사신 일행은 사월 사일 심양에 도착하였다. 당시 홍타이지는 막북 할하의 자삭투 칸 수반디를 향해 진군한 이후 심양으로 귀환하지 않은 상태였다. 심양을 지키고 있던 왕, 버일러들은 내홍문원(內弘文院) 대학사(大學士) 히퍼(Hife, 希福) 등을 파견하여 이들을 환대하였다.[163] 홍타이지는 사월 12일 심양으로 귀환하였다.[164] 그런데 강화교섭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맹인인 중원충이 파견된 것을 확인하자, 홍타이지는 명 측의 진정성을 의심하였다. 주원충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가 목숨을 애걸하였기에 죽이지 않았다.[165]

숭덕 3년(1638)의 강화교섭도 중단 직전의 상황이 되었을 무렵, 대릉하 전투에서 포로로 잡은 한인 장춘(張春)[166]이 교섭의 중단을 저지하며 자신

---

160) 楊嗣昌,『楊文弱先生集』권23,「覆兵科開市之議疏」, pp.537-538.

161) 科抄는 황제에게 보고된 어떤 사안의 내용과 그에 대한 명령을 六科에서 베껴 육부에 전달한 문서를 가리킨다. 六科의 주된 기능은 六部의 업무 수행에 대한 감찰과 부당한 황제의 명령에 대한 封駁이었다. 六科가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六部가 어떤 사안의 처리를 맡게 되었는지 파악해야 했다. 이 때문에 六科는 특정 사안이 황제에게 보고되어 육부에 배당되는 과정에 개입하였고, 이로부터 科抄라고 불리는 문서가 작성되었다. 구범진,『조선 시대 외교문서: 명·청과 주고받은 문서의 구조 분석』,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08, pp.46-47.

162) 楊嗣昌,『楊文弱先生集』권23,「覆關寧撫監密奏邊情疏」, p.537, "奉聖旨, '奏內事機, 著該撫監便宜酌行, 不許抄傳.'"

163)『淸太宗實錄』권41, 숭덕 3년 사월 4일.

164)『淸太宗實錄』권41, 숭덕 3년 사월 12일.

165)『崇禎實錄』숭정 11년, 시월 5일.

166) 장춘은 숭정 3년(1630) 永平兵備道에 임명되었고 천총 5년(1631) 대릉하 전투에서

이 교섭에 임하겠다고 나섰다. 장춘은 직접 사신을 만나보겠다고 상주하였다. 교섭 과정에서 자신의 말에 조금이라도 속임수가 있다면 천지신명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홍타이지를 안심시켰다. 다만 사신으로 파견된 자들의 관직과 이름이 무엇이며 "성지(聖旨)"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167] 장춘은 대릉하 전투(천총 5년, 1631) 당시 후금의 포로가 된 이후로 투항 명령에 따르지 않고 변발도 하지 않은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교섭을 맡긴다는 것에 대해 청 내부에서 이론이 분분하기도 하였다.[168]

홍타이지는 명과의 교섭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단, 교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사료는 확인되지 않고 그 정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료만 일부 존재한다. 우선 『孤兒籲天錄』의 기사에 따르면, 숭덕 3년(숭정 11년, 1638) 오월 21일 주원충은 심양에서 영원으로 복귀하였고, 청 측은 주원충 편에 한 통의 서신을 전달하였다. 서신에는 청 측에서는 여전히 강화를 맺고자 한다는 말이 담겨 있었고, 강화가 성사되지 않을 시 여름과 가을에 명을 향해 군사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하였다.[169]

당시 조선에서도 숭덕 3년(1638) 교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 잉굴다이(Inggūldai, 英俄爾岱 혹은 龍骨大)는 당시 사은사(謝恩使)로 심양에 파견되었던 신경진(申景禛)에게 그해 삼월에 산해관 쪽으로부터 7명의 인원이 도래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잉굴다이의 발언에 따르면, 홍타이지는 이들을 영원으로 되돌려보내면서 강화를 진심으로 성사시키고자 한다면 대관(大官)을 파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지 않을 시 칠월에 군대를 내어 명을 공격할 것이라는 말도 역시 잊지 않았다.[170] 주원충은 홍타이지의 이러한 요구를 듣고 오월 21일에 영원으로 복귀한 것이었다. 주원충이 영원으로 복귀한 이후 명 측과 청 사이에 다시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패배하여 후금의 포로가 되었다. 三官廟에 갇혀 지내다 숭덕 3년에 교섭을 추진했다. 張廷玉 등, 『明史』, 1974, 권291, 「列傳」 179, 「張春」, pp.7463-7464.

167)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清崇德三年漢文檔案選編」, 『歷史檔案』, 1982-2, 「張春爲與明王朝議和事奏言」, pp.22.

168) 張廷玉 등, 『明史』, 1974, 권291, 「列傳」 179, 「張春」, p.7464.

169) 楊山松, 『孤兒籲天錄』 권5, p.325

170) 『鄭泰齊史草』(한국사료총서 38) 숭정 11년 오월 甲子(2일).

보이는 사료 역시 존재한다.

> 이달에 경사, 산동, 하남 지역에 큰 가뭄이 들고 메뚜기 떼로 인해 피해를 봤다. 청의 군대는 大青山에 주둔한 채 (우리 측과) 강화를 논의하였다. 요동순무 方一藻가 奏聞하기를, "(저들이) 우리가 (국력이) 쇠약한 것을 틈타 隆慶 연간에 알탄을 (順義王에) 봉해준 옛날 일을 거론합니다." (이 사안은) 병부상서 양사창이 몰래 주재한 것이었다.[171]

위의 기사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두 가지이다. 첫째, 청은 대청산에 군사를 주둔시켜 놓고 교섭이 중단되면 곧바로 전투를 개시할 것처럼 무력 시위를 하고 있었다. 대청산은 금주(錦州)의 서북쪽의 위치한 청산(靑山)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72] 청산은 후금군이 '1629-30년 화북침공' 당시 경유한 청산관(靑山關, 현재 河北省 撫寧 지역)에서 동북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산이다. 교섭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청은 이전 화북침공 때 경유했던 청산관으로 바로 진격할 수 있는 청산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었다. 홍타이지는 교섭이 중단된 이후 명을 여러 차례 침공한 바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군사행동은 명에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오기에 충분했다.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청 측이 명 융경(隆慶) 연간의 알탄을 다시 거론하여 교섭에 임했다는 것이다. 홍타이지가 천총 6년(1632) 선부 관원들과 교섭을 진행하면서 알탄을 언급한 바 있음은 전술한 대로이다. 특히 그는 '선부 맹약' 당시 알탄의 선례를 언급하며 알탄이 받았던 물자를 이제 자신이 받겠다고 주장하였다. 『숭정실록』의 기록에 비추어 봤을

171) 『崇禎實錄』 숭정 11년 유월 25일, "是月, 京師, 山東, 河南, 大旱蝗. 淸兵屯大青山議和, 巡撫遼東方一藻, 奏聞, '以我弱, 引隆慶封俺荅故事.' 兵部尚書楊嗣昌陰主之."

172) 譚其驤 主編, 『中國歷史地圖集』(上海: 地圖出版社, 1987)에 따르면 大青山은 大同에 인접한 산이나, "청의 군대가 대청산에 주둔하며 강화를 논의하였다"는 서술에 비추어 보았을 때 『崇禎實錄』에서 지칭한 大青山은 대동에 위치한 산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명과 교섭을 진행하면서 차하르 원정이나 대규모 화북침공 당시에나 도달한 바 있었던 대동 지역에까지 병력을 주둔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자삭투 칸 수반디를 공격하기 위해 떠났던 원정군도 이 시점에는 모두 심양으로 귀환한 상태였다. 아울러 『明武宗實錄』 정덕 8년(1513) 구월 27일 기사에서 대청산을 "薊州大淸山"이라고 표현하고 있기에 요서 지역의 靑山도 大淸山으로도 지칭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明武宗實錄』 권104, 正德 8년 구월 24일.

때, 그때와 유사한 조건이 숭덕 3년(1638)의 강화교섭에서도 언급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숭덕 3년(1638) 교섭의 정황에 대해 조선 측에서 또 다른 기록을 남기고 있다. 사은사로 청에 파견되었던 이행원(李行遠)은 청이 현재 중국의 산물이 고갈되어 어쩔 수 없이 강화를 맺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173] 같은 해 팔월 4일 자『인조실록』의 기사에도 유사한 내용이 보인다.

> 명조에서 강화하려는 사신이 과연 나왔는데, 이는 바로 산해관 군문(軍門)이 보낸 사람입니다. 소위 상사(上使)는 두 눈이 다 멀었으니, 모집에 응한 사람인 듯합니다. 청의 민심은 전쟁을 싫어하고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또 中原과 재화를 교역하려고 하여 날마다 강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청나라에서 말을 탄 사람 20명이 또한 中原에 들어갔다고 합니다.[174]

이상의 조선 기록으로부터도 숭덕 3년(1638)의 강화교섭에서 홍타이지가 강화를 성사시킴으로써 교역을 복구하여 명의 물산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숭덕 3년(1638)에는 실질적인 명-청 강화교섭이 이루어졌고, 명 병부상서 양사창과 숭정제도 강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 당시 교섭의 정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사료에 따르면, 홍타이지는 알탄의 선례를 다시 거론하였으며 강화를 맺어 전쟁을 일단 멈추고 명과 교역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양사창이 강화교섭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누설되자 명 관원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교섭은 중단되었다.[175] 명 조정의 대다수 관원에게 청과의 강화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176] 이들은 청과의 강화가 곧 송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일부 대신은 양사창을 진회(秦檜)에 빗대어 비판을 가하였다.[177] 특히 당시 유학자로서 명망이 높

---

173)『承政院日記』제64책, 인조 16년 오월 11일.

174)『仁祖實錄』권37, 16년 팔월 4일, "天朝和使果出來, 而乃山海關軍門所送之人. 所謂上使, 兩目俱盲, 似是應募人也. 淸國民情厭苦兵事, 且欲通貨于中原, 日望和事之成, 淸人二十騎, 亦入去于中原."

175) 李淸,『三垣筆記』(顧思 點校,『元明史料筆記叢刊』18, 北京: 中華書局, 1982) 筆記上, 숭정. p.14

176)『崇禎實錄』권11, 숭정 11년 칠월 1일; 칠월 19일; 십일월 8일.

았던 황도주(黃道周)가 중심이 되어 교섭에 반대를 표하며 양사창과 방일조를 탄핵하였고,[178]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는 비방하는 말이 그치지 않을 정도였다.[179] 심지어 양사창, 방일조, 고기잠이 비밀리에 금 8만 냥과 은 10만 냥을 뇌물로 청에 주고 강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그들을 회유하였다는 소문까지 조정에 떠돌고 있었다.[180] 양사창은 곧바로 주소를 올려 이 소문에 대해 해명하였다.[181] 이러한 상황에 봉착한 이상 양사창은 청과의 교섭을 더는 추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명 측으로부터 교섭을 위한 사신이나 서신이 더 도래하지 않자 홍타이지는 같은 해(1638) 가을, 화북을 침공했다. 홍타이지는 자신은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명이 이에 응하지 않았기에 군대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182] 이 화북침공에서 청군은 70여 개의 성을 함락했을 뿐만 아니라, 북경 주변의 기내(畿內) 지역은 물론 산동의 제남(齊南)까지 약탈했다.[183] 그 과정에서 제남의 번왕인 덕왕(德王) 주유수(朱由榵)를 사로잡아 심양까지 압송하였고 포로와 전리품을 확보하였다.[184] 청군은 이듬해 삼월 18일이 되어서야 청산관을 통해 귀환하였다.[185] '1638-39년 화북침공'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청은 숭정제와 명의 대신들에게 강화를 제안하는 서신을 전달하였다. 덕왕 주유수로 하여금 숭정제에게 청과의 교섭을 제안하는 내용의 서신을 작성하여 발송하게 하였다.[186]

종합하면, 숭덕 3년(1638) 청과의 강화교섭이 명 조정의 대신에 의해 적극적으로 검토되었다. 명 병부상서가 명 황제의 재가를 받고 청과의 교섭에 나섬으로써 실질적인 명-청 강화교섭이 이루어졌다. 사료의 한계로 강화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홍타이지는 강화 성사를 통해 교역을 재개함으로써 물자를 확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며 알탄의

177)『崇禎實錄』권11, 숭정 11년 십이월 12일.
178) 張廷玉 等,『明史』, 1974, 권255,「列傳」143,「黃道周」, pp.6596-6599.
179) 文秉 等,『烈皇小識』, 臺北: 廣文書局, 1967, p.157.
180) 談遷,『國榷』권96, p.5816.
181) 楊嗣昌,『楊文弱先生集』권25,「乞發臣前後疏疏」, pp.581-582.
182)『淸太宗實錄』권43, 숭덕 3년, 팔월 23일.
183) 정하영 등 역주,『瀋陽狀啓 - 심양에서 온 편지』, 서울: 창비, 2008, pp.90-91.
184)『淸太宗實錄』, 권45, 숭덕 4년 삼월 9일.
185)『淸太宗實錄』권45, 숭덕 4년 삼월 18일.
186)『淸太宗實錄』권47, 숭덕 4년 칠월 2일.

선례를 자신이 따르겠다는 요구를 명에게 다시 전한 것으로 보인다. 교섭이 누설됨에 따라 숭덕 3년(1638)의 교섭도 중단되었다. 청은 이를 구실로 삼아 화북을 침공하여 물자를 약탈했고 심양으로 귀환한 이후에도 강화를 제안하였다. 명에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 松錦之戰(1640-1642), 강화교섭 그리고 1642-43년 화북침공

숭덕 7년(1642) 명청 전쟁은 전기(轉機)를 맞게 되었다. 송산(松山)·금주(錦州) 전투(이하 송금지전으로 약칭)에서 청이 승리를 거두었다. 송금지전은 숭덕 5년(1640) 삼월부터 숭덕 7년(1642) 사월까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청군과 명군 사이에 전면적인 전투는 숭덕 6년(1641) 팔월이 되어서야 일어났다. 치열한 전투 끝에 청군이 송산성을 지키던 명의 계요총독(薊遼總督) 홍승주(洪承疇)를 생포하고,[187] 금주성의 총병 조대수(祖大壽) 역시 청에 투항함으로써 전세는 청으로 기울었다.[188] 사월 21일 탑산성(塔山城)이 함락되었고,[189] 사월 25일에는 행산성(杏山城) 역시 청군에 의해 점령되었다.[190] 이로써 청은 산해관 밖의 중요 거점인 금주성, 송산성, 행산성, 탑산성을 차지하였으며 명이 유지해온 요동 방어선의 주요 거점은 영원성만 남은 상태가 되었다.

송금지전의 전황이 숭덕 7년(1642)에 전개된 명·청 강화교섭에 변수로 작용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숭덕 6년(숭정 14년, 1641) 팔월, 전면적인 전투가 시작되었고 구월에 13만의 명군이 패배하였다. 송산·금주성으로 퇴각한 명군은 결국 청군의 포위 작전으로 송산·금주성에 고립되었다. 이 상황에 봉착하자 같은 해 시월 명의 병부에서 청과의 전쟁을 그치고 송산·금주성의 포위를 풀어야 한다는 방안이 건의되었다. 성내에는 부상자가 심히 많아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두 성에 고립된 2만 명에 가까운 병사들이 아사하거나 청군에 의해 죽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191]

---

187)『淸太宗實錄』권59, 숭덕 7년 이월 21일.
188)『淸太宗實錄』권59, 숭덕 7년 삼월 10일.
189) 談遷,『國榷』권98, p.5924.
190)『淸太宗實錄』권60, 숭덕 7년 사월 25일.

요동순무 섭정계(葉廷桂)도 시월 “죽음을 무릅쓰고” 숭정제에게 강화를 제안하였다.[192]

요동영전도(遼東寧前道) 석봉대(石鳳臺)도 청과의 강화를 제안한 바 있었다. 석봉대는 청의 군영에 사람을 파견였는데 청은 “강화는 우리 나라가 원래 바라던 것이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숭정제는 석봉대가 “사사로이 사람을 파견하여 국체를 모욕하였다”라며 그를 하옥해버렸다.[193] 명의 일부 관원들은 송산·금주성의 포위를 풀기 위한 방책으로 청과의 강화를 고려했고, 당시 병부상서였던 진신갑도 유사한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194]

그런데 석봉대를 투옥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숭정제가 숭덕 7년(숭정 15년, 1642) 정월 초하루 태도를 바꾸어 청과의 강화를 검토하였다. 이날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95] 당시는 청군이 송금지전에서 승리를 거둔 뒤 송산·금주성의 포위 작전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다. 무영전(武英殿) 대학사 사승(謝陞)은 석봉대의 사안을 거론하며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사승은 “지금 저희의 힘은 이미 소진되었습니다”라는 탄식과 함께 이전 석봉대의 제안이 오히려 옳았다고 그를 옹호하였다. 다른 대학사 주연유(周延儒), 하봉성(賀逢聖)도 동조하였다.

대학사들은 병부상서 진신갑으로 하여금 강화의 필요성을 숭정제에게 우회적으로 제안하게 하였다. 이에 진신갑은 송산·금주성이 포위된 곤란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간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상주하였다. 이 제안을 들은 숭정제는 이간책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진신갑에게 오히려 청과 강화교섭을 추진하도록 명하고 외조(外朝)가 이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진신갑은 병부직방낭중(兵部職方郎中) 마소

191)『明淸史料』乙編, 第四本, 「兵部行御前發下兵科都給事中張給縉題稿」, p.336a.

192)『明淸史料』乙編, 第四本, 「兵部行御前發下遼東巡撫葉廷桂題稿」, p.338a-b.

193) 谷應泰, 『明史紀事本末補遺』(北京: 中華書局, 1977) 권5, 「錦寧戰守」, p.1484, “十五年春, 正月, 遣職方主事馬紹愉出關, 議款不成. **先是寧前副使石鳳臺知建州意欲款, 馳書通其守將, 守將答云, ‘此吾國素志也.’ 鳳臺遽以聞, 上以私遣辱國, 下鳳臺於理**.”

194) 陳生璽, 1989, p.33.

195) 이하 숭정 15년(1642) 강화교섭이 황제의 재가를 받아 진신갑의 주도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은 별도의 각주가 없는 한『崇禎實錄』숭정 15년 정월 1일 조의 기사와 談遷,『國榷』권98, pp.5913-5914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유(馬紹愉)를 비롯한 사신 일행을 영원성으로 가게 한 뒤 그곳에서 청과의 강화교섭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숭덕 7년(숭정 15년, 1642) 정월 7일 마소유 등의 사신 일행이 영원성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뒤이어 청의 군영으로 향한 뒤 교섭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군영에 있던 버일러들은 사신 일행이 명 황제의 칙서(勅書)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이들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사신 일행은 조정에 칙서의 발급을 요청하였다.[196] 영원성에서 칙서를 수령한 사신 일행은 행산성으로 향했다. 청군은 당시 행산성 밖에 군영을 설치해 둔 채 포위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사신 일행은 성 밖으로 나가 군영에서 주둔 중이던 아지거(Ajige, 阿濟格) 및 버일러들에게 명 황제의 칙서를 보여주었다. 아지거는 계심랑(啓心郎) 잠바를 심양으로 파견하여 명에서 강화를 제안해왔음을 알리는 한편, 명 황제의 칙서도 함께 발송하였다.[197] 잠바가 심양에 도착한 시점이 숭덕 7년(1642) 삼월 16일이었고, 홍타이지는 이 시점에 명 황제의 칙서를 받게 되었다. 칙서는 명 황제가 병부상서 진신갑에게 내리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198]

> 병부상서 진신갑에게 다음과 같이 칙유한다. 卿의 部(兵部를 지칭)에서 상주하길, "요동의 심양에 병사와 백성을 쉬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음에도 中朝에서 이것을 가벼이 믿지 못했던 것은 역시 이전의 총독 순무 및 각 관원이 (강화의 사안을) 여태까지 사실대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196) 談遷,『國榷』권98, pp.5913-5914, "丁丑, 兵部職方郎中, 馬紹愉偕參將李御蘭, 周維墉, 馳寧遠, 通使于建虜, 建虜請敕爲信. 乃復請于朝, 諭兵部得敕."; 『崇禎實錄』 숭정 15년, 정월 1일. "丁丑, 紹愉偕參將李御蘭, 周維墉, 至寧遠. 聞于淸, 請勅爲信, 乃復請于朝."

197) 『淸太宗實錄』권59, 숭덕 7년 삼월 16일. 이 기사에 따르면 杏山城 주변에 주둔하고 있는 王과 버일러 등이 계심랑 잠바를 파견하여 명의 관원이 강화를 논의하러 도래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계심랑 잠바가 심양에 도착하자, 홍타이지가 칙서에 찍힌 "인장이 정해진 형식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製寶不循定式]"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지거가 명의 사신 일행이 도착한 소식을 심양에 알림과 동시에 그들이 가져온 칙서도 함께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198) 숭정제가 진신갑에게 내린 칙서는『明淸史料』,『淸太宗實錄』,『崇禎實錄』모두에 기재되어 있다. 세 가지 기록은 자구에서 약간의 출입이 존재할 뿐, 의미 상에서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아래에서는『명청사료』의 원문을 제시하고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明淸史料』 丙編, 第一本, 「松錦記事殘葉」, p.81a-b; 『淸太宗實錄』 숭덕 7년 삼월 16일; 『崇禎實錄』 숭정 15년 정월 1일.

라고 하였다. 지금은 경의 부에서 누차 (그들의 뜻을) 대신하여 진술하고, (그것이) 진심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보장하니, 우리 조정에서는 성의를 다해 멀리 있는 이들을 품을 것이므로, (그들의 제안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상천께서 살리기를 좋아하는 인의를 우러러 체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祖宗의 은혜와 도의가 (먼 곳의 이들을) 아울렀던 옛 모습을 복구하게 되리라.[199]

홍타이지는 행산성을 포위 중인 아지거와 버일러들에게 칙서를 내려 명의 사신이 가져온 칙서의 형식과 내용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지적사항을 명의 사신에게 전할 것을 명했다.

우선 칙서가 홍타이지에게 직접 보내는 형식이 아니라, 진신갑에게 칙유를 내리는 형식으로 작성된 것에 의문을 표했다. 진신갑에게 내리는 칙서라면 왜 황제지보(皇帝之寶)를 쓴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전 칙서에서는 황제지보가 아닌 칙명지보(勅命之寶)라는 인장을 찍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사용한 인장마저 찍힌 형태를 봤을 때, 크기도 크고 삐뚤어졌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서신의 내용을 두고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칙서의 내용을 봤을 때, 명 황제는 진심으로 강화를 원하고 있지 않고 아니라 오히려 청을 멸시하고 있다며 두 국가 사이의 갈등은 자신이 아니라 명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200]

홍타이지는 사신 일행을 심양으로 불러들이지 않았고 이들은 당시 청군에게 함락되지 않은 탑산성에 머무르고 있었다. 숭덕 7년(1642) 사월 21일 청군이 탑산성을 함락했다. 이 과정에서 마소유 일행이 성 밖으로 탈출하였고 청의 군대는 명의 사신 일행을 호위해주는 모습을 보였다.[201]

당시는 명에서 계요총독(薊遼總督)를 역임했던 홍승주가 투항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계심랑 잠바가 심양으로 가져왔던 칙서의 진위를 확인

199)『明淸史料』丙編, 第一本,「松錦記事殘葉」, p.81a-b, “諭兵部尙書陳新甲, 據卿部奏, ‘遼瀋有休兵息民之意, 中朝未輕信者, 亦因以前督撫各官, 未曾從實奏明.’今卿部累次代陳, 力保其出於眞心. 我國家開誠懷遠, 似亦不難聽從. 以仰體上天好生之仁, 以復還我祖宗恩義聯絡之舊.”

200)『淸太宗實錄』, 숭덕 7년 삼월 16일.

201) 談遷,『國榷』권98, p.5924, “建虜陷塔山, 我兵部職方郎中馬紹愉, 駐塔山候朝命. 遣諭建虜毋攻, 不聽. 城垂陷. 紹愉出, 建虜猶以卒衛之. 城中兵民自焚, 無一降者.”

받을 수 있었다. 홍승주는 명 황제가 과거 선부(宣府)에서 맺었던 맹약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언관들의 반대에 무산되고 말았던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지금 명 측의 교섭 제안은 거짓이 아니고 칙서에 찍힌 인장도 제대로 된 것이라고 확인해주었다.

홍승주에 의해 인장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자, 숭덕 7년(1642) 사월 28일, 홍타이지는 조선에 칙서를 보내 명과의 강화에 대해 인조의 생각은 어떠한지 물었다. 이 칙서에서 홍타이지는 이제 많은 이들이 청에 복속하였고 강토도 상당히 넓어진 상황에서 명이 강화를 청해왔으니 이를 성사시켜 "태평의 복"을 함께 누리고자 한다고 하였다. 전쟁을 지속할 시 또 발생하게 될 수많은 사상자를 생각하면 이제는 차마 더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설사 하늘의 도움을 받아 천하를 통일할지라도 사람은 불로장생할 수 없는 것이며 자신의 자손이 천하를 영원히 지킬 수도 없다고 하였다. 옛날의 금은 천하를 통일한 바 있었으나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도 함께 지적하였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견해를 서술하면서 인조에게 강화에 대한 견해를 밝히도록 요구했다.[202]

이렇듯 홍타이지는 조선에 보내는 칙서에서 명과 강화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명의 사신 일행은 청군의 호위를 받아 탑산성으로부터 벗어난 뒤, 일단 명의 영역으로 귀환한 것으로 보인다. 『國榷』에 따르면, 오월 12일 병부주사(兵部主事) 주제지(朱濟之)가 칙서를 들고 마소유와 함께 심양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203] 주제지는 마소유 등이 칙서를 들고 영원으로 파견되었을 때 사신 일행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이었다.[204] 마소유 등 사신 일행은 탑산성이 청군에 의해 함락된 숭정 7년(숭정 15년, 1642) 사월 21일 청군의 호위를

---

202) 『同文彙考』 別編 권4, 軍務, 「問與明朝和戰便否勅」(崇德 7년 사월 28일), pp.41b-42b. 홍승주에게 인장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은 조선에 명과의 和戰 여부를 묻는 홍타이지의 칙서에 서술되어 있다. 이 칙서가 발송된 날짜가 숭덕 7년(1642) 사월 28일이었기에 홍승주가 칙서에 찍힌 인장이 제대로 된 것임을 확인해준 날짜는 숭덕 7년 사월 28일 이전으로 추정된다.

203) 談遷, 『國榷』 권98, p.5926, "兵部司務朱濟(之 원문 탈락)賫敕, 同職方郎中馬紹愉往瀋陽講款."

204) 談遷, 『國榷』 권98, pp.5913-5914; 『崇禎實錄』 숭정 15년, 정월 1일. "丁丑, 紹愉偕參將李御蘭, 周維墉, 至寧遠. 聞于淸, 請勅爲信, 乃復請于朝."

받고 일단 명의 영역으로 귀환하였다가 새로운 칙서를 들고 온 주제지와 함께 다시 심양으로 파견되었던 것이다. 『청태종실록』에 따르면 주제지가 포함된 사신 일행은 오월 3일에 탑산성에 도착하였다가 14일에 심양에 도착하였고 홍타이지는 연회를 마련해주었다.[205] 이 시점에 청은 송금지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행산성, 탑산성까지 4개의 성을 수중에 넣은 상태였다.

홍타이지가 사신 일행에게 연회를 베풀고 명의 교섭 제안에 응하자 숭덕 7년(1642) 오월 28일 한인 관원들은 강화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계책을 제시하였다. 우선 국토를 확장함으로써 명의 세력을 약화해야 하고, 그다음으로 나라의 재화를 늘려 명의 국력을 소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토를 확장하는 방책으로는 황하를 국경으로 삼는 것이 상책(上策)이고, 산해관을 국경으로 삼는 것은 중책(中策)이며, 영원을 국경으로 정하는 것은 하책(下策)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나라의 재화를 늘리는 방책으로는 명에게 납공(納貢) 및 칭신(稱臣)하게 하는 것이 상책이고, 몽골이 받던 물자를 받는 것이 중책이며, "관구(關口)"에서 교역을 하는 것이 하책이었다.

숭덕 7년(1642) 유월 3일 홍타이지는 숭정제에게 국서를 보내 다음과 같은 강화의 조건을 제시하였다.[206]

1. 양국은 길흉대사가 있을 때 사신을 파견한다.
2. 매년 명은 청에 금 1만 냥, 은 100만 냥을 보내고, 청은 명에게 인삼 1천 근, 초피 1천 장을 보낸다.
3. 청의 만주인, 몽골인, 한인, 조선인이 명으로 도주했다면 이들을 반드시 청으로 쇄환(刷還)해야 하고 명의 백성이 청으로 도주한 경우에도 명으로 이들을 쇄환한다.
4. 명은 영원의 쌍수보(雙樹堡) 중간의 토령(土嶺)을 경계로 삼고, 청은 탑산을 경계로 삼는다.
5. 연산(連山) 지역을 중간 지대[適中之地]로 삼고 명과 청은 이곳에서 교역을 실시한다.

---

205) 『淸太宗實錄』 권60, 숭덕 7년 오월 14일.
206) 『淸太宗實錄』 권61, 숭덕 7년 유월 3일.

6. 연해(沿海)의 경우 황성도(皇城島)를 경계로 하여 서쪽은 명, 동쪽은 청으로 정하며 함부로 경계를 넘어 다니는 자는 색출하여 율에 따라 처형한다.

홍타이지는 한인 관원들이 제시한 계책 중 국토에 관해서 하책을 선택하였고 재화를 늘리는 방책으로는 중책과 하책을 종합한 방안을 선택하였다. 홍타이지가 요구한 금 1만 냥과 은 100만 냥은 천총 6년(1632) 시점에 차하르가 매년 명으로부터 받던 무상은(撫賞銀)에 준하는 양이었다.[207] 홍타이지는 차하르가 받던 정도의 예물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이는 중책에 해당했다. 하책으로 제안되었던 교역 역시 강화 조건으로 거론되었다. 사신 일행의 일원으로 심양에 파견되었던 참장(參將) 주유용(周維庸)도 청 측에서 몽골이 "이전에 받던 시상[舊賞]"을 요구하였다고 훗날 회고하였다. 그에 따르면 청 측은 명과 교린 관계를 맺고 동맹국이 되고자 하였고 사신 일행을 후하게 대접하였다.[208]

홍타이지의 국서는 이상의 여섯 가지 제안을 골자로 한 강화 조건을 담고 있었고, 마소유는 이 국서를 들고 북경으로 귀환하였다. 청과의 교섭은 '비밀교섭'이었기에 진신갑은 마소유로부터 비밀 보고를 계속 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마소유가 보낸 문서를 부주의하게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진신갑의 가택에서 일하는 서동(書童)은 진신갑이 받은 문서를 당보(塘報)에 올리는 업무를 맡고 있었고, 청과의 교섭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문서를 당보에 올리고 말았다. 비밀리에 진행되던 교섭은 조정에 알려지게 되었고, 진신갑은 '오랑캐'와 강화를 성사시켜 송의 전철을 밟고자 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209]

숭덕 7년(1642)의 강화교섭은 숭정제의 재가를 받아 이루어졌다. 그러나

---

207) Ⅰ장에서 명 측 사료를 통해 천총 3년(1629) 당시 차하르가 명으로부터 매해 은 48만여 냥의 무상은을 받았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만문노당』의 천총 6년(1632) 시월의 기록에 따르면 홍타이지는 명조의 대신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천총 6년(1632) 당시 명에서 차하르에 한 해에 백만 냥 남짓 재화를 준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전한 바 있다.『滿文老檔』Ⅴ, 1961, 천총 6년 시월 10일, pp.857-858.

208) 張怡,『謏聞續筆』(上海: 進步書局, 1930) 권4, pp.51-52.

209) 張廷玉 等,『明史』권220,「列傳」145,「陳新甲」, pp.6638-6639.

숭정제는 책임을 회피하였고, 청과의 강화교섭은 진신갑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이 되었다. 이로 인해 숭덕 7년(숭정 15년, 1642) 칠월 진신갑은 기시(棄市)되어 최후를 맞이하였다.[210] 숭정 7년(1642)의 명·청 강화교섭은 중단되었다.

숭덕 7년(숭정 15년, 1642) 칠월 진신갑이 사망하고 교섭이 중단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홍타이지는 시월에 아바타이로 하여금 화북침공에 나서게 하였다('1642-43년 화북침공'). 이전과 마찬가지로 교섭이 중단되자 이를 명분 삼아 화북침공에 나섰다. '1642-43년 화북침공'이 이루어지기 전 한인 관원들은 북경을 직접 타격할 것을 제안했다. 이제까지 약탈을 위주로 시행해왔던 침공은 부유한 자들에게만 이익이 될 뿐, 가난한 병사는 자신의 몸과 한 필의 말밖에 없는 탓에 전리품을 많이 휴대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북경을 직접 타격하여 점령해야만 모두가 부유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타이지는 북경을 취하자는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 상께서는 (상주문을) 다 읽어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너희들이 북경을 곧장 취하자고 건의하나 짐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북경을 취하는 것은 마치 큰 나무를 베는 것과 같아서, 일단 반드시 양쪽에서 계속 찍어 들어가야 하며 (그렇게 한다면) 큰 나무가 스스로 넘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산해관 바깥의 4개 성도 취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바로 산해관을 함락할 수 있겠는가. 지금 명국의 정예병이 이미 소진되었으니 우리 군대가 사방에서 약탈을 가하면, 저들의 세력은 나날이 쇠퇴할 것이고 우리의 병력은 나날이 강성해질 것이니, 그제야 북경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211]

홍타이지는 여전히 북경을 바로 공략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다. '입관'과 북경 점령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으나 상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에 접근하고 있었다.

---

210) 李光濤, 1986, pp.430-432.

211)『淸太宗實錄』권63, 숭덕 7년 구월 5일, "上覽畢曰, '爾等建議, 直取北京, 朕意以爲不可. 取北京如伐大樹, 須先從兩旁斫削, 則大樹自仆. 今我不取山海關外四城, 豈能卽克山海關. 如今明國精兵已盡, 我兵四圍縱略, 彼國勢日衰, 我兵力日强, 從此北京可得矣.'"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42-43년 화북침공'을 위한 군대가 출정하기 직전 홍타이지가 명과의 강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원정군이 출발하기 하루 전인 숭덕 7년(1642) 시월 14일, 홍타이지는 원정군의 지휘관들을 불러 자신은 누차 강화를 시도하였으나 명 황제와 신하들이 응하지 않았기에 공격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명의 변경에 진입했을 시, 노약자를 멋대로 죽인다거나 의복을 빼앗아서는 안 되며 재물과 곡식을 함부로 불태워서도 안 된다고 일렀다. '1638-39년 화북침공' 당시 청군이 산동까지 공격했을 때 재물을 취하다가 엄벌에 처한 자들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러한 사달이 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명했다.[212]

더 나아가 출정 당일에는 지휘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전략을 지시하였다. 원정길을 나섰다가 교섭을 위한 명 측의 사신 일행을 마주치게 된다면 일단 반드시 심양에 있는 자신을 찾아오라고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213] 이는 곧 침공 도중에 명의 사신을 만나게 된다면 강화교섭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로부터 확인할 수 있듯이, 홍타이지는 숭덕 7년(1642)의 교섭이 중단되었음에도 강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다.

종합하면, 청은 송금지전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유적(流賊) 세력이 명을 위협할 정도라는 것도 파악하고 있었다.[214]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타이지는 강화를 성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강화를 성사시킴으로써 몽골 세력이 받던 무상은에 준하는 양의 예물을 받고 명과의 교역을 재개하고자 하였다. 숭덕 7년(1642) 교섭도 중단되자 '1642-43년 화북침공'을 수행하였다. 단, 출정이 임박하여 홍타이지가 지휘관들에게 내린 지시 사항을 고려했을 때, 홍타이지는 그 시점에도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명은 다시 교섭을 제안해오지 않았고, 아바타이가 이끄는 청군은 장장 8개월 동안 북직예(北直隸) 뿐만 아니라 산동 지역에까지 진출하여 물자를 약탈하고 심양으로 귀환하였다.[215]

---

212)『淸太宗實錄』권63, 숭덕 7년 시월 14일.
213)『淸太宗實錄』권63, 숭덕 7년 시월 15일.
214)『淸太宗實錄』권62, 숭덕 7년 구월 5일.
215) 박민수, 2017, pp.52-54.

Ⅳ. 홍타이지 시기 강화교섭의 성격과 의의

이제까지 홍타이지 시기 강화교섭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홍타이지의 강화교섭에서는 교섭과 공격이 번갈아 이루어지는 양상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하자면, 후금-청과 명 간에 교섭이 이루어졌으나 명 측의 사유로 인해 교섭은 중단되었고 홍타이지는 이를 구실로 삼아 명을 공격하였다. 그런데 이 공격의 전장에서 교섭을 다시 제안하였고 명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공격을 재개하였다. 명청 전쟁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홍타이지의 강화교섭은 그의 군사 작전과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홍타이지 시기 강화교섭은 중요 군사 작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은 채 전개되었다.

대부분의 교섭에서 홍타이지는 명과 강화를 맺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문룡을 제거하기 위한 기만 작전으로 교섭을 활용했던 시점에도, 홍타이지는 소기의 성과를 얻자 요구했던 예물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양보의 모습을 보였다. 교섭의 끈을 놓지 않았던 쪽은 홍타이지였다. 교섭은 명 측 내부의 문제로 인해 중단되었다. 그 중심에는 후금-청과의 강화를 용납하지 않는 다수의 관원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전술한 대로이다. 이상에서 분석한 천명 11년(1626)부터 숭덕 7년(1642)까지의 강화교섭의 양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홍타이지 시기 강화교섭 전개 양상

구분		양상 / 시기	교섭	공격	교섭
瀋陽	遼東官員	천총 원년 (1627)	홍타이지 - 遼東巡撫 袁崇煥	寧錦之戰(1627)	금주성의 관원 · 태감
		천총 3년 (1629)	홍타이지 - 遼東督師 袁崇煥	1629-30년 화북침공	숭정제 명 대신 금주 관원
邊官	宣府官員	천총 6년 (1632)	홍타이지 - 宣府巡撫 沈棨	1634년 화북침공	산서 관원 代王
瀋陽	明兵部尚書	숭덕 3년 (1638)	홍타이지 - 兵部尚書 楊嗣昌	1638-39년 화북침공	숭정제 명 대신 德王
北京		숭덕 7년 (1642)	兵部尚書 陳新甲 - 홍타이지	1642-43년 화북침공	출정 시 강화 가능성 타진

홍타이지가 강화교섭에서 이 양상을 반복적으로 보이면서 강화를 맺고자 했던 데에는 홍타이지 시기 후금-청이 겪고 있었던 심각한 경제 상황이 주요 동인으로 작용했다. 누르하치가 명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이래 후금-청은 명과의 교역이 단절되어 식량과 물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17세기 초반 동아시아가 겪었던 재해와 기근은 후금-청의 경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216] 다음과 같은 사료들을 살펴보면 홍타이지 재위기 후금-청이 처했던 열악한 상황을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천총 원년(1627) 사월의 기록이 주목된다.

216) 王景澤, 「明末東北自然災害與女眞族的崛起」, 『西南大學學報』 社會科學版, 2008-4; 김문기, 「17세기 중국과 朝鮮의 재해와 기근」, 『이화사학연구』 43, 2011.

【그해 나라에 기근이 심하여 汗께서 병사들에게 마침 맡기시기를 "재화와 布를 가득 채워서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곡식(도) 가득 채워서 가져오라"라고 하셨다. (그런데) 국인들 모두 재화(만) 많이 가져왔다. 많이 가져온 무명을 가지고 곡식을 사려고 하니, 살 수 없다. **이 해에 1金斗 곡식에 은 8냥이었다. 사람들의 고기도 먹었다.**[217)]】

이 기사는 천총 원년(1627) 사월 조선과 강화를 맺고 귀환하는 병사들에게 심양에 있던 홍타이지가 내린 명령을 서술한 것으로서, 당시 후금이 처했던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의 기근이 심각한 나머지 홍타이지는 조선으로부터 곡식을 약탈해올 것을 명령하였으나 병사들은 곡식 대신 무명을 비롯한 여러 재화를 많이 가져왔다. 더구나 이 해 곡가는 은 8냥에 달했고 인육을 먹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기록이 『구만주당』에서 붓으로 지워졌고 이후 편찬된 『청태종실록』은 물론 『만문노당』에서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기사와 마찬가지로 다음의 『구만주당』 기사 역시 삭제된 부분이 존재하고, 『만문노당』과 『청태종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그런데 삭제된 부분에서 당시 후금이 처했던 경제적 곤란이 절실하게 드러난다. 천총 원년(1627) 유월의 『구만주당』 기사는 다음과 같다.

---

217) 『舊滿洲檔』(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69) (六), 2645. 『舊滿洲檔』에는 원문을 붓으로 지우고 수정한 흔적이 남아있고, 이를 통해 수정하기 이전의 원문이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 있다. 지워진 부분은 『滿文老檔』에 기재되지 않았다. 특히, 張葳가 역주하여 출간한 『舊滿洲檔譯註, 淸太宗朝』 1에는 수정 전의 원문까지 전사해두었기에 내용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張葳譯註, 國立故宮博物院編, 『舊滿洲檔譯註, 淸太宗朝』 1,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80.
위의 인용문은 지워진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지워진 부분의 경우, 역문과 轉寫를 【】 안에 작성하여 이를 표시하였다. 【tere aniya gurun ambula yoyome ofi, han jing jasime, coohai niyalma be ulin boso acifi gajire anggala, bele jeku acifi gajio seme jasiha, tuttu ujihe gurun gemu ulin ambula gajiha. gajiha ulin be jeku udame jeci isihakū tere aniya emu sin dio jeku de jakūn yan salimbihe niyalmai yali inu jeke】「구만주당」 천총 원년의 또 다른 기사에서도 후금이 당시 처한 기근에 대한 기록을 산삭 처리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張葳譯註, 1980, pp.8, 28를 참조.

【백성】國人이 굶어서 【人肉】1金斗[218] 곡식이 【7】銀 8냥이었다. 백성이 사람의 고기도 먹었다. 그때 나라에 은은 풍부했으나 거래할 곳이 없어서 은의 가격은 싸고 재산의 모든 현물은 가격이 비쌌다. 한 마리 근사한 말에 300냥 은, 한 마리의 좋은 소에 100냥 은, 1필의 비단에 150냥 은, 1필의 면포에 9냥 은이었다. 【흉작으로 매우 굶주렸으며 1金斗 곡식이 은 8냥, 고기, 소금 한 근에 은 1냥이었다.】 도적이 흥하여 말과 소를 훔치고, 사람들이 【참지 못한 채】 서로 죽이는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났다.[219]

이 사료를 통해서도 당시 후금의 경제가 얼마나 열악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인육이 은 7냥이었다는 원래 문장에 대해 인육을 1금두 곡식으로 수정하고 7냥을 8냥으로 수정한 대목이다. 1금두 곡식이 은 8냥이라는 문장이 바로 뒤에 나오고, 이 문장을 그대로 지운 뒤, 앞 문장을 지운 문장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으로 보아 『구만주당』의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당시 후금 사람들이 인육을 사고팔았던 흔적을 지웠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후금은 인육을 먹는 사람이 있는 수준을 넘어서 인육 자체가 매매될 만큼 심각한 경제적 곤란에 처해 있었고 후대의 사료 편집자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과거를 의도적으로 지운 것으로 보인다.

비단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4~5냥의 은으로 적당한 비단을 살 수 있었다.[220] 천총 원년(1627)에는 한 필이 은 150냥에 달하여 30배 이상 가격이 올랐다. 명 측의 기록을 통해서도 후금의 물가 폭등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천총 3년(숭정 2년, 1629) 병부상

---

218) 金斗의 만문은 'sin'으로 이는 부피의 단위로서 18升(1斗 8升)이며 金斗로 번역된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 역주』 1, 서울: 소명출판사, 2017, p143의 각주 9.

219) 『舊滿洲檔』(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69) (六), 천총 원년 유월 23일, p.2685. 마찬가지로 지워진 내용을 【】 괄호 안에 작성하여 표기하였다.
"【irgen】 gurun yuyume ofi, 【niyalmai yalu】 emu sin jeku de 【nadan】 jakūn yan menggun salimbihe. irgen, niyalmai yali be inu jeke, tere ucuri gurun de menggun elgiyen, hūdašara ba akū ofi, menggun i hūda ja, ulin yaya jaka i hūda mangga, emu yebken morin de ilan tanggū yan menggun, emu sain ihan de emu tanggū yan, emu gecuheri de, emu tanggū susai yan, emu mocin de uyun yan salimbihe, 【jeku haji ambula yuyume emu sin jeku de jakūn yan salimbihe, yali dabsun emu gin de emte yan salimbihe】 holo hūlha dekdefi, morin ihan hūlhara, niyalma wanure 【alimbaharakū】 facuhūn oho,"

220) 『滿文老檔』 Ⅳ, 1959, 천총 6년 유월 24일, p.799.

서 왕흡(王洽)의 상주에 따르면, 선부·대동 지역의 방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화포와 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말 한 마리의 값이 은 20냥으로 산정된 바 있었다.[221] 이는 비록 근사한 말이라고 하나 1마리에 300냥 은에 달했다는 천총 원년(1627) 후금의 물가와 상당한 대비를 이룬다.

천총 3년(1629)의 상황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원숭환의 보고에 따르면 관외(關外) 지방은 당시에도 기근이 심각했고, 식량이 부족하여 인육을 먹는 상황이 만연하였다.[222] 같은 해 이월 21일 원숭환의 또 다른 보고에 의하면 후금에 기근이 심각하여 일부 여진인과 후금에 투항했던 한인들이 명의 경내로 도망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었다.[223]

천총 6년(1632) 정월 22일 동양성(佟養性)이 홍타이지에게 상주한 바에 따르면, 당시 후금의 토지는 적고 사람은 많아 유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다. 풍년인 경우라야만 1년을 버틸 수 있는 정도였고, 흉년이 들었다간 백성들이 자기 입에 풀칠하기에도 어렵게 되었다.[224] 다수의 기록을 통해 천총 연간 후금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숭덕 연간은 과연 어떠했을까? 숭덕 2년(인조 15년, 1637) 이월, 홍타이지의 요구에 따라 소현세자가 인질이 되어 심양으로 떠나는 시점에, 우의정 이성구(李聖求)는 당시 청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정을 인조에게 아뢰면서 세자를 배행할 관원을 줄여야 한다고 청한 바 있었다.[225] 『심양장계』의 기록에 따르면, 숭덕 7년(인조 20년, 1642) 당시에도 청의 경제 사정은 불안정했다. 예컨대 삼월 3일 자의 장계에서는 이 해 흉년이 들어 곡물의 물가가 나날이 앙등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오월 10일 자의 장계에서도 당시 심각했던 심양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226] 요컨대, 숭덕 연간에도 청이 처한 경제적 곤란

---

221) 『崇禎長編』, 숭정 2년 사월 26일, "(王)洽奏, '臣細筭之, 每馬一匹, 該折銀二十兩, 一萬五千匹, 該銀三十萬兩. 鑄造火砲一位, 需銀三十兩, 三萬, 該銀九十萬, 兩此一百二十萬.'"

222) 『明淸史料』 甲編, 第八本, 「兵部行督師袁崇煥題稿」(숭정 2년 삼월 2일), pp.707a.

223) 『明淸史料』 乙編, 第一本, 「兵部題薊遼督師袁崇煥塘報殘稿」(숭정 2년 이월 21일), p.56a

224) 『天聰朝臣工奏議』, 「佟養性謹陳末議奏」, p.9.

225) 『仁祖實錄』 권34, 15년, 이월 5일.

은 해소되지 못한 상태였다.[227]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홍타이지 재위기 동안 후금-청은 경제적 곤란을 타개하지 못했다. 홍타이지 재위기 후금-청의 취약한 경제 기반은 기존 연구에서 상세히 다루어진 바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 명 변경에 대한 침공은 중원의 재화를 획득하기 위한 약탈전으로 전개되었다는 식으로 설명되었다. 한인 농경 사회를 향한 공격은 북방 민족에게 있어서 재화 획득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고,[228] 후금 또한 '반농반목(半農半牧)'의 경제적 의존성을 극복하고자 농경 사회에 대한 약탈에 나섰다는 것이다.[229] 그러나 약탈전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다. 변경의 강력한 방어기지를 격파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었으며 명 측의 보복 공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따라서 약탈은 비상시의 대책이지 일상적인 방식이 될 수는 없었다.[230] 후금-청이 명 변경에 대해 약탈전을 벌임으로써 확보한 물목을 살펴보면 정작 기근을 해결하기 위한 식량은 그 주요 대상이 아니었다. 금, 은과 같은 귀중품이나 운반의 수고가 덜 드는 가축과 인구(人口)가 주요 약탈 대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강화가 성사되어 교역이 이루어진다면 경제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었다. 홍타이지는 여러 차례 교섭을 시도하였지만, 강화는 제대로 성사되지 못했고 교섭은 계속 중단되었다. 홍타이지는 중단을 명분으로 명 변경을 공격했다. 전장에서도 명 황제, 관원, 태감 등에게 서신을 발송하여 교섭을 누차 제안하였다. 홍타이지는 교섭 중단 이후 군사 작전을 펼치고 그 전장에서도 교섭을 제안하여 명을 '교섭의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해 압박을 가했다. 명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공격을 재개했다. 이처럼 홍타이지의 영금지전과 여러 차례의 화북침공은 명과의 강화교섭과 연동되어 전개되었고 강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압박책'으로도 기능했다.

---

226)『國譯 瀋陽狀啓』2,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0, 임오년 삼월 3일; 오월 10일, pp.139, 171.
227) 谷井陽子, 2006, pp.74-76.
228) 김호동,「古代 遊牧國家의 構造」, 서울대학교동양사연구실 편,『강좌 중국사』2, 서울: 지식산업사, 1989, pp.262-263.
229) 박민수, 2017, p.22.
230) 김호동,『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서울: 민음사, 2012, p.56.

압박에 명 측이 응하지 않을 시, 공격을 재개하여 화북 지역을 약탈한 뒤 재물을 거두어 심양으로 귀환했다.

이렇게 교섭과 공격을 반복하는 양상은 토마스 바필드(Thomas J. Barfield)가 제시한 바 있는 유목국가의 '외부변경전략(the outer frontier strategy)'을 떠올리게 한다. 바필드에 따르면 '외부변경전략'이란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진다. 유목국가는 자급 자족적이지 못한 탓에 중원 물자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생존을 도모하는 데에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그리하여 유목국가는 중원을 위협하기 위해 약탈전을 개시한 뒤, 중원 조정으로부터 물자를 획득하기 위한 교섭을 시도하게 된다. 강화가 성사된 이후에도 세폐의 증가와 교역권 획득을 위해 전쟁과 강화의 제안을 번갈아 수행한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중원의 영토를 점령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 전략의 주요 내용이다.[231)]

후금-청은 주지하다시피 유목국가도 아니며 명청 전쟁의 전황을 살펴보았을 때 양자 간에 벌어진 전쟁을 유목국가와 정주국가 간의 대결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특히 앞서 살펴보았듯이, 홍타이지는 '1629-30년 화북침공' 당시 영평 등 4개 성에 대한 점령 통치를 시도한 바 있었다. 더구나 전쟁 중에 교섭과 공격이 번갈아 이루어지는 양상은 비단 명청 전쟁이나 유목국가와 중원왕조 간의 전쟁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타이지 시기 강화교섭의 성격을 바필드의 '외부변경전략' 개념을 바탕으로 파악하는 이유는 공격과 교섭을 번갈아 수행하는 행태에 대한 특정 개념어가 존재하지 않거니와, 홍타이지 역시 영평 등 성지에 대한 점령 통치가 실패한 이후 새롭게 중원의 영토를 점령하려고 하지 않고 강화를 통해 명과의 공존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홍타이지는 그 선례를 파악하고 있었다. 오이라트의 에센이 그러했고, 투메드의 알탄이 그러했으며 차하르의 릭단도 마찬가지의 전략을 구사하면서 중원왕조와 공존하였다. 특히 천총 6년(1632)의 시점부터는 후금-청이 몽골 세력을 대신하여 명으로부터 물자를 받고 명과 교역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알탄의 사례를 언급하였다. 이 주장은 숭덕 연간의 명·청 교섭에도

231) 토마스 바필드, 2009, pp.122-144.

이어졌다. 홍타이지는 숭덕 3년(1638)의 교섭에서도 알탄과 융경화의를 거론하였으며, 숭덕 7년(1642)에 명에 제시한 조건 역시 알탄의 선례를 자신이 따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종합하면, 홍타이지는 우선 후금-청이 처한 고질적인 경제난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강화교섭을 시도했다. 교섭이 중단되었을 때 이를 구실로 명을 공격하였다. 홍타이지는 변경을 침략하는 전장에서도 계속 교섭을 제안하면서 명을 다시 교섭으로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이는 바필드가 유목국가에 설정한 모델인 '외부변경전략'의 패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 것이었다. 그러나 후금-청은 유목국가가 아니었고 홍타이지 시기 강화교섭이 '외부변경전략'의 '패턴'을 따른 것은 후금-청이 처한 경제적 곤란이 그 핵심 동인이었다. 홍타이지 시기 강화교섭은 중원 정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전략으로 기능했다기보단 국가의 생존이 결부된 지극히 현실적인 사안에 해당했던 것이다.

맺 음 말

누르하치는 천명(天命) 3년(1618) 명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여 명청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당시 후금은 국가의 수립을 선포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신생 국가'였다. 이 '신생 국가'는 순치 원년(1644) 북경을 차지하였고, 강희(康熙) 원년(1662) 남명 정권을 멸망시킴으로써 명청 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50여 년에 달하는 전쟁 중 명과 후금-청 사이에 전투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전쟁을 그치기 위한 강화교섭 역시 시도되었다. 누르하치 시기 명과의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의 뒤를 이어 한으로 즉위한 홍타이지는 명과 교섭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그런데 청이 결국 명청 전쟁의 승리자가 되고 '명의 천하'를 대체했다는 역사적 사실로 인해 홍타이지 시기 강화교섭은 '중원 정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나 수단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목적론적 접근에서 벗어나 홍타이지 시기 강화교섭의 전개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천명 11년(1626) 누르하치가 사망하였고 요동순무(遼東巡撫) 원숭환은 이라마(李喇嘛)를 파견하여 조의를 표했다. 홍타이지는 답신을 보내어 이제 자신과 양국 간의 일을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는 천총 원년(1627) 강화교섭 이전의 접촉에 해당했으며 교섭의 발단이 되었다. 천총 원년(1627) 정월 8일 홍타이지는 재차 서신을 보내 교섭을 제안하였다. 이 시기 홍타이지와 원숭환 양측은 모두 기만 작전으로 강화교섭을 활용하였다. 홍타이지는 모문룡 세력을 약화할 수 있었다. 원숭환은 요서(遼西) 지역에 성을 수축하여 후금에 대한 방비를 강화하였다. 교섭이 중단되고 원숭환이 요서 지역에 성을 계속 수축하자 홍타이지는 영금지전(寧錦之戰, 1627)에 착수했다.

자신이 직접 이끈 후금군이 영금지전에서 패배한 이후, 홍타이지는 몽골의 타이지와 라마를 파견하여 천계제의 죽음에 대해 조의를 표하고 교섭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명 측은 조문을 거절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

임해있던 원숭환이 요동독사(遼東督師)로 복귀하였고 홍타이지는 다시 원숭환에게 서신을 발송했다. 홍타이지와 원숭환과의 교섭이 재개된 것이었다. 이 교섭에서 홍타이지는 인장과 연호에 관한 명의 요구를 수용하였고 책봉까지 받겠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강화는 성사되지 못하고 교섭은 중단되었다. 이에 홍타이지는 화북을 침공하여 상당한 물자를 약탈하였고, 영평(永平) 등 4개의 성을 함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홍타이지는 영평 일대의 4개 성에 대해 '점령 통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게 된다.

천총 6년(1632) 후금-몽골 연합군은 차하르 릭단을 향해 출정하였으나, 릭단은 후금-몽골 연합군이 북상하던 시점에 이미 흥안령 이북으로 원정을 떠난 상태였다. 홍타이지는 군대를 돌려 명 변경의 바이싱을 침공하여 대규모 물자를 약탈하였다. 그 과정에서 산서(山西)의 선부(宣府) 관원과 교섭이 시도되었다. 이 교섭에서 홍타이지는 변경 관원과 실제로 맹약을 맺고 장가구(張家口)에서 교역을 재개하였다. 그리고 몽골 세력이 명으로부터 받던 무상은(撫賞銀)을 이제 후금이 받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후금이 차하르 몽골을 패퇴시켰기 때문에 이제 알탄의 선례를 자신이 따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선부 맹약'은 변경 관원과 맺은 것에 불과했고 명 조정은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에 홍타이지는 천총 7년(1633)의 대토론을 거쳐 이듬해 다시 화북을 침공했다.

숭덕 연간에 강화교섭은 또 새로운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전까지는 변경 관원만이 후금과의 강화를 염두에 두었다고 한다면, 이제 명 병부상서가 강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 숭덕 3년(숭정 11년, 1638) 명 병부상서 양사창(楊嗣昌)은 명 황제의 재가를 받아 청과의 비밀교섭을 추진하였고, 주원충(周元忠)을 심양에 파견하였다. 사료의 한계로 교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진 못했으나 홍타이지는 교역의 재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알탄과 융경화의를 다시 거론하였다. 그러나 이 교섭이 누설되어 명 조정에 알려지면서 교섭은 중단되었다. 홍타이지는 교섭의 중단을 구실로 삼아 화북침공에 나섰다.

송금지전(松錦之戰)의 전황은 숭덕 7년(1642) 강화교섭에 변수로 작용하였다. 명의 대군이 청군에 패배하여 송산·금주성에 고립되었고 명 조정에

서는 청과 강화를 맺어 고립된 군사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병부상서 진신갑은 숭정제의 재가를 받아 청과의 교섭을 진행하였다. 청 측에서는 사신이 칙서를 갖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신 일행을 돌려보낸다거나 칙서에 찍힌 인장의 진위를 의심하기도 하였다. 이 의심은 홍승주에 의해 해소되었고 명의 사신 일행은 심양에 도착하였다. 홍타이지는 이들을 후대한 뒤 강화를 위한 조건을 담은 국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교섭은 명 측의 사유로 인해 중단되었고 홍타이지는 다시 화북을 침공했다. 단 홍타이지가 침공에 나서는 원정군의 지휘관들에게 내린 명령을 보았을 때 교섭이 중단되고 출정을 결정한 시점에서도 홍타이지는 강화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다.

이상 홍타이지 시기 강화교섭을 검토한 결과, 교섭마다 그 전개 양상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숭환을 비롯한 요동 관원이 후금과의 교섭을 담당하였다가 이후에는 산서의 선부 관원이, 숭덕 연간에는 명 병부상서가 교섭을 담당했다. 교섭의 내용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천총 원년(1627)부터 천총 3년(1629)까지의 교섭은 서신의 서식, 인장, 연호와 같은 소위 '프로토콜'이 주요 의제가 되었다. 천총 6년(1632) 시점부터는 몽골이 명으로부터 받던 물자와 교역의 재개가 핵심 내용이 되었다. 천총 연간의 교섭은 숭덕 연간의 명·청 강화교섭의 밑거름이 되었다. 알탄의 선례와 교역 문제는 숭덕 연간에도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고, 홍타이지는 자신이 파악한 '프로토콜'에 따라 명이 파견한 사신 일행과 그들이 가져온 칙서를 문제 삼기도 했다. 홍타이지의 강화교섭은 시기별로 상이한 단계에 접어들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 단계가 진행될수록 강화의 실현 가능성은 커져 갔다. 단적으로 숭덕 연간의 교섭에서는 천총 연간 교섭에 걸림돌이 되었던 '프로토콜' 문제가 상당수 해결되었고, 명 황제와 조정의 일부 대신 역시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구분되는 전개 양상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홍타이지는 교섭이 중단될 시 이를 명분으로 삼아 명을 공격하는 한편 전장에서 다시 교섭을 제안했다. 명이 응하지 않자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렇듯 교섭과 공격을 번갈아 수행하는 행태는 토마스 바

필드가 제시한 유목국가의 '외부변경전략'을 떠올리게 하며, 그러한 패턴이 드러나는 배경에는 후금-청이 처해 있던 열악한 경제 상황이 있었다. 홍타이지는 강화를 성사시킴으로써 명과의 교역을 재개하고 명으로부터 물자를 받아 후금-청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홍타이지는 '외부변경전략'에 준하는 행태를 반복적으로 보이면서 강화를 성사시켜 전쟁을 그치고, 알탄의 선례를 따라 명과의 공존 상태를 유지하고자 했다.

홍타이지 시기 강화교섭은 그의 '위대한' 목표를 위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되어 실행된 것이 아니었다. 역사가들에게는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으나 당시 사람들은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입관(入關)과 청의 중원 정복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홍타이지 시기 강화교섭도 그 결과를 이룩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에 불과했다고 파악하게 했다. 청이라는 국가가 홍타이지 사후에 이룩한 대업은 홍타이지의 '현실적' 목표와 '근시적' 지향을 오히려 '이상적' 목표와 '원시적' 지향으로 보이게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참 고 문 헌

1. 사료

『孤兒籲天錄』(楊山松, 『四庫禁毁書叢刊』編纂委員會編, 『四庫禁毁書叢刊補編』17, 北京: 北京出版社, 2005)

『舊滿洲檔』(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69 →『滿文原檔』臺北: 國立故宮博物院, 2005 再影印)

『舊滿洲檔譯註, 淸太宗朝』(張葳譯註, 國立故宮博物院編,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80)

『舊滿洲檔: 天聰九年』(1・2) (東洋文庫淸代史硏究室 譯註, 東京: 東洋文庫, 1972-1975)

『國榷』(談遷, 張宗祥 校點, 北京: 中華書局, 1988)

『內國史院檔: 天聰七年』(東洋文庫淸代史硏究室 譯註, 東京: 東洋文庫淸代史硏究委員會, 2003)

『內國史院檔: 天聰八年』(東洋文庫淸朝滿州語檔案史料の總合的硏究チーム, 東京: 東洋文庫東北アシ゛硏究班, 2009)

『(中國第一歷史檔案館藏)內國史院滿文檔案譯註(崇德二・三年分)』 (河內良弘 譯註・編著, 京都: 松香堂書店, 2010)

『東江疏揭塘報節抄』(毛承斗 輯, 賈乃謙 點校, 『東江疏揭塘報節抄 外二種』,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86)

『同文彙考』(國史編纂委員會, 1978)

『東華錄』(王先謙 撰, 『續修四庫全書』368, 史部, 編年類『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95)

『滿文老檔』Ⅰ-Ⅶ (滿文老檔硏究會 譯註, 東京: 東洋文庫, 1955-1963)

『滿文老檔 역주』(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역주, 소명출판사, 서울: 2017)

『明史』(張廷玉 等 撰, 北京: 中華書局, 1974)

『明神宗實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明史紀事本末補遺』(谷應泰, 北京: 中華書局, 1977)
『明淸史料』(中央硏究院歷史語言硏究所 編, 臺北: 商務印書館, 1930-1936)
『明淸檔案存眞選輯』(李光濤 編, 臺北: 中央硏究院歷史語言硏究所, 1959-1975)
『明季北略』(計六奇, 北京: 中華書局, 2006)
『明熹宗實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邊事小記』(周文郁, 臺北: 廣文書局, 1969)
『三坦筆記』(李淸, 顧思 點校,『元明史料筆記叢刊』, 北京: 中華書局, 1982)
『三朝遼事實錄』(王在晉, 全國圖書館古籍文獻編委會 彙刊,『中國公共圖書館古籍文獻珍本彙刊・史部』, 北京: 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2002)
『山中聞見錄』(彭孫貽, 李澍田 編,『東北史料薈萃』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0)
『謏聞續筆』(張怡, 上海: 進步書局, 1930)
『嘯亭雜錄』(愛新覺羅昭槤, 北京: 中華書局, 1980)
『崇禎長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崇禎實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承政院日記』(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瀋陽狀啓』(→ 소현세자 시강원 지음, 정하영 등 역주,『심양장계: 심양에서 온 편지』, 파주: 창비, 2008)
『瀋陽狀啓』(→『國譯 瀋陽狀啓』(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0)
『烈皇小識』, (文秉 等, 臺北: 廣文書局, 1967)
『楊文弱先生集』(楊嗣昌, 梁頌成輯校,『楊嗣昌集』, 長沙: 嶽麓書社, 2008)
『兩朝從信錄』(沈國元, 王有立 主編,『中華文史叢書』10, 臺北: 台灣華文書局, 1968)
『袁崇煥資料集錄』(閻崇年・俞三樂 集錄, 南寧: 廣西民族出版社, 1984)
『袁督師遺稿遺事彙輯』(張江裁 纂錄, 臺北: 拜袁堂, 1941)

『仁祖實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張春爲與明朝議和事開款直言」(『歷史檔案』1982-2)
『鄭泰齊史草』(한국사료총서 3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天聰朝臣工奏議』(潘喆 等編,『淸入關前史料選輯』 第2輯,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9)
『淸世祖實錄』(乾隆 三修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淸太祖實錄』(乾隆 三修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淸太宗實錄』(乾隆 三修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 연구서

가. 國文

구범진,『조선 시대 외교문서: 명·청과 주고받은 문서의 구조 분석』,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08.
_____,『청나라, 키메라의 제국』, 서울: 민음사, 2012.
김종원,『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 서울: 혜안, 1999.
김호동,『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서울: 민음사, 2012.
전해종,『한중관계사 연구』, 서울: 일조각, 1970.
한명기,『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서울: 푸른역사, 2009.

나. 中文

故宮博物院 編, 朱誠如 主編,『淸史圖典: 淸朝通史圖錄』第一冊-太祖太宗朝, 北京: 紫禁城出版社, 2002.
劉小萌,『滿族從部落到國家的發展』,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 (→ 유소맹 지음, 이훈·이선애·김선민 옮김,『여진 부락에서 만주 국가로』, 서울: 푸른역사, 2013.)
謝貴安,『淸實錄硏究』,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3.
孫文良,『滿族崛起與明淸興亡』, 瀋陽: 遼寧大學出版社, 1992.

孫文良・李治亭・邱蓮梅,『明淸戰爭史略』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2.
閻崇年・呂孟禧,『袁崇煥學術論文集』, 南寧: 廣西人民出版社, 1988.
閻崇年,『袁崇煥硏究論集』, 臺北: 臺北文史哲出版社, 1994.
_____,『袁崇煥傳』, 北京: 中華書局, 2005.
_____,『明亡淸興六十年』, 北京: 中華書局, 2006.
_____,『淸朝開國史』, 北京: 中國友誼出版公司, 2014.
烏雲畢力格,『喀喇沁萬戶硏究』,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2005.
袁閭琨・蔣秀松・滕紹箴・魏鑒勳・馮年臻,『淸代前史』(下卷), 瀋陽: 瀋陽出版社, 2004.
李光濤,『明淸檔案論文集』,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86.
李洵・薛虹 主編,『淸代全史』,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95.
李鴻彬,『淸朝開國史略』, 蓬萊: 齊魯書社, 1997.
_____,『滿族崛起與淸帝國建立』,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03.
張德信,『明代職官年表』1, 合肥: 黃山書社, 2009.
陳生璽,『明淸易代史獨見』,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1.

다. 日文

谷井陽子,『八旗制度の硏究』,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5.
稻葉君山 著, 但燾 譯,『淸朝全史 上』, 上海: 中華書局, 1915.
辻大和,『朝鮮王朝の對中貿易政策と明淸交替』, 東京: 汲古書院, 2018.
鈴木開,『明淸交替と朝鮮外交』, 東京: 力水書房, 2021.
河內良弘,『滿洲語文語文典』京都: 京都大學術出版會, 1996.
和田淸, 潘世憲譯,『明代蒙古史論集』,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2015.

라. 英文

Barfield, Thomas J., *The Perilous Frontier: Nomadic Empires and China, 221 BC to AD 1757,* Oxford: Blackwell Publishers, 1992.(→ 윤영인 옮김,『위태로운 변경』,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Di Cosmo, Nicola and Dalizhabu Bao, *Manchu-Mongol Relations on the Eve of the Qing Conquest: A Documentary History*, Leiden; Boston: Brill, 2003.

Elliott, Mark C., *The Manchu Way: 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이훈・김선민 옮김,『만주족의 청제국』, 서울: 푸른역사, 2009.)

Keliher, Macabe, *The Board of Rites and the Making of Qing China,* Oak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9.

Wakeman Jr., Frederic, *The Great Enterprise: The Manchu Reconstruction of Imperial Order in Seventeenth-Century China*, Vol.1,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Wang, Yuanchong, *Remaking the Chinese Empire, Manchu-Korean relations 1616-1911*,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8.

Ⅲ. 연구논문

가. 國文

구범진,「조선의 대(對)후금・청 외교와 병자호란의 발발 원인」, 백영서・정상기 엮음,『내일을 읽는 한・중관계사』, 서울: RHK, 2019.

김문기,「17세기 중국과 朝鮮의 재해와 기근」,『이화사학연구』43, 2011.

김종원,「丁卯胡亂時의 後金의 出兵動機」,『동양사학연구』12・13 合輯, 1978.

김호동, 「古代 遊牧國家의 構造」, 서울대학교동양사연구실 편, 『강좌 중국사』 2, 서울: 지식산업사, 1989.
노기식, 「홍타이지의 반릭단 만몽연맹 확대와 이용」, 『中國學論叢』 13, 2000.
_____, 「滿洲의 興起와 동아시아 질서의 변동」, 『中國史硏究』 16, 2001.
박민수, 「淸의 入關과 旗人의 北京 移住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소찬영, 「入關前 淸朝의 經濟的 狀況-崇德 年間의 掠奪戰과 奴僕(aha) 계층을 中心으로」, 『서울大 東洋史學科論集』 34, 2010.
윤영인, 「10-13세기 동북아시아 多元的 國際秩序에서의 冊封과 盟約」, 『동양사학연구』 101, 2007.
이선애, 「淸 初期 外藩(tulergi golo) 형성과정과 理藩院」,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조원, 「명・오이라트 通貢・互市의 양상과 성격」, 『몽골학』 67, 2021.
최주봉, 「마지막 대칸 릭단의 몽골 통일 시도와 그 유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나. 中文

姜守鵬, 「遼東對峙時期的明淸議和」, 『東北師範大學學報』, 1986-6.
滕紹箴, 「皇太極的求和及其眞意」, 『求是學刊』, 1982-3.
吳剛, 「“搶西邊”和“欲得中原”, “己巳之役”中滿洲貴族新舊“戰爭理念”的碰撞和衝突」, 『淸史硏究』, 2011.
王景澤, 「明末東北自然災害與女眞族的崛起」, 『西南大學學報』 社會科學版 34, 2008-4.
王思治・李鴻彬, 「論皇太極時期對明作戰策略的演變」,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明淸檔案與歷史硏究: 中國第一歷史檔案館六十周年紀念論文集』, 北京: 中華書局, 1988.
王玉君, 「淺析明與後金(淸)的三次議和及其失敗原因」, 『黑龍江史志』 2017-6.

王鐘翰,「論袁崇煥與皇太極」,『社會科學戰線』, 1985-1.
劉承軍,「淸代開國政權意識形態探析:以淸太祖、太宗正統觀爲中心的考察」,『商丘師範學院學報』, 2012-11.
李光濤,「記金國汗之迫而乞款」,『學原』第一卷, 第十期, 北京: 商務印書館, 1948.
_____,「淸人入關前求款之始末兼論袁崇煥陳新甲之死」,『明淸檔案論文集』,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86.
李勤璞,「白喇嘛與淸朝藏傳佛敎的建立」,『臺灣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集刊』30, 1998.
_____,「明末遼東邊務喇嘛」,『中央硏究院歷史語言硏究所集刊』71-3, 2000.
李鴻彬,「皇太極時期明金(淸)關系初探」,『遼寧大學學報』, 1983-1.
_____,「淸朝開國與對明議和策略」,『史學集刊』, 1992-2.
_____,「試論皇太極與大淩河之戰」,『史學集刊』, 1997-1.
李華彦,「林丹汗索賞與崇禎朝遼東撫賞政策之重整」,『아시아연구』10, 2010,
任長正,「淸太祖太宗時代明淸和戰考」,『大陸雜志史學叢書第一輯 第七冊 淸史及近代史硏究論集』, 臺北: 大陸雜志社, 1996.
張國光・李悔吾,「重評楊嗣昌、盧象升等關於對淸議和問題的政見之爭: 明淸關係硏究之一」,『社會科學輯刊』, 1982-1.
張德信,「明淸議和與陳新甲之死」,『史學月刊』, 1993-3.
張帥,「淸太宗時期的明淸議和」, 南京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5.
張玉興,「十七世紀前期明淸議和述評」,『中國社會科學院硏究生院學報』, 1990-3.
齊木德道爾吉, 「天聰六年愛新國大軍征略庫庫和屯史實解讀(一):以《滿文原檔》爲中心」,『內蒙古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 2014-4.
_____, 「天聰六年愛新國大軍征略庫庫和屯史實解讀(二):以《滿文原檔》爲中心」,『內蒙古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 2014-5.
趙世瑜,「淸對明議和二・三見」,『社會科學輯刊』, 1983-1.

趙亞涕,「皇太極對明朝策略的轉變」,『歷史教學』, 1996-4.
陳生璽,「論松錦之戰後的明清議和」,『渤海學刊』1989-3.

다. 日文

谷井陽子,「八旗制度再考(二): 經濟的背景」,『天理大學學報』57-2, 2006.
神田信夫, 「滿文老檔に見える毛文龍等の書簡について一毛文龍と後金との和議の交渉をめぐって一」,『清朝史論考』, 東京: 山川出版社, 2005.
_____,「袁崇煥の書簡について」,『清朝史論考』, 東京: 山川出版社, 2005.

라. 英文

Elliott, Mark C., "Whose Empire Shall It Be?: Manchu Figurations of Historical Process in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Lynn Struve ed., *Time, Temporality, and Imperial Transitio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5.
Li, Gertraude Roth, "State Building Before 1644." Willard J. Peterson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Abstract

Qing Taizong Hongtaiji's Peace Negotiations with the Ming, 1626-1643

Son, Jaewan
Department of Asi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Hongtaiji(皇太極, r.1626-1643) ascended the throne as the second Han(汗) of the Later Jin(後金). After he died, Dorgon(多爾袞) advanced into Peking after passing through the Shanhai Pass(山海關). The Qing(淸) eventually won the war by destroying the Southern Ming(南明). Since Hongtaiji's state had won the Ming-Qing War and in the end had conquered the Ming(明) proper, he tended to be understood as having had the conquest of the Ming proper as an early goal.

This approach has been applied to explain his peace negotiations with the Ming. Many studies have identified his peace negotiations as a strategy designed to achieve the goal of conquering the Ming. This thesis departs from such a teleological approach and attempts to examine the overall development of peace negotiations during the Hongtaiji period.

In the early phase of Hongtaiji's peace negotiations, the counterpart was Yuan Chonghuan(袁崇煥). Having heard the news of Nurhaci's death, Yuan dispatched the envoys to present his condolences to Nurhaci. In response, Hongtaiji wrote a letter to Yuan. As Yuan did not reply, Hongtaiji sent another letter presenting specific conditions for the peace agreement.

At this point, Hongtaiji and Yuan Chonghuan used peace negotiations as a deceptive tactic. Hongtaiji secured time on the Ming front and sent an army to Chosŏn to eliminate Mao Wenlong(毛文龍). Yuan took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to construct castles in the Liaoxi(遼西) region. As the negotiations were stopped, Hongtaiji launched an attack on Yuan's side. Hongtaiji suggested negotiations on the battlefield, but he did not get any reaction back from Yuan's side.

After the defeat of this attack, Hongtaiji dispatched envoys to offer condolences on the death of the Ming Emperor and to suggest peace negotiations. However, the Ming side rejected the envoys' visit. Soon after, Yuan returned to Liaodong after his resignation, and Hongtaiji made peace talk with him again. The negotiations broke down despite Hongtaiji's concessions regarding seals and the era's name. In response, Hongtaiji invaded Huabei (華北). On the battlefield of the invasion, he suggested negotiations with the Ming emperor and the officials in Liaodong.

The invasion of Huabei in 1632 took place along with an expedition against the Chakhar Ligdan. In the sixth year of the Tiancong era(1632), the Later Jin-Mongol allied forces marched north toward Ligdan. As Ligdan's whereabouts were not known, they turned their forces south and launched an invasion of Mongolian cities along the Ming frontier. On the way back to

Shenyang(瀋陽), Hongtaiji negotiated with the officials from the Xuanfu(宣府). During this negotiation, he repeatedly invoked the precedent of Tümed Altan, arguing that the Later Jin would receive the goods that the Ming had offered for peaceful relations with the Mongols. Resuming trade with the Ming was another major agenda of the negotiation.

In the era of Chongde(崇德, 1636-1643), the Minister of War(兵部尚書) of the Ming court actively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a peace agreement with the Qing. In the third year of the Chongde era(1638), Yang Sichang(楊嗣昌) received the Ming emperor's authorization to send envoys to Shenyang for a negotiation. It seems that the trade issues were being discussed along with the precedent of Altan. However, the negotiation was leaked at the Ming court, which gave Hongtaiji a pretext for raiding Huabei.

After the Ming army was defeated at the Battle of Songshan and Jinzhou(松錦之戰), the Ming court considered reconciliation with the Qing. Chen Xinjia(陳新甲), a Minister of War, dispatched envoys to Shenyang. Hongtaiji proposed that the Qing would set the Tashan(塔山) area as a border and resume trade in the adjacent place. Another condition was that the Qing would take a similar amount of presents the Ming had provided for the Chakhar. However, the negotiations were stopped again. After this, Hongtaiji decided to invade Huabei.

Hongtaiji repeatedly exhibited the following behaviors. When the negotiations progressed and were interrupted by the Ming's attributable issues, Hongtaiji used such a situation as a pretext to attack the Ming. He then suggested negotiations again on the battlefield. As the Ming did not respond, he resumed his attack. This alternation between negotiation and attack is reminiscent of

‘the outer frontier strategy’ of nomadic empires which was suggested by Thomas J. Barfield. Economic difficulties that the Manchu state was facing were behind such behaviors. Hongtaiji repeatedly exhibited behaviors similar to ‘the outer frontier strategy’ and sought to coexist with the Ming by achieving a peace agreement with it.

In conclusion, Hongtaiji’s peace negotiations were not used as a well-designed strategy to achieve the great goal of conquering the Ming. It was the great achievements of the Qing that caused the misunderstanding of his Hongtaiji’s negotiations as a far-sighted and carefully planned strategy to conquer China.

Keywords : Peace Negotiation, the Ming-Qing War, Hongtaiji, Yuan Chonghuan(袁崇煥), the invasion of Huabei(華北), Ming-Qing Transition

Student Number : 2020-21922